2003 청소년상담연구 · 105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2003 청소년상담연구 · 105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연구

연구책임자 : 김 동 민
공동연구자 : 금 명 자
권 해 수
이 소 영
이 희 우
이 광 호

한국청소년상담원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간 행 사

근래에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란 한 사회가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그 사회가 지닌 모든 역량을 투입함으로써 그 사회의 영속성과 변화를 꾀하는 1차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중요성을 가집니다. 또한 한 개인에게는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을 통해 학습의 즐거움을 향유하는 곳이며, 이의 부산물로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학교를 많은 청소년들이 떠나고 있다는 것은 학교가 제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듯합니다. 이 말은 학교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교는 그 사회의 역량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어쩌면 우리 사회의 역량이 청소년들에게 학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해주기에 부족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사회의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적 역량을 점검하고 이를 강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어찌 보면 상당히 추상적인 말로 그 실체를 잡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편, 이렇게 어물어물 하는 사이에 학교를 떠난 우리의 아이들은 하루하루를 어렵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반 이상이 학교 밖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002년에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등을 비롯한 정부 10개 부처는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공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책은 그 동안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해 오던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좀 더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제공해 보자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을 위해 사회의 역량을 모아 보자는 것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협의체 구성과 운영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이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 첫 단초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마련된 대책들이 시행되고, 그 문제점이 보완되어서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2004년에 이 연구를 토대로 학업중단청소년 지원협의체 시범운영을 합니다. 부디 이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다음 해에는 보다 완전한 지원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도와주신 문화관광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바쁜 가운데 이 연구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지방 청소년상담실 실부장 여러분, 경기대학교의 이광호 교수님, 그리고 한국청소년상담원의 금명자 실장을 비롯한, 김동민 박사, 권해수 박사, 이소영 선생, 이희우 선생에게 그 노고를 치하합니다.

2003년 12월

한국청소년상담원 원장 **이 혜 성**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 3

Ⅱ. 선행연구 개관 ····· 5

1. 지역단위 연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 ····· 5
2.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개입전략에 대한 연구 ····· 7

Ⅲ. 연구 방법 ····· 11

Ⅳ. 지역단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협의체 구성 방안 (안) ····· 12

1. (가칭)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12
2. 지역단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협의체의 구성 ····· 15
3. 학업중단청소년 지원협의체의 사무국으로서의 시·도 종합상담실의 역할 ····· 24
4. 사무국 역할수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과제 ····· 44

Ⅴ. 결 어 ····· 46

참고문헌 ····· 48

부 록

부록 1. 콜로퀴엄 ····· 51
부록 2.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관계기관 워크샵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대책 실행방안) ····· 104
부록 3. 설문지(기관, 청소년) ····· 137
부록 4. 의뢰접수증 ····· 157
부록 5. 영역별 정보조사내용 ····· 158
부록 6. 평가동의서 ····· 163
부록 7. 평가회의 및 배치기록 ····· 164
부록 8. 현장연구(복교 청소년 및 부모) 결과보고 ····· 166
부록 9. 지원협의체 연간 예산 예시 ····· 176

그림목차

그림 1. 수정된 학업중단청소년 지원협의체 구성 ····· 7
그림 2. 학업중단청소년 각 단계별 개입체계 모형도 ····· 8
그림 3.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센터 조직 ····· 14
그림 4. 지원협의체 조직 ····· 18
그림 5. 사례관리 과정 흐름도 ····· 33

표 목 차

표 1. 지역 참여단체의 역할 예시 ····· 22
표 2. 지역자원 기초조사 내용 ····· 25
표 3. 지역 고유 코드 ····· 34
표 4.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 인력자원 및 역할 ····· 36
표 5. 지역내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기초조사 내용 ····· 37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다니던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중도에 떠나는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가 국가와 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관한 점증하는 관심의 배경에는 학교 이외에 청소년이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부재'라는 현실이 그 핵심에 있다. 즉,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난 경우, 그 개인에게는 삶에 필요한 기술의 습득 및 기회의 상실, 그리고 다양한 위험에의 노출 등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다 (유성경 & 이소래, 1998).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의 학업중단은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삶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부담을 가중시켜 궁극적으로 국가적인 자원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최근 국가적 차원에서 대두되고 있다. 그 일례로 지난 2002년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정부 각 부처가 참여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하여 '학업중단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 (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마련한 바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종합대책'은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가 정부의 특정부처에 국한된 사안이 아님을 인식하고 관련부처 협조관계 형성을 통한 체계적 접근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이창호, 지승희, 장미경, & 손재환, 2002). 종합대책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중심이 되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학교에 복교시키거나 정규학교교육 이외의 대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여 학력인정을 해주는 것과 관련한 것이다. 둘째는 학력인정을 위한 조취를 취하고자 하는 교육인적 자원부의 대상범위를 벗어난 집단을 위한 대책이다. 이를 위해 종합대책에서는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지방청소년상담실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 '학업중단청소년 지원협의체' (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 '지원협의체'는 각 지방 교육청, 상담실, 자치단체, 청소년 관련 시설 등의 관계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 청소년 상담실이 사무국 기능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협의체 사무국으로서의 지방 청소년상담실은 지역내 모든 서비스 제공 기관의 창구가 되어 의뢰, 평가, 배치, 추수관리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조정·관리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따라서 학교를 이미 떠났거나 떠나려고 하는 청소년의 경우, 협의체 사무국인 지역 청소년상담실을 거치면 자신의 계획이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종합대책' (2002)은 이전에 추진되어 왔던 여러 방안들이 주로 학업중단 후의 취업이나 복교와 같은 결과에 치중하는 단순한 대응 방식이었고, 그 개입 주체도 개별 기관이어서 다양한 원인과 현상에 걸쳐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을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협의체'의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협의회 사무국으로서의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 상담실의 구체적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창호 등, 2002).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완비되는데는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법적으로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상적일 수 있다 하더라도 현실과는 맞지 않거나 실제 사업추진에는 그 영향력이 미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모든 법적, 제도적 사항이 먼저 마련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규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 상황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종합대책안을 실현해 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려고 한다. 이러한 전략들은 실제 사업을 추진해 나가

면서 수정되고 보완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 문화관광부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학업중단 청소년 사회적응을 위한 지역단위 관련기관간 연계협력체제 구축 방안' (이창호 등, 2002)의 후속연구로, 2004년도 시범사업을 위한 지침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이에는 지역단위 지원협의체 구성 방안 및 학업을 중단하려는 청소년의 발견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전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개입체제 모형이 포함될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2002)에서 제시한 '학업중단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안)'의 일환으로 제안된 학업중단 청소년 사회적응을 위한 지역단위 관련기관간 협력 연계체제 구축방안을 현장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체화하여 제시하려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종합대책에서 제안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효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규명한다. 구체적으로 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갖추어져야 할 법적·제도적 사항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며, 이를 토대로 원활한 지원협의체의 구성을 위해 현 상황에서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둘째, 지원협의체의 사무국으로서 시·도 상담실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세분화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운영지침을 개발한다. 종합대책안에는 시도 상담실이 수행해야 할 역할들을 1단계와 2단계에 걸친 업무들로 나누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들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들을 구체화한다. 이에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의뢰에서부터 추후 지속적 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친 효과적 개입 방안의 탐색이 포함된다.

셋째, 지역단위 관련 기관간 연계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본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범적용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이 시범적용 계획은 2004년도 사업에 관한 것이며, 2005년도 이후의 사업은 2004년도 사업의 평가를 토대로 계획될 것이다.

넷째, 학교교사, 학부모 및 학교를 떠나려 하거나 이미 중단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를 개발한다. 이 지침서에는 학교를 떠나려고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철저한 고민과 신중한 결정을 강조하고 이미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의 계획과 희망대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들과 기타 유용한 정보들이 수록될 것이다.

Ⅱ. 선행연구 개관

본 장에서는 이창호 등 (2002)이 수행한 연구를 토대로 지역단위 연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사항들을 검토한다. 이와 더불어, 유성경과 이소래 (1998) 그리고 조영승, 구본용, 신현숙, 및 유순덕 (2001)이 수행하였던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구체적 개입전략에 관한 연구들도 개관하여, 구체적인 개입 방안 마련을 위한 1차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 지역단위 연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창호 등 (2002)은 교육인적원부가 마련한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안' (2002) 중 지역단위 연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두 가지 과제를 관계 공무원 및 지방 상담실 실무자들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이 모호하고 유사업무에 대한 협의회가 너무 많아 업무 추진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실제 각 지방에 지방청소년위원회, 청소년대책협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 학교폭력 근절지원협의체 및 학교폭력지원실무협의회 등이 있는 바 기능이 중복될 수 있고, 행정상의 비능률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학업중단청소년 지원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타 위원회와의 역할 및 업무 중복을 가능한 피하도록 하여 업무의 능률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각 관계 기관간 연계 협력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도 청소년 상담실이 지원협의체의 사무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현재 많은 수의 시도 청소년 상담실이 민간에 위탁운영 되고 있어서, 이들의 법적 지위가 확실하지 않고 조례나 기타 법률적 구속력을 갖기 힘들다. 따라서 여러 부처의 정보를

수합, 분석하고 협의 및 통제하여야 하는 행정기능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협의체'의 사무국 기능을 수행할 지방 상담실의 신분 보장과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혹은 제도적 구속력 확보가 필요하다.

이창호 등 (2002)은 이상과 같은 두 가지 과제를 성취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한 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협의체 구성 및 기능과 관련한 규정을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조례내용으로 포함시키는 것 또는 지방청소년위원회 산하에 별도로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조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단체의 위탁을 받고 있는 청소년 상담실은 신분상으로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시도의 국장이 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이 될 때 타 부처의 협조를 얻는데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이창호 등 (2002)은 학업중단 청소년 종합대책안을 제안한 인적자원개발회의에 포함된 10개부처가 산하 기관 및 시설에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기관 연계체제 구축에 관한 부처간 협의 내용, 지원협의체의 역할과 기능, 각 부처의 정확한 역할 및 지원협의체에 대한 협조사항 등을 명시하여 하달하고 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1은 이창호 등 (2002)이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한 학업중단청소년 종합대책 속에 포함된 체계도를 일부 수정·보완하여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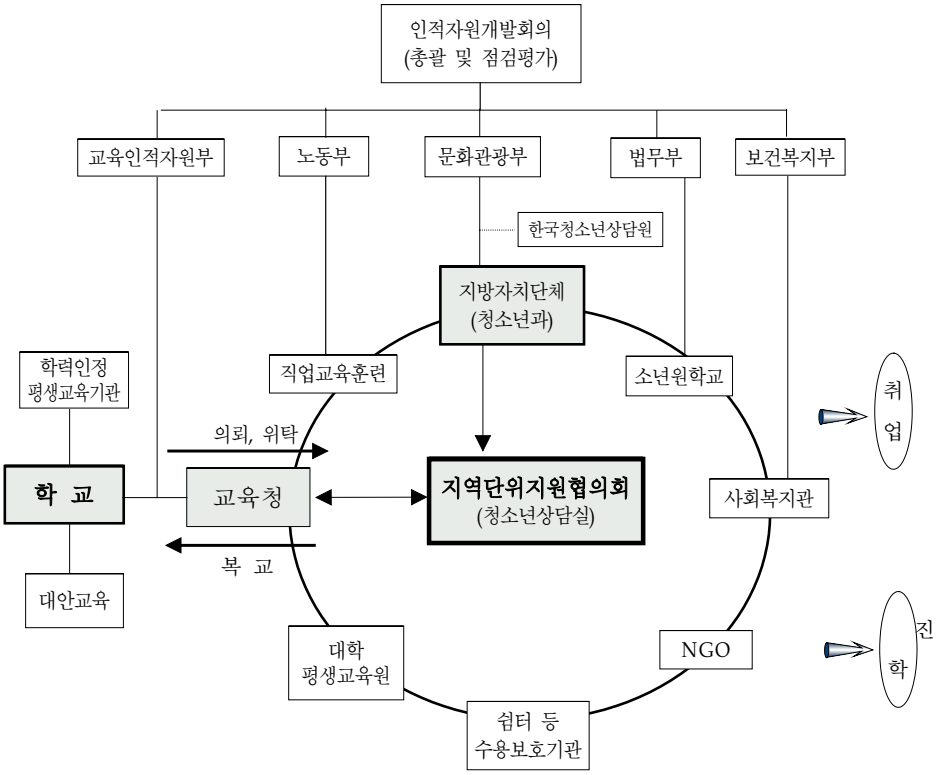


그림 1. 수정된 학업중단청소년 지원협의체 구성

2.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개입전략에 대한 연구

유성경과 이소래 (1998)는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개입전략으로 '중도탈락예방팀'의 활동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개입단계별로 잠재적 중도탈락학생을 발견하는데 단계, 평가단계, 개입단계, 개입이후의 관리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의 활동주체와 개입전략 및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학업중단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조기발견 단계에서는 상담교사나 담임교사를 통해 학생에 대한 정보수집과 학업중단과 관련된 전조행동을 발견하는 것이 그 주된 임무이다. 두번째는 평가

단계로 학업중단의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어 의뢰된 잠재적 학업중단학생에 대해서 학업중단 예방팀을 구성하여 정확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그 주된 임무이다. 세 번째는 잠재적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개입단계로서 평가단계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입목표 및 개입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이다. 네번째는 관리단계로 학업중단 예방팀에 의해 의뢰되었던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에 재적응을 하게 된 경우나 학교를 떠난 경우 모두에 대해 개입하였던 내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그림 2는 유성경과 이소래 (1998)가 제시한 각 단계별 개입체제 모형도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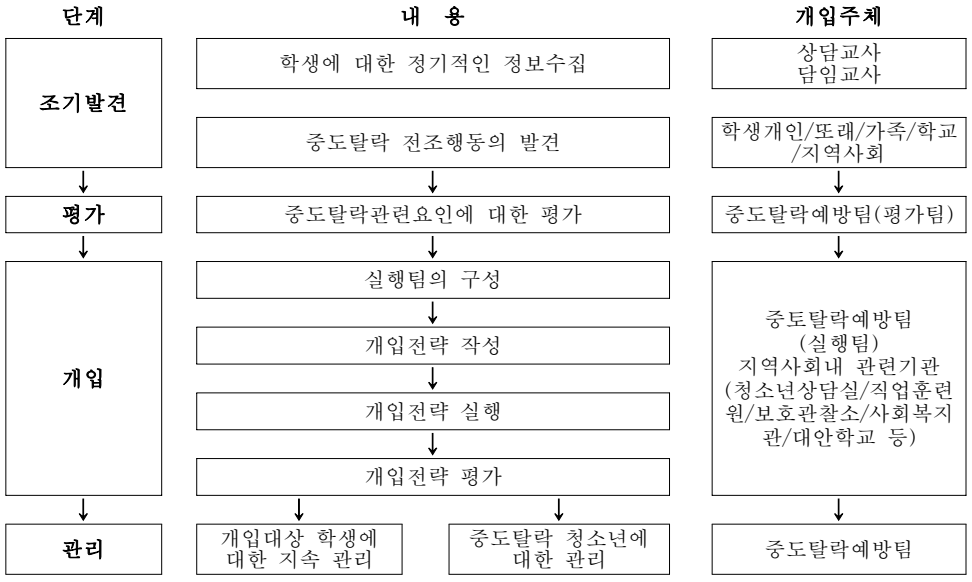


그림 2. 학업중단 청소년 각 단계별 개입체제 모형도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유성경과 이소래 (1998)가 개발한 개입 모형에서 주목할 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중단 예방팀의 역할과 구성에 관련된 사항이다. 학업중단 예방팀은 평가팀과 실행팀으로 구성되어 진다. 평가팀의 역할은 의

뢰된 학생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담당하며,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개입방향을 설정하여 실행팀을 구성하는데 있다. 실행팀은 개입전략의 작성 및 실행, 개입에 대한 평가, 개입전략의 수정 및 재개입 등을 담당한다. 이러한 모형에서 학업중단 예방팀은 개입의 주체이자 의사결정자이다. 즉 예방팀이 평가 및 개입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개입을 위한 의사결정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관여를 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유성경과 이소래 (1998)의 이 모형에서는 의뢰된 학생에 대한 개입의 권한이 전적으로 학업중단 예방팀에 주어진다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학업중단 예방팀의 인적 구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담임교사, 학교 상담교사, 전문 상담원, 지역사회 전문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되는데, 교감이 평가팀 및 실행팀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교감의 주된 역할은 의뢰된 학생의 문제에 따른 평가팀 및 실행팀을 총괄하고 평가 및 실행을 위한 회의를 소집하며, 평가 및 실행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방팀의 구성 및 역할의 주도성이 개별 학교의 교감에게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 모형의 한 특징이라 할 것이다.

둘째,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 상담실의 역할과 관련된 사항이다. 전통적으로 상담 분야에서의 활동은 상담실에서 내담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다소 수동적인 역할에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유성경과 이소래 (1998)의 이 모형은 상담실이 보다 능동적으로 활동 할 것을 제안한다. 즉, 상담실이 학업중단 예방 팀의 평가활동에서부터 함께 참여하여 개입의 방향을 설정하며, 심리평가 및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전통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및 관련 기관에 학생을 대변해 주는 일 (advocate), 지역 관련 기관과 연계, 외부체계에서 필요한 자원 동원, 전문직 자원봉사자 및 평가팀 구성원에 대한 훈련 및 연수 (outreach), 의뢰된 학생에 대한 개입 후 지속적 관리 (case management) 등의 비전통적 활동도 수행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한편, 조영승 등 (2001)은 경기도라는 한 특정 지역의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방안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를 이미 이탈한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의 보호나 지도가 전달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업중단 청

소년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조영승 등 (2001)은 경기도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자원 및 특성을 분석하여, 이를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2 단계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는데, 1 단계는 학업을 중단하려고 하거나 혹은 이미 중단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기탐색과 자기관리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초점을 둔다. 이러한 프로그램으로는 중퇴생 예방 프로그램, 중퇴생 학교복귀 프로그램, 중퇴생 사회적응을 위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중퇴생 보호 망 프로그램 등이 있다. 2 단계 프로그램은 청소년 상담실을 중심으로 경찰, 교사, 멘토, 전문직 자원봉사자, 학교 또래 상담자 등의 지역사회 자원들이 연계망을 형성하여, 1 단계 프로그램을 마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요구와 적응 유형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지원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할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할 '중퇴청소년 종합대책 기구'의 운영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기구의 구성으로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학생 평가, 대안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a) 교육담당 파트와 취업기관 협조, 대안프로그램 연계, 정보지원 등을 담당하는 (b) 대외협력 파트를 제안하였다.

유성경과 이소래 (1998)의 연구가 학교를 떠나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체계적 조기 개입을 위한 사례 중심적 개입 모형을 개발·소개한 반면, 조영승 등 (2001)의 연구는 특정 지역에서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의 개발과정 및 절차를 예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서 연구진은 선행연구 개관을 통해 1차로 지역단위 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개입전략(案)을 마련하였다. 이 안을 토대로, 시·도 상담실 및 시·군·구 상담실, 직업훈련기관, 청소년수련관, 쉼터, 대안학교, 사회복지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와 교육인적자원부 및 문화관광부의 담당관이 참석한 콜로키움을 개최하여 이 안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각 기관별 추진사항들이 발표되고, 앞으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이 콜로키움에서 발표되었던 기관별 추진사항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들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연구진은 콜로키움에서 검토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1차 案을 수정한 2차 案을 마련하고, 실무를 담당할 시도 상담실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수행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는 연구진 및 제주도, 광주광역시, 경기도의 청소년종합상담실 실장 또는 부장이 참석하였다.

연구진은 2차 案을 수정하여 3차 案을 마련한 후, 최종 검토를 위해 16개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 실부장 회의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 6개 지역 상담실 실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3차 案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2004년도 사업추진에 관한 기본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연구진은 이러한 세차례에 걸친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안을 확정하고, 이를 12월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있었던 학업중단청소년 지원대책 실행방안 관계관 회의에 발표하였다. 이 회의에는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장, 교인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 과장, 법무부 및 노동부 담당 사무관이 참석하여 각 부처별 실행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각 지방의 자치단체 관계관, 교육청 관계 장학관 및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 실부장이 지역별 실행방안 및 문제점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발표되었던 사항 및 논의되었던 구체적 사항에 대한 개요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Ⅳ. 지역단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협의체 구성 방안(안)

이 장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잠정적인 지역단위 관련기관간 연계협력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방안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안' (2002)을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시켜, 2004년 시범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마련되었다.

1. (가칭)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선행연구 개관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현재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약한 시점에서 지역단위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협의체'를 구성했을 때, 이 협의회가 각 기관간 원활한 업무협조 하에 실효성 있게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보장이 없다. 따라서, 지역 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그 시작부터 각 개별 참여기관의 지원 협의회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서로 상충하는 관점과 이해의 대립을 조정하며, 나아가 각 기관 상호간 업무협조를 강제할 수 있는 중앙 단위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교육인적자원부의 2002년도 종합대책안에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것으로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그 정점에 두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들에 관한 심의 및 평가에 관한 것이지 실무작업 그 자체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종합대책안에는 그러한 실무작업 자체를 문화관광부가 그 산하 단체인 한국청소년상담원과 협의하여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 부처가 각기 다른 소관 부처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기관들간의 업무를 조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창호 등 (2002)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각 지방단체내의 협의회 참여기관간 업무협조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부처가 참여하여 협의·결정된 사안을 동시에 하부 기관에 시달하여 원활한 업무협조를 촉구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또한, 지원협의체 구성을 통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사업운영이 내실 있게 되기 위해서는 각종 전문적 연구·개발 및 지원업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종합대책'에는 각 지역 지원협의체의 사무국 기능을 지방 청소년 상담실에서 맡도록 되어있다. 이를 위해 각 지역 협의회당 약 2억원을 지원하여 3인의 전담 관리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이들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토록 하며, 운영자 공동 웍샵 등을 주관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동 사업이 준비단계에 있고, 따라서 각 상담실 담당자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바 업무의 혼선과 비효율성이 예상된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세세한 업무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업무에 관련한 문의사항 및 전문적 자문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이 완전히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정착하기 전에라도 지원 협의회 구성과 함께 당장 실행되어야 할 중핵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프로그램도 제작·보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두 가지 필요성에 입각해서 각 참여 기관간 업무의 협조를 촉구하고 지원협의체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업무를 담당할 (가칭)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함)를 설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지원센터'는 각 지역의 지원협의체 사무국 기능이 지방 청소년 상담실에 있게 되므로 기존의 의사소통 망을 활용할 수 있는 한국청소년상담원에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원센터'가 맡게 될 구체적인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역내 관련기관간 연계 및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
- 사업추진에 대한 세부 안내서 마련
- 지역별 사업설명회 개최 및 지원
- 각 지역 지원협의체 실무 담당자 (coordinator) 연수
- 해당 지역 (광역단위)의 사업에 대한 평가모형 개발 및 평가
- 전문적 연구 수행 및 중핵 프로그램 개발
- 향후 발전방안 마련

• 기타 동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조직은 그림 3과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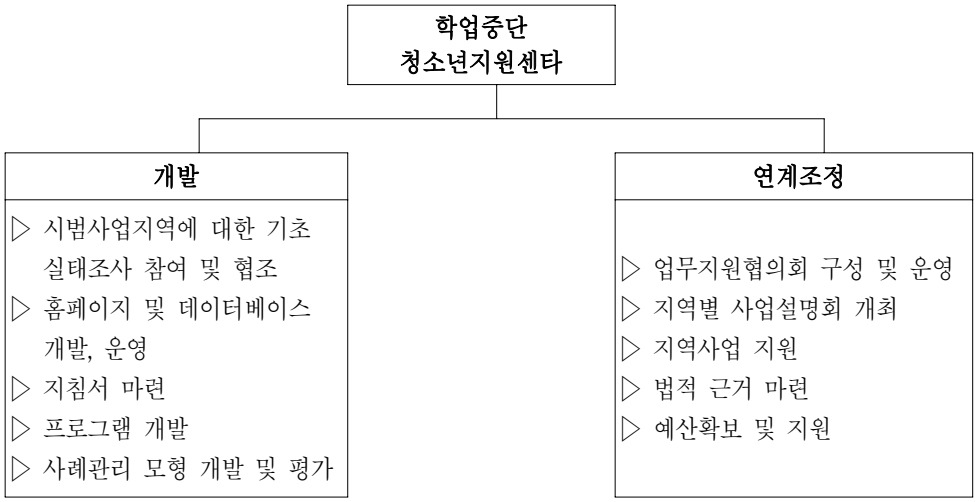


그림 3. 학업중단청소년 지원협의체 지원센터 조직

마지막으로, '지원센터'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원센터의 운영은 한국청소년상담원이 담당하며, 상담원내 전문 상담 및 연구 인력이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지원센터는 2004년도에 설립하며, 1차년도에는 (현) 상담연구연수실내 연구개발부가 주 업무를 담당하고 사안에 따라 (현) 기획조정실내 기획부 및 대외협력부가 지원하는 형태의 운영방안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한국상담원 조직구성을 개편하여 하나의 부서 혹은 기구로 독립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발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한국청소년상담원의 담당 실무부서의 장과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법무부, 노동부, 보건복지부의 담당 사무관으로 구성된 (가칭) '업무지원 협의회'를 매 분기 개최한다. 시범기간 동안 이 협의회에 시범지역 청소년종합상담실 실장 또

는 부장이 참여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 (가칭) '업무지원 협의회'는 그 분기에 이루어진 사업을 점검·평가하며 다음 분기 사업에 대하여 계획·심의한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범지역 청소년상담실 실장 또는 부장은 매 분기 사업의 실적 및 다음 분기 사업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범지역 청소년상담실 실부장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드러난 업무상의 난점을 보고하고 이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기대된다.
- (가칭) '업무지원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각 기관별로 산하 단체에 시달하여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가칭) '업무지원 협의회'의 구성원은 '지원센터' 및 지방 상담실의 자문에 응한다.

2. 지역단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협의체의 구성

지역단위 지원협의체의 구성은 현재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그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협의체 구성 주체의 역할과 구성과정에서의 참여기관간 충분한 협의와 합의 그리고 이에 기반한 의지가 사업 성공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기관간 네트웤 형성을 담당할 인력의 경험, 능력, 태도 그리고 사업에 대한 비젼 등의 자질이 중요하며, 이러한 전담 인력이 전략적으로 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원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떠한 단계를 거쳐 협의체를 구성해 갈 것인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

(1) 지원협의체 구성 담당 인력 선발

현재의 종합대책안에는 시도 청소년 상담실이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지원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주도권을 쥐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시도 청소년 상담실이 지원협의체 구성단계에서부터 주도권을 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며 시도 상담실에 배치된 전담 인력은 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을 의미한다. 여기서, 시도 상담실에 부여된 지원협의체의 사무국 역할은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 투입이라기 보다는 각 지역내의 사업을 계획하고 관리하고 자금을 조달하거나 조정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전담 인력으로 임상적 마인드뿐만 아니라 행정적 그리고 조직적 경험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발 배치할 필요가 있다.[1)]

(2) 지원협의체 구성 단계

현 단계에서의 지원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은 각 참여 기관의 자발성에 기초한 사무국의 기획 및 조정능력에 의존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지원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그 구성단계에서부터 참여기관의 자발성을 극대화하고 사무국의 기획 및 조정능력을 확고히 인식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시도 상담실내 지원협의체 사무국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갖고 단계적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대략적인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제 1단계 : 사무국 전담 인력을 선발, 훈련 후 배치한다. 배치 후에는 학업중단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기관이나 단체들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한다. 이러한 정보수집 과정에서 담당자는 각 기관 및 단체의 인사들과 인간적 네트웤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2단계 : 1단계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협의체 사무국 실무자들과 주요 참여 기관의 담당자들로 지원협의체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때, 교육청의 중등교육과장, 시청 또는 도청의 청소년 담당과장, 청소년 상담실 실부장, 그리고 지역내 대학의 관련학과 교수 등을 반드시

---

1) 참고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에서 프로젝트 조정자를 선발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5년 이상의 교육, 문화, 상담, 복지 등 활동경험이 있는 자 (세부활동경력서제출)
-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의 네트워크사업 활동경험이 있는 자 (세부활동경력서제출)
- 30세 이상으로 다른 단체 등 중복업무를 하지 않고 동 사업에 충실할 수 있는 자
- 학업중단청소년 지원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자
- 관련 전공자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및 지역사회 단체나 기관의 추천이 있는 자

포함하도록 하며,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필요에 따라 전문성 있는 지역 인사들을 추가하여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준비위원회는 참여 단체의 선별, 구체적인 추진 일정, 협의회 운영규정 마련 등 지원협의체가 발족할 때까지의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이 단계에서 계획된 사항을 취합하여 한국청소년상담원내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센터에 보고하면, 지원센터에서는 (가칭) 업무지원협의회를 통하여 각 부처의 산하 단체에 협조사항을 전달하여 다음 단계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제 3단계 :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기 이전에 참여가 확정된 단체의 인사들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 워크숍에서는 지원협의체의 정체성, 방향성 그리고 각 참여 단체의 역할 등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한다. 제 2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단계에서 합의된 사항을 한국청소년상담원내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센터에 보고하면, 지원센터에서는 (가칭) 업무지원협의회를 통하여 각 부처의 산하 단체에 협조사항을 전달하여 이후 단계의 일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제 4단계 : 제 3단계와 같은 작업을 통해 합의가 도출되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 교육감, 언론인, 교수 및 기타 주요 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창립총회의 주요 내용은 회칙 검토 및 채택, 임원선출, 경과보고, 사업계획 설명 등의 내용을 담는다. 이 단계에서의 한가지 전략적으로 하여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 교육감 및 기타 주요 단체의 대표들간에 학업중단청소년과 관련한 지원협의체의 제반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일이다.

제 5단계 : 계획된 사업들을 실행하면서, 한편으로 한국청소년상담원내 (가칭) 학업중단청소년 지원협의회 지원센터와 유기적으로 협의하며, 다른 한편으로 참여 기관의 실무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 활용한다.

(3) 지원협의체의 조직

지원협의체의 조직은 기본적으로 회장, 부회장, 및 사무국장으로 임원진을 구성하며, 각 참여 기관 및 단체의 인사들로 구성된 총괄위원회를 둔다. 회장은 자치단체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 또는 경우에 따라 청소년 관련 국장 1인으로 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당연직으로 한다. 부회장은 2인으로 하고 당연직 부회장으로 1인은 시도 청소년 담당 과장으로 하며 또 다른 1인은 시도 교육청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사무국장 역시 당연직으로 하며 시도 청소년 종합상담실 부장 혹은 실장이 담당하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실질적 업무를 담당한다. 총괄위원회의 위원은 각 기관 및 단체에서 실무를 담당하되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총괄위원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하며 모든 현안이나 사업계획, 재정확보 문제 등을 다룬다. 지원협의체 사무국장은 총괄위원회의 총무를 맡으면서 위원회와 사무국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한다. 또한 총괄위원회는 산하에 그 위원들로 구성된 분과 위원회를 두고 사업추진 과정에 필요한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조정토록 한다. 각 분과위원회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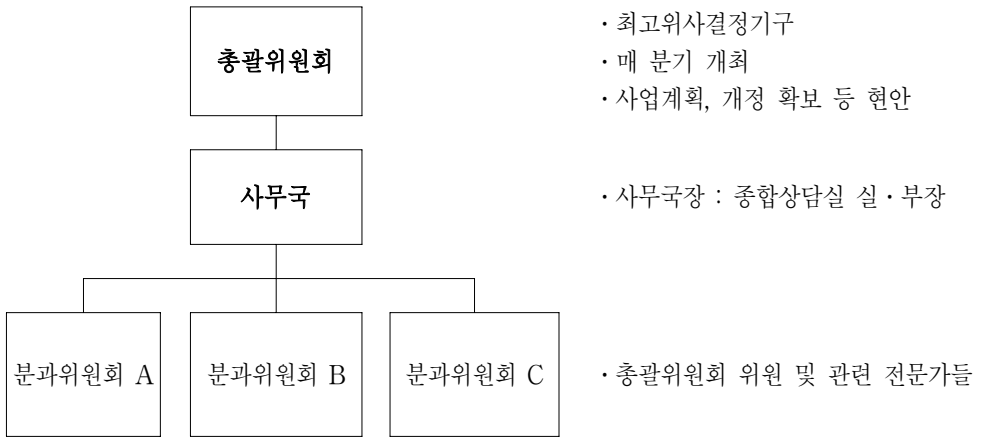


그림 4. 지원협의체 조직

(4) 참여단체의 역할과 기능 (예시)

현재 종합대책안은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협의체'를 지역별로 여건에 따라 시·도나 시·군·구 등에 구성하며 협의회의 사무국에 해당하는 기능은 '청소년종합상담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협의체에 참여해야 하는 기관은 지역의 학교, 교육청, 사회복지관, 수련관, 직업훈련기관, 각종 쉼터 등 공공 사업기관 및 대안프로그램 운영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다음에 제시된 각 단체 및 기관은 지원협의체 구성시 참여가 고려되어야 할 곳이나 반드시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여기에 제시된 각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기능도 대체적인 것으로 지원협의체 구성시 반드시 사전 조사 (제 1단계)를 거쳐 더욱 구체화되어야 한다. 부록 1에는 제 1단계에서 수집할 수 있는 청소년 쉼터, 청소년 수련관, 대안학교 등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앞으로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예를 제시하였다. 이 예를 참고하여 지역협의체 사무국에서는 관할지역의 자원에 대하여 세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주의 깊게 평가하여야 한다.

- 시청 및 도청 : 지원협의체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정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협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지방 자치단체가 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방조례를 마련하고, 사무국 역할의 강화를 위한 인건비 지원 및 시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교육청 : 학교현장과 지원협의체의 의사소통이나 행정처리의 지원역할을 한다. 지원협의체의 예방프로그램을 학교에 도입한다거나 중도탈락자들을 위해 복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혹은 중도탈락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관련시설이나 기관들을 특별교육기관으로 위촉하여 청소년들이 수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때 특별교육기관에서 받은 수업을 일선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학교 내에 중도탈락의 전조가 보이는 학생들을 지역협의체에

의뢰하여 후속조치나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 대안학교 : 대안교육시설 및 수업인정 확대, 정규학교와 대안학교간 상호연계 활성화, 학력인정 기반 마련 등 선행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여러 보완을 통해 연계교육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YMCA, YWCA, 흥사단 등 청소년 단체 : 이들은 사회적 영향력이나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도 지속적인 추진력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와 문제들을 공론화 시키는데 유리할 뿐 아니라 법적, 제도적 문제의 개선에 있어 상당한 역할이 기대된다. 아울러 체험활동이나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역량이 있다. 또한 청소년 회원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학교 내 상담관련 조직을 만들기에 유리하고 기존의 조직을 학업중단 예방쪽으로 방향선회가 가능하다.
- 직업훈련기관 :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교육을 담당한다. 나아가서는 취업까지 알선해 주기 위한 보다 정교하고 종합적인 방안을 더욱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종류, 프로그램 운영의 융통성 등),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 평생교육기관 : 특별교육기관 등으로 지정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체험교육, 문화적 감수성 등을 배양한다.
- 종교단체 :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들은 조직적이고 물품이나 인력의 확보통로이다. 따라서 자원봉사인력의 확보, 프로그램 장소제공, 후원 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교육, 청소년상담이나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대상이 풍부하므로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 법원, 검찰, 경찰서, 분류심사원, 소년원 등 : 법적 지원이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분류심사원에 입소해 있을 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수업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학교에서 부적응 청소년을 위탁해 관련시설을 이용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법원 등에서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나 광주 소년부 지원에서 광주상담실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험관찰제도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해 최대한 사회 내에서 처분을 받도록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서울 송파 경찰서와 수원 남경찰서에서 상담 심리학자 및 범죄 심리학자, 그리고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초범이거나 범죄의 정도가 미미한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심리학적 평가를 거쳐 상담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시범운영 중인데, 이를 보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할 수 있다.

- 청소년 쉼터 : 거리에 노출, 방치되어 있는 청소년을 부적절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위해 설립된 쉼터는 숙식, 의료 및 위생 서비스, 집단 및 개인 상담 등의 서비스와 현장체험, 캠프, 풍물, 탈춤, 문화창작, 여행, 연극 및 미디어 활동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쉼터 이용 청소년들의 특성상 좀 더 중장기적인 수용이 가능한 시설 설립 및 발굴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거리상담 등의 outreach 활동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발굴, 지원협의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청소년 수련관 : 건전한 청소년들의 육성을 목표로 설립된 청소년 수련관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센터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련관에는 이미 시설과 인력 그리고 프로그램이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그 자원들을 유기적으로 엮어 활용한다면 저비용으로 긴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수련관은 이렇게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조직 제공할 수 있다.
-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관은 그 지역의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가정의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

지관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직접적 개입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 의료지원, 법률적 지원 등을 담당하기 위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은 outreach활동과 advocate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학업중단 청소년의 배치 및 사후관리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 시·군·구 청소년 상담실 : 시·군·구 청소년 상담실은 각 종 경로를 통해 의뢰되어 오는 청소년들을 평가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안하는데 그 핵심 역할이 있다. 이와 함께, 이미 배치된 청소년들이 목표한 바대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를 분기별로 평가하고, 프로그램 이수후 적응과정도 추수평가하여 필요하다면 대안을 마련한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 또는 학업중단의 전조를 보이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인 및 집단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현재 시·군·구 청소년 상담실에서 수행중인 프로그램중 전문직자원봉사체제 및 또래상담자양성 등을 활용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을 도와줄 수도 있다.

표 1. 지역 참여단체의 역할 예시

소속기관·단체	역 할	비고
교육청	· 정규학교와 대안 교육기관과의 상호연계 추진 · 학업중단 청소년대상자 파악과 체계적 관리 · 학업 중단 청소년 예방을 위한 교육 · 상담, 보호 프로그램에 위탁 및 의뢰	당연직 부회장
청소년종합상담실	· 지역 내 시설, 인력 프로그램 정보 종합관리 · 학업 중단 전후 전문적 상담기회 부여 · 복교생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또래 상담자, 멘티, 상담자원봉자사 양성 ·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의 부모교육	당연직 사무국장
병원	· 치료를 요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전문적 치료 ·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 · 학부모, 교사, 상담자원봉사자에게 자문 및 교육 · 요 치료 대상자 지속적으로 관리	

소속기관·단체	역 할	비고
청소년쉼터	· 가출청소년에 대한 교육, 상담, 취업 기회제공 · 가출청소년을 위한 개인 상담 및 프로그램 투입 · 대안 학교 및 전문상담기관에 협의, 위탁	
시·도청	· 장학금 재원 마련 · 진학 및 취업준비 시 장학금 지급 · 학업 중단 청소년 개인별, 특성별 자료집 발간 · 취업기회 제공	국장 (당연직회장) 과장 (당연직 부회장)
노동청 (고용안정센터)	· 직업과 일에 대한 교육 · 취업 알선 및 지속적 지도, 관리 · 직업흥미 및 적성검사 실시 후 적재적소에 배치 · 학업 중단 청소년의 취업 현장 고충처리(임금체불 등)	
직업학교 및 훈련원	·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 준비 교육 · 취업을 위한 학원에 위탁교육 ·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선별적으로 장학혜택부여	
경찰청	· 가출 청소년들을 관련기관에 배치, 인계 · 유흥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찾아내어 관련 기관에 배치, 인계 · 유흥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소년원	· 진학 및 취업 준비 교육 · 개인 상담, 치료 및 집단 프로그램을 관련기관에 의뢰 · 상담자원봉사자의 적극적 활용	
보호관찰소	· 보호 관찰 대상자의 개인, 특성별 자료 관리 · 개인 상담, 치료 및 집단프로그램을 관련 기관에 의뢰 · 진학, 취업희망 청소년에게 관련기관에 의뢰 · 견학, 봉사활동 등 다양한 경험제공	

3.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협의체의 사무국으로서의 시·도 종합상담실의 역할

'종합대책'은 지역 협의체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종합정보제공 및 지속적 관리를 하여야 함을 그 핵심적 역할로 규정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다음의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종합정보 제공 및 지속적 관리

제 1단계 : 인적 관리 및 기관별 운영 프로그램 정보 종합관리

- 지역별 시설, 인력, 프로그램 정보 종합관리 (종합홈페이지 운영)
- 학교별 위탁학생 상담 및 배치, 이동 및 학습과정 관리
-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인력자원에 관한 정보 종합관리
- 정기적으로 상담안내 정보 등 소식지 가정 발송

제 2단계 : 기관별 교육프로그램 거점관리 운영 (수업인정 연계)

- 학력이수를 위한 프로그램 편성 지원 및 관리

○ 프로그램 개발 확산 및 운영자 공동 웍샵 주관 등

○ 지역단위에서 청소년 지원과 관련한 one-stop 서비스 창구 기능

이에 따라, 각 지역 협의회의 사무국으로서 지방 청소년종합상담실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역별 시설, 인력, 프로그램 정보 종합관리 (종합홈페이지 운영)

각 지역에서 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해 시설 및 인력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모든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기초로 기관간·단체간 연계망을 형성하여 상호협조하고 또 이들 각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는 1차적 목적이다. 이를 위해 종합상담실내의 사무국은 해당지역의 자원에 대

한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필요로 하는 목적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가) 지역 청소년 지원 기관 실태조사

이 실태조사의 목적은 지원협의체 구성시 참여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활동방향을 모색하고, 나아가 기관간 혹은 단체간 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지원확대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기관 및 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종합상담실내 사무국은 면접조사원을 확보하고,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2는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표 2. 지역자원 기초 조사내용

조사영역	조사내용
기관현황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설립연도 ▷상근자수 ▷기관특성 ▷기관의 주 사업분야 ▷운영주체 ▷정기간행물 유무 ▷소식지 발행유무 ▷설립목적 ▷연혁 ▷조직도 ▷직원체계 ▷자격증소지자 유무 ▷예산 ▷주요사업 ▷보유시설현황 ▷학교와의 연계사업
지원협의체 시범사업 인지 및 참여정도	▷인지도 ▷참여유무 ▷참여유무의 이유 ▷운영사업 ▷문제점
시범사업 참여가능성	▷참여가능성 자원 확인 ▷어려움
제언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부분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면접조사원이 방문하여야 할 기관의 종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여성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쉼터,각종 문화시설, 체육시설, 병원 및 보건소, 교육청, 시청 및 도청 청소년 담당과, 청소년 보호시설, 청소년 상담 기관, 직업전문학교, 대안학교, 시민사회단체, 소년원 등

부록 3은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 양식을 예시한 것이다. 각 지역협의체 사무국은 이를 토대로 각 지역의 사정과 기관의 성격에 맞는 설문지를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단계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궁극적으로 참여 기관 및 단체가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초기에는 업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지원협의체 사무국에서 정기적으로 참여 기관 및 단체의 변동 사항을 점검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대부분의 정보는 학부모, 교사, 전문가, 청소년들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홈페이지에 연결시켜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접근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작업을 각 지원협의체 개별적으로 수행하면 이에 따른 경비 및 노력의 낭비가 예상되고, 또한 각 지역마다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질에 차이가 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청소년상담원내 '지원센터'가 실태조사 결과를 일괄 수합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일단 이러한 과정을 거쳐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되면 각 지역협의체가 추후 변동사항에 대해 수정을 가할 수 있고 또한 신규 단체 또는 기관의 정보를 추가로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모든 변동사항이 반드시 지원협의체 사무국에 통보되어,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 종합 홈페이지 작성 및 운영

종합 홈페이지에는 사업의 개요, 참여기관 소개, 참여기관의 폼페이지와 연결, 학업중단청소년 등록페이지, 가능한 서비스 소개 및 이용안내, 청소년, 부모, 교사, 자원봉사자, 상담원 등을 위한 정보 및 지침사항, 기관 및 단체의 신규참여를 위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특히 이 홈페이지에는 참여 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 종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미 제작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종합 홈페이지가 청소년, 부모 및 교사 등을 위한 서비스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참여 기관간 의사소통 매개 기능도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의 의뢰부터 배치 및 사후 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에 대해 참여기관 및 단체의 관계 담당자들이 의견 및 결정사항을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2] 또한 기관간 서비스의 중복을 막고 상호간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의사소통 체계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종합 홈페이지내에 참여기관 및 단체의 담당자들에게만 접근이 허용되는 섹션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학교별 위탁학생 상담 및 배치, 이동 및 학습과정 관리

(가) 의뢰

학교를 떠나려 하거나 이미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지원협의체에 의뢰되는 과정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아직 학교를 떠나기 전이지만 공공연히 학교를 떠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청소년으로써 학교에서 1차적인 개입을 한 후 의뢰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아직 공공연히 학교를 떠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지는 않지만 장기결석, 가출, 비행 등으로 학교를 떠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청소년들로써, 예방적 그리고 치료적 차원에서 학교로부터 의뢰되는 경우이다. 셋째는

2) 이러한 전자화된 공유체계는 개인의 사적인 정보가 노출될 위험성을 동시에 앉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대책이 먼저 마련이 되고 난 후에 사례관리를 위한 정보공유 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미 학교를 떠난 청소년으로써 지원협의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받고자 스스로 찾아오는 경우이다. 넷째는 시·군·구 상담실, 사회복지기관, 경찰서 등에서 의뢰되어 오는 경우로 이미 학교를 떠난 경우일 수도 있고 아직 공식적으로 학교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일단 의뢰가 되면 지원협의체 사무국 담당자는 부록 4에 제시된 공식적인 '의뢰접수증'을 작성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의뢰접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로 적합한 상담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 상담실) 또는 상담원을 선정하여 의뢰된 청소년에 대한 정보수집 및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교육청으로부터 복교 프로그램 이수를 위해 의뢰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집단으로 의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별적인 진단적 평가를 실시하기 어렵다.

(나) 정보수집

의뢰를 받은 담당 상담원은 아래에 제시한 각 영역별 세부정보를 의뢰된 청소년, 학교, 부모, 경찰 등 가능한 한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교사, 부모, 기타 관련자 등으로 정보수집 회의를 소집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학교를 떠나기 전 단계 (전조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 수집하여야 할 정보는 학교에서의 행동 및 태도 관련 영역, 가정관련 영역, 학교 밖에서의 행동 관련 영역, 개인의 심리 및 가치관련 영역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유성경 & 이소래,1998). 부록 5는 각 영역별 정보조사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평가자는 부록 5에 제시된 영역에 걸쳐 기본 자료를 수집하되 현재 의뢰된 청소년이 처한 상황 및 욕구에 맞게 취사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미 학교를 떠난 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도 학교를 떠나게 된 과정 및 떠난 후의 상황을 마찬가지의 영역들로 나누어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정보수집시 한 가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청소년의 법적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로부터 정보수집에 관한 문서화된 동의를 얻는 것이다. 동의서에는 정보수집 활동의 목적 및 성격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활동으로 인해 대상 청소년에

게 어떠한 신체적, 정신적 위해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히 진술되어야 한다. 부록 6은 청소년의 법적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서양식을 예시한 것이다.

(다) 평가회의

기초 자료가 수집되면, 평가자는 이를 조직화하여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의뢰된 학생의 인적사항, 의뢰이유, 학교생활 (성적, 교우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 등), 가정상황, 학교 밖 생활, 심리검사 결과, 제언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정보수집 후 1주일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며, 의뢰된 청소년, 부모, 교감, 교사 (학교의 상담부장 혹은 생활지도 부장) 등과의 모임을 소집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 모임을 통해 작성된 보고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뢰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야 한다.

① 평가회의 소집

의뢰된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평가자는 교감 (교사), 부모, 의뢰된 청소년, 기타 의뢰된 청소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필요한 인사들로 구성된 평가회의에 출석하여 평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교감은 평가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그러나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은 업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교감이 평가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회의를 소집하기 위하여 교감의 위임을 받은 평가자는 정보수집전 각 당사자들에게 이후의 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회의참석에 대한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자료수집이 완료되고 보고서 작성을 시작함과 동시에 평가자는 평가회의 참석 예정자들에게 회의의 목적과 장소, 시간 등의 정보를 담은 안내장을 발송하고 참석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요구된다. 필요하면 회의 시간과 장소를 협의하여 변경할 수도 있다. 또한 부모에게는 의뢰된 청소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회의에 초청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려야 한다. 평가회의는 상호간 편한 장소와 시간에 정해져야 한다. 가능한 의뢰된 청소년의 부모는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정상 참석이 어려울 경우 평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한 보

고서의 복사본을 차후 부모에게 전달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평가 회의

평가회의는 크게 평가와 프로그램 개발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평가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된 청소년의 약점 및 강점이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하고 청소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욕구 확인도 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각 참여자는 의뢰된 청소년의 욕구가 바람직한 것인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해 평가하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평가자가 중재하여야 한다. 평가가 끝나면 합의되고 조정된 청소년의 욕구를 명세화한다. 또한 의뢰된 청소년이 반드시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참석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들도 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상호 합의하고 조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이 때 가능한 의뢰된 청소년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선정된 욕구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라) 프로그램 계획

정보수집 및 평가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의뢰된 청소년에게 어떤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지에 대해 계획하여야 한다. 평가회의 참여자들간에 조정되고 합의된 청소년의 욕구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 지역의 참여기관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회의시간 동안 데이터베이스를 일일이 검색하기는 어려우므로 평가자가 사전에 예상가능한 욕구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검색하여 기본 계획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이 기본 계획 프로그램 작성시 지역의 지원협의체의 관계 담당자와 미리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후 회의 참석자들에게 기본 계획을 제시하여 협의토록 하며, 이를 통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정을 가하여 최종 프로그램들을 확정한다.

이렇게 의뢰된 청소년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들이 확정되면, 각 프로그램들에 배정

하기 위해 누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협의체 사무국에서 하여야 할 일과 시·군·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여야 하고, 시·군·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누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및 합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핵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은 의뢰된 청소년에 대한 개입이 개시될 때, 이 사례를 관리할 사례관리자가 누구인가를 선정하는 일이다. 선정된 사례관리자는 의뢰된 청소년의 배치 및 배치 이후의 전과정에 대한 관리의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실제적으로 평가를 담당한 상담원이 사례관리의 행정/관리 책임을 맡고, 2차적으로 훈련된 인력, 예컨대 청소년상담실에서 관리하는 전문직 자원봉사자 또는 지역의 교육청에서 양성 및 관리하는 상담자원봉사자 등이 현장에서 임상적 관리 활동을 하는 체제가 가능할 것이다. 이 밖에도 지역 상담실의 실정에 따라 사례관리를 담당할 인력을 다양하게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사례관리의 1차 책임은 지역의 청소년상담실에 있으며, 따라서 지역의 상담실이 사례관리 담당 인력들의 업무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부록 7은 평가회의 및 프로그램 배치기록을 위한 양식이다

프로그램중 지역협의체 사무국을 경유하여야 할 것에 대해서는 따로 기술하여야 한다. 이에는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시행기관,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들은 문서화되어야 하며, 시·군·구 상담실 책임자 (부장 또는 청소년 상담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의 검토를 거쳐 지역협의체의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배치

시·군·구 상담실 또는 평가담당자로부터 의뢰된 청소년에 대한 평가결과 및 프로그램 계획을 보고 받은 지역협의체 사무국은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시·군·구 상담실 또는 평가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요청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변경의 필요가 있다면 그 사유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의 변경사항을 제

안하여 시·군·구 상담실 또는 평가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시·군·구 상담실 또는 평가담당자가 사무국으로 보고한 시점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지역협의체 사무국은 이러한 협의를 거쳐 조정된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참여 기관 및 단체의 담당자를 접촉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사항이 완료되면, 사무국은 이를 문서화하여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군·구 상담실 또는 평가담당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복사본이 시·군·구 상담실 또는 평가담당자에게 전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획된 모든 사항의 집행이 개시되어야 한다. 배치를 위한 첫 업무는 계획단계에서 선정된 사례관리자가 의뢰된 청소년을 처음 접촉함으로써 시작된다.

(바) 추수관리

의뢰된 청소년에 대한 개입이 시작될 때, 사례관리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배치 이후 프로그램에의 적응 및 진전 정도에 대한 정기적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기적 평가는 사례관리자가 고안한 평가서를 활용하여 우편으로 실시할 수도 있고 직접 관리자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방문하여 담당자를 면접함으로써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때 의뢰된 청소년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의 평가도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사례관리자는 추가의 개입방안을 계획하여 의뢰된 청소년과의 합의 하에 시행할 수 있다. 사례관리자는 이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여 시·군·구 상담실 책임자 (부장 또는 청소년상담사 1급 자격증 소지자)를 거쳐 지역협의체 사무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담당자로부터 2차적으로 사례관리를 위임받은 경우, 2차적 사례관리자는 1차적 사례관리자인 평가담당자에게 정기적으로 그 활동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배치 후의 추수관리를 위한 정기적 평가는 사례관리자가 전담하여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으나, 배치 후 한 달 내에 반드시 배치된 기관 및 단체를 방문하여 담당자 및 의뢰된 청소년을 면담하여 적응상의 어려움을 평가하고 개선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이 후의 정기적 평가는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것이 좋으나 사례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신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사례관리자는 개별 프로그램의 종료 시점에서 의뢰된 청소년, 부모, 프로그램 실시 담당자, 기타 필요한 인사들로 구성된 최종 평가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여야 한다. 이 회의에서는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목표했던 바에 대한 성취의 정도를 평가한다. 이 때 목표달성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종결되고, 지속적인 관리단계에 들어가며, 목표달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목표를 재설정하고 추가적인 개입을 실행하도록 한다.

의뢰된 청소년에 대한 모든 계획된 개입이 종결되면, 지속적인 관리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지속적인 관리단계에서는 사례관리자가 의뢰된 청소년과의 합의 하에 정기적인 면담을 최소 1년간 실시하는 것이 요망된다. 이 단계에서는 사례관리자는 의뢰된 청소년이 계획된 삶을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애로점이 발견되면 이에 대해 개입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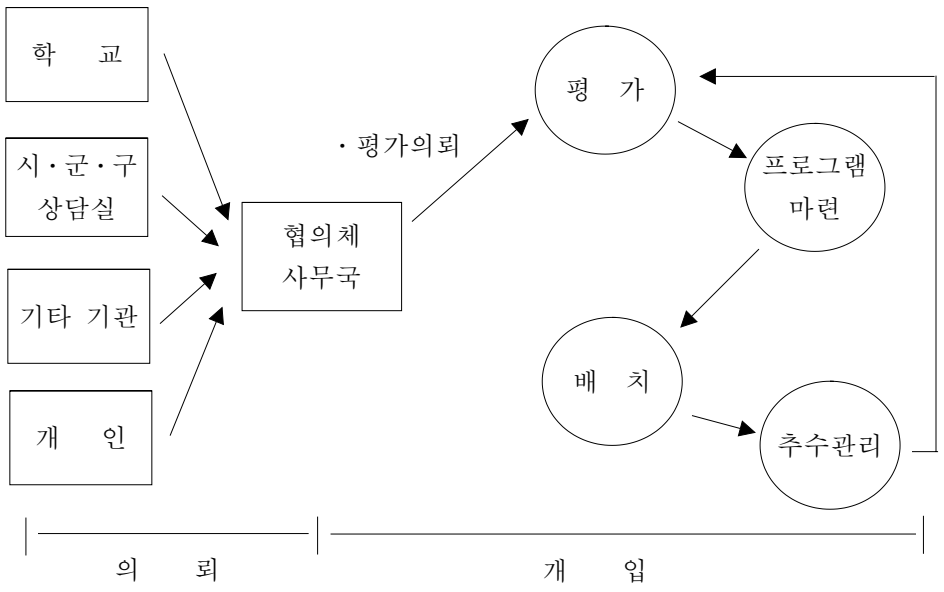


그림 5. 사례관리 과정 흐름도

사례관리자는 의뢰된 청소년에 대한 관리를 하는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이 문서는 각 발생시점에서 시·군·구 상담실의 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지역협의체 사무국에 보고되어야 한다. 그림 5는 학업중단청소년의 의뢰에서부터 지속적 관리단계에 이르는 전과정의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사) 사례관리를 위한 기록 보관체계

의뢰된 사례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원협의체 사무국은 각 개별 사례에 대한 코드를 부여하여야 한다. 코드는 11개 자리 숫자로 이루어 지며, 첫 두자리 숫자는 지역을 나타내며, 다음의 여섯 자리 수는 등록날짜, 그리고 마지막 세자리 수는 등록된 순번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에 2003년 12월 5일에 세번째로 등록된 경우라면 01-031205-003이 된다. 다음은 각 지역을 나타내는 고유 코드이다.

표 3. 지역 고유 코드

지역명	고유코드	지역명	고유코드
서울특별시	01	강원도	09
부산광역시	02	충청북도	10
대구광역시	03	충청남도	11
인천광역시	04	전라북도	12
대전광역시	05	전라남도	13
울산광역시	06	경상북도	14
광주광역시	07	경상남도	15
경기도	08	제주도	16

각 사례에 대한 개별코드가 부여되면 이를 시·군·구 상담실 또는 평가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군·구 상담실 및 평가 담당자는 이 코드에 의거하여 모든 문서 및 관련 자료를 하나의 파일에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문서 및 관련자료에는 이 코드가 명기되어야 한다. 지원협의체 사무국에서도 마찬가지의 요령으로 사례를

보관하여야 한다. 즉, 모든 사례에 관련한 문서 및 자료는 지원협의체 사무국과 시·군·구 상담실에서 모두 보관되어져야 한다. 시·군·구 상담실과 지원협의체 사무국 간 문서 및 자료의 전달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

모든 사례에 대한 문서 및 자료는 대외비로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청소년 및 그 부모만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뢰된 청소년과 관련된 개인 및 기관이 요청할 때는 반드시 해당 청소년 또는 부모 또는 사례관리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3)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인력자원에 관한 정보 종합관리

현재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지역 상담실의 주도로 그 지역의 인력을 활용하여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과 보호를 위한 몇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첫째는 전문직 자원봉사자 체제이다. 이 사업의 취지는 각자의 전문적 직업생활을 영위하면서 획득되는 경험과 지식 그리고 인간망을 활용하여 청소년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을 도와 주자는 것이다. 둘째는 또래상담자 체제이다. 청소년기가 또래의 영향이 큰 만큼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또래의 영향력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또래상담자 양성을 위한 지도자 연수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또래 상담자 활성화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셋째는 대학생 멘토의 활용이다. 이는 청소년기의 고민과 문제를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시기를 잘 극복한 단계에 있는 대학생이 청소년의 여러 삶의 문제들에 대해 개입하여 조언과 격려 및 기본적인 상담활동을 통해 후견인 역할을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장을 원조하자는 것이다. 넷째는 부모교육 교수요원 양성 및 활용체제이다. 부모교육 교수요원은 지역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3) 광역시의 경우, 평가담당자는 지원협의체의 사무국인 청소년종합상담실의 상담원이 담당할 수 있으므로 사례에 관한 문서 및 자료의 교환과 보관에 관련한 문제가 비교적 간단하다. 그러나 도 단위의 경우, 평가 담당자가 시·군·구 상담실의 상담원이 평가 담당자의 역할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지원협의체 사무국과 문서 및 자료 교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전자화된 체제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경우 인권침해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바람직한 자녀양육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양성되었다.

이상과 같은 인력 풀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 사무국은 각 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참여 인력의 인적사항을 점검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현재, 대학생 멘토 및 부모교육 교수요원을 청소년 문제에 활용하는 사업은 미진한 상태에 있는데 이들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학업중단청소년 지원협의체 구성 및 이에 따른 업무의 추진이 이들 사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무국에서는 이 두가지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이들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표 4는 현재 한국청소년상담원 및 각 지역 상담실을 주축으로 양성된 가용한 인력자원 및 그 역할을 나타낸 것이다.

표 4.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 인력자원 및 역할 (경기도, 2001 참조)

구 분	주요활동 영역
교사 및 또래상담자	학교에서의 학생 지도활동 지원 친구되기, 고민해결하기 등 생활지원
대학생 멘토	후견인 학습지도, 고민 함께 하기 진로, 직업활동 가이드 기초 상담활동
전문직 자원봉사자	기초상담활동 아르바이트 장소 등 직업세계 연결하기 후견인
부모교육 교수요원	바람직한 가정환경 조성

이외에도 여러 참여기관 및 단체를 통해 양성된 인력자원이 있을 수 있다. 사무국은 참여기관 및 단체의 협조를 받아 이들의 인적사항, 훈련영역 및 역할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여야 한다. 이후 이들 인력자원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하여 참여기관간 조정과 협의를 거쳐 각 기관의 특색을 살리되 중복되지 않고 통일적으로 인력자원이 양성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 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는 참여기관간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나 개인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양성 및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소개는 종합 홈페이지에 포함되어야 하고,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규 인력의 영입을 위한 섹션도 준비되어야 한다.

지역내 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되면, 이들 인력에 대한 학업중단청소년 지원협의체와 그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설명회를 통해 기대되는 역할을 분명히 각인시키고 참여 동기를 높여야 한다. 이들을 동기화 시키는 한 방법으로 위촉장을 수여하고, 또한 참여실적에 따른 보상체제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이들에 대한 관리의 한 방법으로 이들을 지원협의체 일반회원으로 등록시키고 정기적인 모임을 주선하고, 소식지를 발송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소속감을 높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프로그램 개발 확산 및 운영자 공동 웍샵 주관 등

(가) 지역내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자료 확보 및 특성별 분석

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이들의 현황과 특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이러한 정보에 기반하여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여야 한다. 2001년에 수행된 경기도 지역 중퇴생 선도 보호방안 프로그램 개발연구는 그 전형적인 예를 보여준다. 표 5는 이 조사 연구를 위한 내용 영역이다.

표 5. 지역내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기초조사 내용

조사영역	조 사 내 용
인구통계학적 특징	▷거주지 ▷성별 ▷중퇴시 학교유형 ▷중퇴시 학년
가정생활	▷경제적 수준 ▷동거가족 ▷친부모의 결혼상태 ▷부모의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중퇴가족 여부 ▷부모의 교육에 대한 기대수준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도 ▷부모의 자녀학교생활 이해도 ▷자녀진로에 대한 부모의 관심 ▷부모와의 대화에 대한 만족도

조사영역	조 사 내 용
학교생활	▷중퇴시기/횟수 ▷전학이유 ▷학업성적 ▷처벌경험 ▷교사의 이해정도 ▷교사의 인정정도 ▷교사와의 관계 ▷교사와 학생에 대한 지각 ▷징계여부/종류/이유/횟수 ▷교사로부터 받은 대우의 정당성 ▷결석.지각.결과 횟수 ▷급우관계 ▷학교교육의 중요성 ▷학교교육의 유용성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
친구의 미래관, 대인관계, 중퇴여부	▷공부에 대한 열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관심 ▷부모와의 갈등정도 ▷또래와의 갈등정도 ▷교사와의 갈등정도 ▷미래에 대한 희망 ▷집/학교 밖에서 보내는 시간 ▷비행정도 ▷진로에 대한 진지함 ▷진로에 대한 계획의 구체성 ▷친로계획의 실현가능성 ▷진로계획 실현의 노력정도 ▷또래친구들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평가 ▷중도탈락한 친구수 ▷중도탈락친구에 대한 의견
개인생활	▷자기존중감 ▷자기유용감 ▷자기유능감 ▷가출여부 ▷미래진로에 대한 생각 ▷일탈행동의 정도(흡연, 음주, 약물사용, 폭력, 갈취, 음란물 시청, 성관계경험, 임신 경험)
지역사회 관련변인	▷거주지역에 대한 자부심 ▷거주지역내 청소년관련 시설 및 기관 인지도/이용도
중도탈락 관련상황	▷중도탈락 이유 ▷중도탈락 결정의 신중성 ▷중도탈락 최종결정자 ▷중도탈락에 대한 태도 ▷중도탈락 이후의 생활 ▷중도탈락 이후 거주장소 ▷중도탈락후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복학희망여부 ▷중도탈락 이후 원하는 지원 ▷희망하는 교육적 지원 ▷선호하는 정보수집 방법 ▷상담프로그램별 희망여부

부록 3은 동연구에서 이용한 설문지이다.

(나) 프로그램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수요 조사

학업 중단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지역 협의체 소속 기관 실무자의 욕구를 반영하는 서비스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학업 중단 청소년의 중퇴 원인이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그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의

특성, 담당자의 전문성에서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획 단계에서 기관별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수요 조사가 선결되어야 한다. 수요 조사의 내용으로는, 서비스 제공 기관의 특성(주무 부처, 운영 주체, 인력, 시설, 예산 등), 실제 운영자의 전문 능력(학력, 교육 배경, 성별, 연령, 유관 프로그램 운영 경력 등), 희망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활용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몇 개의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구조화된 설문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조사를 거쳐 나타난 정보는 향후 참여 기관간 역할을 재조정하거나 추가할 때 활용되어야 한다.

(다)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대상 청소년, 부모, 프로그램 운영자, 학교 상담 교사 등)

지역 협의체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서비스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영역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먼저, 학업 중도 탈락의 원인을 중심으로 진로 및 적성 문제, 가족 문제, 교우 문제, 자아정체감 문제,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유형화하고, 문제 영역별로 다루어야 할 주요 내용들을 나열한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실시 대상을 고려하여, 전체 영역을 다루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보다, 주요 내용을 모듈 형태로 구성하여, 운영자가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취사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위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상에 따라 진행 방식, 활용 내용, 운영시 주의 사항 등을 차별화하여 대상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낮은 동기와 비자발성,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행동을 자주 보이므로, 프로그램 운영 초기에 자발성 높이고 동기를 진작시키는 활동 중심으로 운영한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둔 학부모의 경우, 자녀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심한 수치감, 자녀 미래에 대한 불안감, 통제 불능 자녀에 대한 극도의 무기력, 전문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심 등의 주요 특성을 보이므로, 운영 초기에 이러한 감정들이 충분히 다룬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해결된 이후에 자녀 지도를 위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다룬다.

학교 상담 교사들의 경우, 학교를 떠나려고 하거나, 이미 학교를 떠난 아이들에 대하여 분노, 적대감, 혹은 무관심해지는 경향이 많으므로, 학교를 떠난 아이들에게 학교 교사가 갖는 존재의 중요성을 알려줌으로써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낸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업 중단 청소년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충분히 설명해준다.

지역 협의체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전에, 기개발된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수차례 실시한다. 시범 운영을 하면서 비현실적인, 부적절한 내용들을 일부 수정 보완하며,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을 유형화한 후, 영역별 대처 방안들을 자세하게 제시한다.

또한, 지원협의체 사무국은 이러한 임상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참여 기관들간의 연계를 전제로 한 다양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은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 제안하고, 관련 기관간 협의와 조정을 이끌어내는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운영자 연수

지역협의체에서는 각 프로그램의 운영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위한 워크샵을 준비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프로그램의 목적 및 구성 방식, 그리고 활용 방안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려준다. 둘째, 시범운영 과정을 녹화하여, 프로그램 운영 과정, 운영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처 방식, 프로그램 참여 학생 및 학부모들의 육성을 통한 프로그램 효과 및 개선 방안 등을 사실적으로 전달한다. 셋째, 운영자들이 프로그램 참여함으로써 피험자의 입장에서 프로그램 실제를 경험하며,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개발된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분임토의 및 프로그램 평가 회의를 통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감각을 익히고, 미리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운영자 공동 워크샵에서 충분히 토론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더 개발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는 프로그램 운영자 측면에서의 수요조사의 한 측면이 되고, 차후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을 때 참여기관간 협조를 증진시킬 수 있는 주요 계기가 된다. 이러한 목적들이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1박 2일동안의 마라톤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마) 참여 기관의 프로그램 확대 및 개발 지원 및 조정

지역협의체에서는 보다 많은 청소년이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확대 및 보급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지원협의체 사무국은 이사들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로그램 확대 및 개발을 유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프로그램의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대안학교 프로그램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안에 의하면 다소 시설 등의 외적 요소가 기준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질적 내용을 평가하여 위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평가기준에 지원협의체가 의견을 내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지원협의체 사무국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각 지방의 대안학교 수요와 청소년들의 학습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바) 민간 기관 (기업체 등) 의 참여 유도

학업중단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사실상 청소년 자체의 교육적 기회를 확대하고 그러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심리적 그리고 물적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서도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자신의 성장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들을 끌어 앉고 있는 사회전체가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각 종 서비스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의 일반 기업체 등의 참여도 필요하다. 일반 기업체는 이들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비행에 빠지지 않게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청소년들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삶을 살아가는 인생철학과 생활기술도 전수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간 기업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한가지 전략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고용되어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패스트 푸드점, 편의점, 주유소 등을 관리하는 기업체의 담당자를 접촉하여 이들에게 청소년 관련 문제 및 상황을 어떻게 다루어갈 것인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다. 이후 이들의 협조를 받아 실제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개별 점포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적 접근을 통해 일반인들의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청소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동기화할 수 있을 것이다.

(5) 기타

(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재정확보 및 분배

지역협의체 사무국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산출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현 시점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지만, 지원협의체도 회비, 지역사회 인사의 후원, 출향 인사의 스폰서, 이벤트 사업 등 재원발굴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야 한다. 한편 한국청소년상담원내 지원센터도 정부부처와 협의하여 각 지역협의체의 신규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을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참여기관의 참여 동기를 유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모든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기능은 지역협의체 사무국에서 갖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시·군·구 상담실과 각 지역 참여기관이다. 따라서 이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일정부분 예산에서 보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지원협의체 제반 활동에 대한 대외 홍보

지역협의체 활동의 관건은 학교를 떠나려 하거나 이미 학교를 떠난 청소년이 얼마나 서비스의 수혜혜택을 받느냐 하는 것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청소년이 지역협의체와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알고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도록 동기화 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언론홍보, 스티커 부착, 리플렛 혹은 팜플렛 배포, 종합 홈페이지 운영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홍보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다) 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해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지원협의체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한 가지 선수조건은 학교를 떠나려는 청소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원협의체에 통보하여 개입적 처치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그 청소년은 계속 학교에 머물게 되거나 다른 프로그램으로의 위탁이 되고 사후 지속적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학교 자체의 결정에 맡겨두어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면 추적할 길이 없어진다. 따라서 지원협의체는 그 구성 단계부터 이와 관련된 사항을 교육청과 협의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원협의체 활동의 활성화를 보아가며 이러한 위탁이 강제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지원협의체 운영 및 각 위원회 활동 결과에 따른 실적 작성 및 관리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신인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실적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업 평가는 사업관련자뿐만 아니라 사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제 3자까지 포함하는 평가단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그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산출된 평가결과는 단지 평가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활동을 계획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지원협의체는 자체의 운영 및 각 위원회 활동 결과에 따른 실적을 작성하고 관리함으로써 이러한 평가에 대비하여야 한다. 한국청소년상담원내 지원센터는 지원협의체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모형을 만들어야 하고 이 모형에는 지원협의체 사무국이 실적을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사무국 역할수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과제

(가) 법개정 및 조례제정

확실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는 가운데 진행되는 학업중단청소년 지원협의체 사업은 인적 물적 자원만 낭비하고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청소년 기본법 및 교육법 등에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지원의무 사항을 확실히 명기되어야 하고, 각 지역단위에서의 조례개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청소년상담원내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조례의 표준안을 개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인력의 보완

현행 청소년종합상담실의 인원을 보강하여야 한다. 직원 채용시 현행 채용 요건을 준수하면서도 사무국에 채용된 직원은 융통성을 둘 필요가 있다. 즉 대졸자를 뽑고 직급을 조정할 수도 있다. 필요한 최소 충원인원은 사무국장을 제외한 3명이다. 사무국장은 청소년상담실의 실부장이 겸임하는 것이 좋고, 각종 행정 사항을 담당한 직원 1명과 기관간 의사소통 및 조정을 담당할 조정자 (coordinator) 1명, 그리고 각 사례에 대한 사례관리를 전담할 전임 상담원 1명은 사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인원이다.

(다) 재정의 확보

사무국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인 경비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외에도 재정지출요소가 많다.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교육인적자원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현재 중앙정부차원에서 예산을 신청할 때, 인건비

보다는 사업비 위주의 예산이 확보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문화관광부 및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원협의체에 사업비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분담된 형태의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허철수 (2003)는 4인의 인력으로 사무국을 운영할 때 필요한 예산을 약 1억 천 3백만으로 추정하였다. 부록 9는 그 산출 근거를 나타낸 것이다.

V. 결　　어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단위 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이제까지의 논의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설계도를 놓고, 이 하드웨어가 잘 기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테스트를 위해서는 비교적 잘 제작된 소프트웨어를 투입하여 하드웨어상의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도 하드웨어 기능의 완벽성을 제대로 테스트 해 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는 달리 인간을 위한 제도적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의 기능에 맞추어 설계 및 운영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잘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기 위해 하드웨어를 다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 어떤 소프트웨어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과 기관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 운영되고 있다. 이들 소프트웨어는 개별적 하드웨어 환경속에서 구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비교적 쉽게 찾고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 소프트웨어를 통일적 하드웨어 환경에서 구동시키고자 할 때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바로 이러한 조건속에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협의체가 하드웨어로서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이미 시작부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리라는 기대를 앉고 있는 사업이다. 따라서, 동 사업은 많은 개별적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통일된 환경내에서 무리없이 구동되도록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방식이나 기존의 소프트웨어 모두에게 맞는 이상적인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방식 중, 어느 한쪽으로 향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둘 모두를 지향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결국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여러 인사들과 기관들의 열린 마음과 열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열정과 열린 마음이 소프트웨어의 수정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소프트웨어의 수정 가능성 정도가 하드웨어의 보편성 정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하드웨어의 보편성 정도는 앞으로 구성될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방향과 질을 결정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사업은 사실상 여기서 제시한 대략적 사업 윤곽을 구체화하는 것임과 동시에 보다 보편적인 지원환경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참여 주체들 상호간 접점을 찾으려는 지난한 토론과 합의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한 두차례의 추상적 논의과정만으로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과제를 놓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가능한 일일 것이다.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사업은 다양한 참가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는 하나의 과제이자 우리 청소년들이 각자의 삶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이 사회의 진심어린 배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교육인적자원부(2003). 대안교육 기회의 확대・내실화 추진방안.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박병훈(2003). 시・도 종합상담실의 역할Ⅰ.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협의체 구축방안 콜로 퀴엄. 한국청소년상담원

박창남, 임성택, 전경숙, 김성식(2001). 중도탈락 청소년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 연구. 교육인적자원개발부・한국청소년개발원

안현의, 권해수, 이소영(2002).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을 위한 상담개입전략.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Vol 46. 한국청소년상담원

유성경, 이소래(1998). 잠재적 중도탈락 학생에 대한 개입체제 개발연구. 청소년대화의 광장

이숙영, 남상인(1997). 중도탈락학생의 사회적응상담정책 개발연구. 청소년대화의 광장

이창호, 지승희, 장미경, 손재환(2002). 학업중단 청소년 사회적응을 위한 지역단위 관련기관간 연계협력체제 구축방안. 한국청소년상담원

이혜영(2002).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선정지원을 위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조영승, 구본용, 신현숙, 유순덕(2001). 경기도 지역 중퇴생 선도・보호방안 프로그램 개발연구. 경기대 사회과학연구소

허철수(2003). 시・도 종합상담실의 역할Ⅱ.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협의체 구축방안 콜로 퀴엄. 한국청소년상담원

부 록

부록 1. 콜로퀴엄 ····· 51
부록 2.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관계기관 워크샵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대책 실행방안) ····· 104
부록 3. 설문지(기관, 청소년) ····· 137
부록 4. 의뢰접수증 ····· 157
부록 5. 영역별 정보조사내용 ····· 158
부록 6. 평가동의서 ····· 163
부록 7. 평가회의 및 배치기록 ····· 164
부록 8. 현장연구(복교 청소년 및 부모) 결과보고 ····· 166
부록 9. 지원협의체 연간 예산 예시 ····· 176

부록 1. 콜로퀴엄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협의체 구축방안 콜로퀴엄

- 청소년 쉼터의 역할

박 진 규 (신림청소년쉼터 실장)

Ⅰ. 쉼터의 설립목적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부적응의 문제(가출 및 배회, 비행, 학교에서의 부적응으로 인한 징계 및 학업유예)를 겪고있는 청소년들에게 현장 중심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상담 및 보호(일시 및 치료적 보호), 문화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통합을 도모한다.

Ⅱ. 설립목적에 비추어 본 기관의 강점과 약점

• 기관의 강점

1. 현장 중심적인 접근방법

가. 목적

1) 거리에 노출, 방치되어 있는 청소년을 부적절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2) 신체적, 심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배회·가출청소년에게 복리후생, 의료, 안식처 등 현장보호서비스 제공
3) 현장에서의 적절한 보호와 치료적 개입으로 가정 및 쉼터 등 보호공간으로 의뢰

나. 주요내용

1) 정기거리상담

일정지역에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연간 한 두 곳의 청소년 밀집지역을 일정간격으로 방문하여 실시한다. 정기거리상담은 대개 거리상담자원봉사자들과 결합하여 실시한다.

2) 야간순회(Patrol)상담

거리상담자들이 승합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수시로 청소년밀집지역을 찾아 나서거나, 이동 중 청소년들이 발견되면 즉시 접근하여 상담할 수 있는 기동성과 현장성이 높은 거리상담 방법이다. 오토바이 폭주청소년들, 음식배달일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 주택가 작은 놀이터에 모인 청소년들 등 야간/심야시간대에 다양한 청소년들과 만날 수 있다.

3) 이벤트거리상담

특정 기간동안 청소년들의 특정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지역에서 다양한 이벤트행사와 함께 실시되며 다양한 문화행사와 볼거리를 통해 어른들과 지역사회에 청소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 여름철 청소년의 성 문제와 각종 탈선이 발생하는 피서지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병행, 남녀아이들이 모여있는 백사장, 텐트, 등에서 상담과 교육활동을 하는 해변거리상담,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이나 유흥가에서 성과 알바를 주제로 펼치는 이벤트거리상담 등이 있다.

다. 대상의 특성

1) 청소년기의 일반적인 문제 외에 가출, 폭력, 절도, 성, 약물 등의 복합문제를 지니고 있고 문제의 발생 및 형성이 장기간에 이루어져 문제의 정도가 심각하고 만성적임.
2) 복지욕구는 있으나 인식하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상담을 하기 위해 쉼터나 상담실을 찾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3) 가정, 학교,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기관방문 및 상담원의 접근에 강한 저항을 보임. 따라서 이들과의 반복적인 만남과 일관된 개방적, 수용적 태도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오랜 거리생활로 피부질환(옴, 알레르기피부염, 문신후유증), 각종 질병(성병, 만성간염, 소화기장애, 결핵), 부진한 발육 등 신체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
5) 적절한 보호로부터 방치 방임되어 사회성 결여, 무기력, 우울증, 행동장애, 폭력성 등 심리사회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

2. 접근성 용이

가출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며 가출청소년들의 외형적 특성(머리색,

옷, 위생상태 등)상 아이들이 출입하는 곳은 주택가에서는 벗어나야한다. 주택가에 위치한 쉼터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인해 곤욕을 치르지 않은 곳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위치 즉, 교통편이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그 점을 고려하여 현재 신림쉼터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주택가에서 벗어나서 일반 상가에 위치해 있어서 아이들이 입, 출입 시 일반인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

3. 자기결정의 원칙에 기반한 개방성

쉼터에 찾아오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자발적인 입소를 한다. 2002년 보호청소년의 입소경위를 살펴보면, 친구를 통해가 40%, 기관의뢰가 24.7%, 스스로 12.9%, 홍보물을 보고가 8.6%, 인터넷을 통해가 8%로 '친구를 통해'의 비율이 가장 많다. 2002년에 기관에서 보호했던 162명중 기관의뢰, 타인의뢰, 기타 등 비자발적인 입소는 28.4%이며 자발적인 입소는 71.6%를 차지한다.

어떤 경로를 통해 쉼터에 찾아왔든 아이들이 쉼터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받은 뒤 입소여부는 본인이 결정하게 되어있다. 쉼터에서 지내면서 본인에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그리고 본인이 쉼터에서 지내게 된다면 최소한 지켜야될 규칙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최종적인 입소여부에 대한 결정을 본인이 한다.

또한 쉼터에서 지내는 동안 외출이나 생활약속이 느슨한 편이다. 이는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제된 생활과 엄격한 생활규칙을 지양한 결과이다.

4. 다양한 문화활동

2002년 쉼터에서 보호한 아이들 162명의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초재가 7%(11명), 중재가 19%(31명), 고재가 21%(34명)로 전체의 47%를 차지한다. 중학교 중퇴가 27.8%(45명), 중졸이 5.5%(9명), 고퇴가 15.5%(25명)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한다.

아이들의 대부분이 학업이 중단되었거나 중단 위기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쉼터에서 지내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으로 보낸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 쉼터에서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진행한다.

그러나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쉼터에 오는 아이들은 학력수준과 학습능력이 대체적으로 낮으며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집중 시간이 10분 이상을 넘어가면 아이들은 가만히 있질 못한다. 강의

식 교육은 정말 아이들이나 강사나 모두 힘들게 한다.

그리고 공동작업을 하기가 힘들다. 긍정적인 학교경험과 또래경험이 부족한 아이들이라서 같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일이다.

또, 긴 횟수를 요하는 프로그램은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예를 들면 연극제처럼 고정멤버가 정기적으로 꾸준히 연습을 해야 무대에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 어느 순간에 와도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쉼터에서는 아이들의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내용을 재구성해왔다. 어떤 방식으로 구성해서 진행하든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하면서 실무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아이들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발산시키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와 상담자와의 상담을 통해 형성된 친밀한 관계가 퇴소 후 사후지도와 전환생활로의 동기화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 기관의 약점

1. 의뢰체계가 부실하다.

쉼터의 일시, 개방형 특성에 따라 가정으로의 복귀가 힘들거나 제대로 된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정인 경우 의뢰를 해야하는 데 의뢰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

예를 들면 나이가 어려서 자립을 꾀하기도 힘든 아이들은 그룹홈에 의뢰를 해야하는데 현재 대다수의 그룹홈에서는 비행력이 없어야 하며, 초등학생 이상은 안되며, 학교를 다녀야하는 등 자격요건이 까다로와서 실제로 쉼터에 오는 아이들을 의뢰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자립을 해야하는 아이들의 경우는 직업훈련원이나 구직을 선택하는데 기숙사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는 기숙사의 통제된 생활규칙 및 또래간의 힘겨루기를 들고 있다.

구직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대부분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숙식이 제공되는 일자리를 선호한다. 그러나 사생활이 보장이 안되며 장시간의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문제 등으로 인해 짧은 근무기간과 이직을 반복한다.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 예를 들었지만 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아이들에게 가장 적절한 곳을 찾아 백방으로 알아보면서 번번히 한계에 부딪힌다. 만족할 만

한 곳에 아이들을 의뢰한 기억이 별로 없으며 정말 아이들을 받아줄 곳이 이 사회에 아무 데도 없는 건지 깊은 의문이 들기도 한다.

2. 장기간 보호할 수 없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아이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돌봐주는 곳이 있어야 한다. 돌봐준다는 것은 단순한 양육을 의미하진 않는다. 이 아이들은 거친 환경에서 자랐다. 그런 만큼 아이들의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다. 이 아이들을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하며 그에 걸맞게 아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아이들을 돌보는 staff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다. 아이들에 대한 이해수준과 아이들을 수용하는 능력이 높고 전문적인 훈련과정을 거친 staff이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본 기관은 일시, 개방형 쉼터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쉼터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오갈 곳이 없는 아이들에게 한시적으로 안정된 주거공간과 자유롭고 안전한 사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중장기 쉼터 설립과 절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을 위한 생계비 지원, 지원 고용 등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III.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

1. 숙식제공

1) 목 적

가출시 안식처를 제공하여 비행예방, 상담과 집단프로그램 등의 치료적 접근으로 가정, 학교, 사회로의 복귀 촉진

2) 사업개요

가. 일 시 : 연중
나. 장 소 : 신림 청소년쉼터
다. 대 상 : 배회 및 가출 등으로 인해 안정된 숙박공간에서 보호가 필요한 남자 청소년

라. 연　령 : 14세~19세
마. 인　원 : 1일 보호 가능 인원 - 20명

3) 추진방법

가. 입소경로 : 거리상담, 또래 홍보, 매스컴, 상담소 및 타 쉼터 연계를 통한 입소
나. 보호기간 : 1일 ~ 4주간 보호
다. 보호형태 : 개방형 일시보호, 낮보호, 밤보호
라. 사후지도 : 가정으로의 복귀가 이루어진 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

2. 복리후생서비스

1) 목　적

보호청소년의 기본적 욕구에 맞는 편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쾌적하게 보호, 심리적·신체적 안정감 증진

2) 사업개요

가. 일　시 : 연중
나. 장　소 : 신림 청소년쉼터
다. 대　상 : 보호청소년

3) 추진방법

가. 보호청소년의 기관에 대한 적응과 변화에 대한 동기화정도에 따라 선별하여 서비스 제공 : 쉼터 입소 후 2주 경과된 보호청소년, 17세 미만인 보호청소년
나. 용돈지급은 무상으로 주기보다는 기관 및 지역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적절한 노동과 봉사에 대한 보상, 변화에 대한 강화 수단으로 제공

4) 주요내용

가. 의료 및 위생서비스
나. 교통비, 학용품비 및 사회비 제공

3. 집단상담 프로그램

1) 목 적

다양한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기문제인식과 해결능력증진, 심성수련, 외향적 활동욕구의 건전한 해소방법을 습득

2) 사업개요

가. 일　시 : 연중(1월 - 12월)
나. 장　소 : 신림 청소년쉼터, 청소년 수련시설
다. 대　상 : 보호청소년 및 (비행)이용청소년
라. 내　용 : 심성훈련, 성교육, 약물교육

3) 추진방법

가. 가출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문제와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문제해결 프로그램)개발
나. 기관 연계를 통해 강사를 섭외, 야외 이용시설을 개발
다. 보호청소년과 관계하는 부적응청소년을 선별하여 보호청소년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

4) 주요내용

가. 심성훈련 : 자아성장 및 인간관계훈련프로그램, 미술치료프로그램
나. 성 교 육 : 건전한 성가치관과 대처방법
다. 약물교육 : 약물남용의 폐해와 자기조절능력

4. 거리상담

1) 목 적

청소년 밀집지역에 직접 찾아가 성·약물·가출·진로를 주제로 지속적인 거리상담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가출 상황에 직면한 청소년들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 및 위기개입

2) 사업개요

가. 일　시 : 연 40회(이벤트 거리상담은 청소년 주요 이슈에 따라 실시)
나. 장　소 : 청소년밀집지역(보라매공원, 마로니에공원, 여의도 고수부지)
다. 대　상 : 배회 가출 청소년 및 일반 청소년

3) 주요내용

가. 정기거리상담 - 청소년들의 밀집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출, 배회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각종 현장서비스 제공
나. 성·약물 갤러리 교육 - 거리상담 현장에서 거리 청소년들이 노출되기 쉬운 성 약물문제에 대해 각종 게시판을 통해 교육상담
다. 간식제공과 전화카드 및 기관 홍보물 배포
라. 각종 청소년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마. 거리현장 아이들과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고정 거리상담 사이트 개발
바. 신경정신과 전문의 동행으로 현장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상담 및 의료 개입

5. 해변거리상담

1) 목　적

여름 유원지(해변)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비행 예방활동과 성, 약물교육, 위기개입상담, 가출 및 비행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긍정적 여가활동을 유도하고 현장 일반 성인들의 관심을 환기시켜 적극적 지지자로 개발

2) 사업개요

가. 일　시 : 7, 8월 중 2박 3일
나. 장　소 :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해변가 및 유원지
다. 대　상 : 해변에 놀러온 청소년

3) 주요내용

가. 7, 8월 여름기간 중의 해변에 간이 상담실을 설치
나. 다양한 이벤트행사 실시 - 페이스페인팅, 의견개진판, 야외영화상영, 등
다. 유원지 내의 비행, 약물, 성에 대한 예방을 위한 상담

라. 유해업소 고발조치와 의료자원봉사자를 동행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마. 수상 안전대와 출장 파출소, 지역 상가연합회에 쉼터 홍보활동

6. 쉼터홍보활동

1) 목 적

가출, 배회청소년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홍보 및 인터넷 공간에서 온라인 홍보를 통해 보호와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기관이용을 용이하게 함

2) 사업개요

가. 일 시 : 연 중
나. 장 소 :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이용하는 생활정보지, 인터넷 채팅 및 카페공간
다. 대 상 : 가출청소년과 가출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 가출하여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

3) 주요내용

가. 청소년 밀집지역에 생활정보지 아르바이트 구인란에 광고를 게시하여 가출 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청소년들에게 쉼터를 홍보한다.
나. 청소년들이 많이 접속하는 채팅, 게임 홈페이지에 인터넷 사이버광고를 실시한다.

7. 기관내부상담

1) 목 적

문제청소년에 대한 원인진단, 치료계획수립 및 개입을 통한 변화유도

2) 사업개요

가. 일 시 : 전화상담, 컴퓨터 상담 - 24시간 / 면접상담, 심리검사 - 오전 9시~오후 6시
나. 장 소 : 신림 청소년쉼터 상담실
다. 대 상 :
○보호청소년

○거리상담을 통해 연계된 청소년
○가정, 학교에서의 부적응으로 상담을 요청한 청소년 및 청소년의 부모 및 가족
○학교, 부모님, 타 기관에 의해 상담이 의뢰된 청소년

3) 추진방법

가. 일시보호청소년 : 초기면접상담(Intake), 주1회 정기상담을 이용자 수칙으로 함
나. 일시보호청소년 부모 : 보호청소년의 가정복귀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 상담 제시
다. 기관의 타 프로그램 이용청소년 :
○기관의 상담 및 심리검사 프로그램을 게시판이나 안내물을 통해 일상적으로 홍보
○기관시설 중 안내데스크(간이상담코너)를 이용하여 청소년과 관계형성, 상담으로 유도
라. 기타청소년, 부모, 상담을 원하는 대상: 일간지,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 전단배포 등을 통해 상담사업 보호, 이용자 모집

4) 주요내용

가. 전화상담 : 가정, 친구, 이성, 성적 및 교육 문제, 진로 및 취업, 비행 및 가출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고민 상담
나. 면접상담 : 개별상담, 집단상담, 부모상담, 가족상담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담기법을 적용, 대상자의 심리사회적 문제, 행동문제, 환경문제 등을 해결
다. 심리검사 : 성격 유형검사(MBTI), 다면적 인성검사(MMPI), 지능검사(KWAIS, KEDI-WISCⅢ), 교류분석(TA), 투사적 그림검사(HTP) 등
라. 야외상담

8. 사후지도 상담

1) 목 적

쉼터에서 상담후 퇴소한 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개입을 통해 재가출을 예방하고 사회적응 도모

2) 사업개요

가. 일　시 : 전화상담 - 24시간/ 면접상담, 심리검사 - 오전 9시~오후6시
나. 장　소 : 신림 청소년쉼터 상담실, 퇴소청소년의 생활현장
다. 대　상 : 퇴소청소년 및 학부모

3) 추진방법

가. 퇴소청소년 중 귀가나 직업학교, 대안학교, 취업 중이어서 주거가 분명하고 연락이 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상적으로 진행
나. 귀가 후 진로문제, 부모님과의 관계, 대인관계문제를 정기상담을 통해 지도
다. 지역사회내 자원을 연결해 가정 및 학교적응 도모

4) 주요내용

가. 면접상담 : 퇴소후 6개월간은 격월로 상담을 진행하고 이후에는 비정기적으로 상담 진행
나. 전화상담 : 퇴소후 생활에 대해 정기적 전화상담을 통해 고민해결
다. 서신 및 E-mail 상담 :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컴퓨터와 편지를 통해 사후지도 상담실시

9. 정보 검색 및 컴퓨터 활용

1) 목　적

보호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인터넷 검색과 게임 등 컴퓨터를 이용한다.

2) 사업개요

가. 일　시 : 연중, 매일 10시 ~ 오후 10시(집단 프로그램 등 쉼터 휴관일 제외)
나. 장　소 : 신림 청소년쉼터 정보이용방
다. 대　상 : 보호 청소년

3) 추진방법

가. 다양한 오락프로그램과 PC통신 및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 4대를 이용하여 청소

년들이 자유롭게 인터넷 검색과 오락,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한다.
나. 컴퓨터별로 모둠을 짜서 자율적인 순번으로 이용하게 한다.

10. 굿모닝 티타임

1) 목 적

거리생활에 익숙한 청소년들과 아침의 시작을 모든 실무자와 함께 차를 마시며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생활의 리듬감을 갖는다.

2) 사업개요

가. 일 시 : 연중, 매일 9시 ~ 10시(공휴일, 주말제외)
나. 장 소 : 신림 청소년쉼터 휴게실
다. 대 상 : 보호 청소년

3) 추진방법

가. 아침 청소 후 차를 마시며 프로그램 진행
나. 실무자와 입소청소년이 당일 및 주간 일정을 공유한다.

4) 주요내용

가. 자기소개, 레크레이션, 대인관계 훈련, singalong, 명상의 시간 등 다양한 방법 시도

11. 열린연극교실

1) 목 적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야기를 마음껏 풀어놓고, 그 이야기를 함께 극화하여 주인공까지 해 봄으로써 가정, 학교, 사회와의 관계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는데 긍정적인 시각을 키운다.

2) 사업개요

가. 일 시 : 연중 20회

나. 장　소 : 신림청소년쉼터 소극장
다. 대　상 : 보호 청소년

3) 추진방법

가. 일시보호청소년 중 연극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을 모집
나. 지도교사의 지도로 청소년들의 경험을 극화하고 연습한다.
다. 극화한 연극을 무대에 올려 관객을 대상으로 발표해 본다.

4) 주요내용

가. 연 2회 집중적으로 일 이주에 걸쳐서 연극 연습을 진행한다.
나. 연극 연습을 하면서 보호청소년 스스로의 이야기를 만들어 극화하고 무대에 올린다.

12. 미디어 활동

1) 목　적

영화감상, 사진 뜨개질, 홈페이지 만들기 등 미디어를 통해 보호 청소년들이 자신의 이야기와 생각들을 표현하고, 느낌을 나누는 작업을 해본다.

2) 사업개요

가. 일　시 : 연 20회
나. 장　소 : 신림청소년쉼터 소그룹활동실 및 소극장
다. 대　상 : 보호 청소년

3) 추진방법 및 주요내용

가. 영화를 보고 느낌을 나누기 위해 영화 포스터를 만든다. - 영화감상
나. 사진을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들을 표현한다. - 사진 뜨개질
다. 자신의 홈페이지를 꾸미고 관리한다. - 홈페이지 만들기
라. 슬라이드 사진을 촬영하고 슬라이드 쇼를 진행해본다.

13. 미디어 집단상담

1) 목 적

보호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고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정리하고, 자신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존재임을 느끼게 한다.

2) 사업개요

가. 일 시 : 연중 5회
나. 장 소 : 청소년 문화교류센터(MIZY)
다. 대 상 : 보호 청소년

3) 추진방법

가. 미디어를 활용한 집단 프로그램을 전문적인 강사를 통해 진행한다.
나. 다양한 매체 (캠코더, 사진, 컴퓨터)를 활용하여 진행한다.
다. 다큐멘터리 '나' 또는 직업탐색 '직업 이야기'
라. 청소년들이 직접 촬영 및 편집후 시사회를 가지고 느낌을 나눈다.

14. 풍물, 민요교실

1) 목 적

보호 청소년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전통에 대해 신명나는 풍물장단과 민요가락을 배움으로써 우리의 것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고 또한 자신의 끼를 발산하는 장을 마련한다.

2) 사업개요

가. 일 시 : 연 10회
나. 장 소 : 신림 청소년 쉼터
다. 대 상 : 일시보호청소년

3) 추진방법

가. 일시보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정

나. 전문적인 강사를 섭외한다.
다. 주1회의 진행보다는 연속적으로 진행을 한다.

4) 주요내용

가. 청소년들이 지루하지 않게 풍물과 민요를 함께 배운다.
나. 기능위주보다는 장단을 느끼고 즐길 수 있게 한다.

15. 문화창작교실

1) 목 적

다양한 매체를 통한 창작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가지는 문제를 객관화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이를 통해 구성원간의 의사소통 훈련과 정서적 친밀감을 강화한다. 또한 정서적 순화를 기대한다

2) 사업개요

가. 일 시 : 연 20회
나. 장 소 : 신림청소년쉼터 소그룹활동실
다. 대 상 : 보호 청소년

3) 추진방법 및 주요내용

가. 보호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나. 전문적인 강사의 지도로 다양한 문화적 접근을 시도한다.
다. 미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미술작품에 담아냄으로서 정서순화를 꾀한다. (종이접기, 목공예, 도자기 등)
라. 매직풍선 제작을 통해 아름다움과 동심을 느끼게 하고, 이를 통해 정서를 순화한다.

16. 야 외 활 동

1) 목 적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위해서 각종 공연이나, 놀이시설,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이후 사회에서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이 추억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내재적 원동력이 되게 한다.

2) 사업개요

가. 기　간 : 연 20회
나. 장　소 : 야외
다. 대　상 : 보호 청소년

3) 주요내용

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관람한다. (연극, 영화, 콘서트, 뮤지컬, 박람회 등)
나. 놀이 시설 및 체험 활동을 한다. (놀이 공원, 유적지, 박물관 등)

17. 쉼터 가족여행

1) 목　적

일시 보호 시설의 특성에 맞춰 보호기간을 프로그램 진행 기본 단위로 놓고 야외에서의 숙식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친밀감을 느끼게 하고 집단 구성원간의 결속을 다진다. 더불어 청소년들이 스스로가 사랑받을 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

2) 사업개요

가. 기　간 : 연 4회
나. 장　소 : 야외
다. 대　상 : 보호 청소년 및 실무자

3) 주요내용 및 추진 방법

가. 1박 2일 청소년들과 함께 지낼 야외 장소를 선택한다.
나. 청소년들과 더불어 1박 2일 숙식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쉼터 생활을 정리하고, 집단 결속력을 높인다.
다. 프로그램은, 집단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과,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라.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했고, 버림받았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며, 사회성이 부족한 보호청소년들에게 모둠별로 가족구성원 지위를 부여해 모의로 가정을 구

성하여 가정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사회성을 높이는 것에 역점을 둔다.

18. 탈출 문화제

1) 목 적

가출 청소년 쉼터에 맞는 독특한 문화 행사를 만들어 간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모아내고 이를 여론화 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특히 가출 청소년 문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홍보하여 사회에서 가출 청소년문화와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고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간다.

2) 사업개요

가. 일시 : 연 1회 (5월 중)
나. 장소 : 청소년들의 이동이 빈번한 거리나 공원
다. 대상 : 거리를 배회하는 비행 및 가출청소년, 일반청소년 및 지역의 공부방청소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3) 추진 방법

가. 2월 : 기획팀구성
나. 3월~4월 : 공연기획, 구성, 공연장소섭외, 내용 구성, 출연진 섭외
다. 5월 : 연습, 및 공연

19. 현장체험

1) 목 적

도시 속에서 진행되는 한정되고 틀에 박힌 교육에서 탈피하여 자연 속에서 자연을 느끼며,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며, 더불어 공동체성과 실무자와 청소년들의 친밀감을 높여간다.

2) 사업개요

가. 기 간 : 연 1회

나. 장　소 : 야외
다. 대　상 : 보호 청소년 및 청소년 쉼터 실무자
라. 인　원 : 연 15명

3) 추진방법 및 내용

가.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교육 장소와 내용을 검토한다.
나. 풍물이나 농활, 도자기 제작 등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한다.
다. 이후 청소년들과 함께 평가하면서 이후 프로그램 진행에 참고하도록 한다.

20. 우리세상캠프

1) 목　적

가족여행의 연장선상으로써 보호 청소년은 물론 쉼터에서 보호했던 청소년들과 실무자들이 함께 캠프를 통해 관계형성은 물론 유지를 통해 쉼터 구성원으로서 결속을 다진다.

2) 사업개요

가. 기 간 : 8월
나. 장 소 : 야외 캠프장
다. 대 상 : 보호 청소년 및 실무자

3) 추진방법 및 내용

가. 캠프실시 2개월전 준비팀구성
나. 캠프예정지 사전답사. 예정지역 관계자와 구체적인 프로그램협조
다. 다양한 내용으로 프로그램구성
라. 이동방법 : 차량임대로 이동

Ⅳ.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시

1. 싸이트 거리상담

1) 목 적

- 가출청소년 위기개입상담
- 간단한 의약품 및 콘돔 제공
- 다양한 이벤트를 병행한 성, 약물, 알바 교육
- 정보제공, 의뢰서비스 제공

2) 사업취지

가출의 가장 큰 위험은 장기적인 가출로 이어지는 것이고 장기적인 가출은 폭력, 절도, 성범죄등의 비행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때문에 가출청소년들의 생활현장에서의 위기개입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된다. 초기가출청소년뿐 아니라 장기적인 가출을 하고 시설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쉼터 입소 및 가정복귀에 대한 동기화를 촉진한다.

3) 시범운영 결과 중 특이사항 (2003년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오후 4시~오후 12시)

- 주 1회의 거리상담에서는 만나지 못했던 많은 이반(동성애)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었다. 신촌 창천공원뿐 아니라 청소년들 사이에 동성애가 많이 확산되고 있고 청소년쉼터 거리상담에서 개입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한강 이용청소년 중 일부는 헌팅을 위해 나오는 여자청소년들이 존재해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피임교육과 간단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졌다.
- 폭주족들과 이들을 따라 다니는 여자청소년들도 문란한 성관계와 가출 등의 문제가 심각해 관계형성을 위한 상담과 위기개입상담이 이루어졌다.

Ⅴ. 지원협의체 활동 참여시 요구되는 제도적 지원

본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리상담을 통해 현장에서 배회, 가출청소년들을 꾸준히 만나왔다. 그 청소년들의 욕구 중 핵심적인 몇 가지만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숙식해결에 대한 욕구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에 대한 욕구는 가장 일차적인 욕구라 할 수 있다.

집을 나와서 지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아니다. 결국 친구집, 공원,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숙식을 힘겹게 해결하며 산다.

청소년쉼터를 소개하면 거기 가면 자유롭게 살 수 없다며 싫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우선 외출 외박이 자유로와야 하며 흡연이 허용되어야 하며 규칙으로 통제되지 않는 곳이면 좋겠다고 한다.

이런 아이들의 욕구에 맞는 센터는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 가출이 장기화된 아이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세탁과 샤워, 취사, 숙박을 하며 거리생활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어야 하며 생활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쉼터, 취업정보, 직업훈련,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제공 및 의뢰서비스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

실제 거리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의식주 해결조차도 힘들기 때문에 의료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거나 경제적 여건이 안되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아이들을 발굴한다해도 마땅히 의뢰할 만한 의료서비스 시스템이 부재한 것도 어려움 중 하나다. 단순 진료 뿐 아니라 건강검진까지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3. 취업 욕구

귀가를 거절당하는 아이들,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들, 들어오든지 말든지 부모님이 별

신경 안쓰는 아이들은 자립을 원한다. 자립을 하려면 취업을 해야하는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동의서가 필요하다. 가끔 동의서가 없이도 고용을 하는 업체가 있긴 하지만 요즘은 업주들도 의식이 예전과 달라서 대부분 동의서를 요구하는 추세다. 동의서 없이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이런 어려움에 시달린다. 가끔 쉼터의 실무자가 보호자 대리로 동의서를 써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이유에서다.

우선, 동의서를 구비했거나 동의서 없이도 일할 수 있는 아이들의 현실을 보자.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도가 낮기 때문에 취업 시 중노동과 저임금 및 임금체불에 곧바로 노출된다.

우선 근무 시간이 너무 많다. 근로기준법 상 연소자(만 18세 이하)의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단, 연소자가 동의하는 경우 해당지역 노동사무소에서 인가를 받고 8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연소자에게는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다. 그러나 아이들이 일하는 곳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주 1일 유급휴가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한 달에 두 번 쉬는 것이 거의 아이들이 일하는 곳의 관례다. 근로기준법 상 6일을 만근하면 주 1일의 유급휴일을 주게 되어있으며 한 달을 만근하면 1일의 유급 월차를 주게 되어있으나 휴일은커녕 그나마 쉬는 날은 무급으로 처리한다. 주유소, 중국집, 신문사가 대표적인 곳이다.

둘째 저임금과 임금체불문제다. 업주는 최저임금 수준에서 아이들의 시급을 계산한다. 대개 최저임금 선을 지킨다. 그러나 임금계산과 지불은 매우 부당하게 행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50%의 가산금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주들은 최저임금에 근무시간을 곱하는 것 외에 가산금액이나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아이들의 충동적이고 무책임한 행동 탓을 하며 그만 둔 후에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지급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유소와 중국집에 고용된 아이들의 현실을 예로 들어보겠다. 10시간 근무는 기본이다. 연장근무도 많고 야간근로도 많다. 휴일이 잘 보장되지 않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임금지급은 가산금액을 반영하지 않는다. 유급휴일은 지켜지지 않는다. 특히 중국집에서 일하는 아이들은 크고 작은 사고가 난다. 오토바이로 배달하기 때문인데 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처리가 되는 경우가 없다. 그나마 사고처리와 치료비를 업주가 부담해 주는 곳이 있다면 참으로 양심적인 경우다.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라든지 사고처리 비용 중 일정 금액을 분담시킨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다. 엄연히 근로기준법 상에는 자신의 부주의로 다친 경우라도 일과 관련된 사고나 질병은 사업주가 치료비를 부담하고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 장애후유증에 대한 보상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이런 현실로 인해 아이들은 잦은 이직을 하며 쉽게 지쳐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4. 검정고시

아이들의 욕구 중 빼놓을 수 없는 게 학력취득에 대한 욕구다. 이는 배움에 대한 욕구와는 차이가 있다. 학벌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적어도 고등학교는 나와야 한다는 걸 아이들은 몸소 체험한다. 일하는 곳에서 만나는 어른들에게, 또래 아이들에게, 매스컴에서 등등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며 따가운 시선을 받는다. 그래서 아이들은 학력취득, 구체적으로 고졸 졸업장을 취득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학교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다. 그냥 막연하게 나중에 여유가 되면 검정고시를 보겠다는 말만 할 뿐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본 기관의 강점으로 제시한 바 있는 현장중심적 접근방법(거리상담, 싸이트 거리상담, 해변거리상담, 이벤트 거리상담)은 배회, 가출청소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으며 그 청소년들 중 상당 수는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이거나 중단 직전에 있는 청소년들이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아이들의 구체적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전달하는데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방대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원협의체는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또한 구축해놓은 시스템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시스템 구축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본다.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협의체 구축방안 콜로퀴엄

- 청소년 수련관의 역할

조 혜 영 (서울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난나' 청소년사업팀장)

Ⅰ.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립목적과 운영개요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청소년 시설로서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하며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이며 현재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격적 주체이다. 서울시립 강북청소년수련관 '난나'는 '나는 나'라는 의미로 청소년들이 나의 소중함을 알고 스스로 존중하며 가꾸어 가는 나, 즐거운 활동 속에서 창조적 상상력을 키워 자신의 소질을 발견해 가는 나이다. '난나'에서는 청소년의 문화감수성을 키워나가는 문화예술체험활동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강북청소년 수련관의 운영목적과 시설현황, 현재운영중인 프로그램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운영목적

첫째, 청소년들이 '오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활동하는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성과 자질을 함양하고, 건강한 정신과 체력을 가꾸어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둘째,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하며 높은 문화감수성과 창조성을 길러주며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의 능력을 키워 민주시민으로의 자질을 키우도록 도와준다.

셋째,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가정과 지역사회를 통합하여 청소년들이 가정과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도록 도와준다.

넷째,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체육,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주민 편의시설로의 역할을 도모한다.

2. 시설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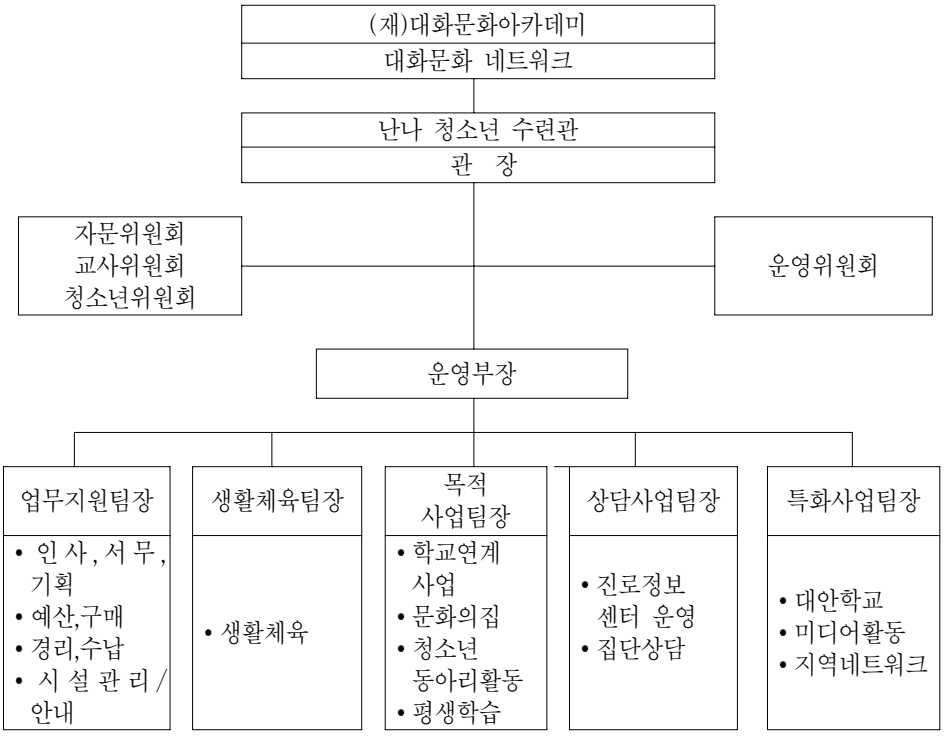
가. 시설개요

- 소재지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산20-9호외 5필지
- 규 모 : 지하2층, 지상3층

나. 주요시설현황

층 별	시 설
지상 3층	청소년 문화의 집, 예절실, 상담실
지상 2층	강의실, 어학실습실, 컴퓨터 실습실, 음악실 자치활동실
지상 1층	헬스장, 사무실, 체육관, 관장실, 회의실
지하 1층	청소년 극장, 식당, 미술실, 꼬마스포츠단
지하 2층	수영장, 기계실, 전기실

3. 조직 및 인력현황



4. 청소년 사업

가. 문화감성활동

문화감수성과 수용력을 키워줌으로 해서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의 문화를 만들고 정체성을 키워나가도록 하는 한편 개인간, 가족간, 세대간의 문화공감대를 확산하여 가족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공동체의식을 높인다.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자발적 참여 동아리를 유치하거나 모집하여 수련관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한다. 사이버 동아리, 매체 제작·비평 동아리(신문, 방송, 잡지), 문화예술동아리(영화감상, 영화제작, 연주,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춤, 보컬) 전통문화동아리(사물, 전통공예) 등

· 체험활동

주말 및 방학기간을 이용한 테마체험활동으로 수련관 인근지역, 또는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탐사·조사하는 체험활동, 가족들과 함께 하는 활동. 테마 체험활동, 사회체험, 직업체험, 문화답사, 자연체험, 먹거리 체험,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 체험활동, 가족캠프, 청소년 환경활동 등

· 청소년 문화교실

방과후 청소년을 위한 문화교실로 외국어능력, 표현력, 어휘력 증진과 가치관 확립을 위한 문예교실, 정보사회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정보화 교실, 우리의 얼을 가꾸고 키워 나갈 각종 전통문화 교실

나. 대안 진로지도 사업

청소년들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이고 창조적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필요한 자기발견과 진로선택의 과정들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지원한다. 더 나아가 부모·교사·지역사회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심리적·물리적 환경을 조성한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진로정보센터와 연계사업으로 진행

○ 청소년 그룹활동 및 체험 위주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진행

○[아로]활용 프로그램

*[아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진로정보센터에서 개발한 진로지도용 CD-ROM 타이틀로 직업탐색, 적성검사, 학과정보 등 청손녀 진로교육을 함축 하고 있는 다면적인 교육자로이다.

○ 청소년, 부모, 교사에게 다양한 진로정보의 제공 -나는 나 답게 살고 싶다. 진로 탐색캠프, 직업체험 여행

○ 효과적인 청소년 진로지도를 위한 부모 및 교사교육 병행

○ 진로교육사업

-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대화의 시간 마련
- 직업체험 프로그램

○ 학교 연계사업

- 학교 상담실간의 의뢰체계 구축
- 중·고등학생 대상 성격, 진로 검사의 해석상담 프로그램
- 실업계 학생 대상 취업준비 프로그램 진행
- 탈학교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 진행

○ 지역사회 연계사업

- 공공기관, 사업장등을 중심으로 직업체험 프로그램 진행

○ 부모, 교사 교육 사업

- 자녀, 학생의 적성 및 성격이해를 돕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마련
- 청소년들과의 대화방법을 돕는 프로그램 마련
- 취업, 진학 정보 프로그램

다. 학교 연계 활동

지역사회 학교의 욕구를 반영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으로 학교단위로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 학교와 연계한 특활활동

학교현장의 욕구를 감안하여 프로그램을 제시 학교별로 특활활동 신청을 받아 운영함. 미디어 제작, 음반기획, 퓨전타악, 풍물, 도예, 천연염색, 직업체험, 연극놀이, 인형극제작, 스포츠클라이밍, 수영, 농구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생활체육활동

· **현장체험학습**

수련관 및 주변시설을 활용한 현장학습으로 학교단위로 신청을 받아 운영함
문화감수성 활동, 체육 특활활동, 북한산 오리엔티어링 등

· **특기적성활동**

방과후 활동으로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영상 제작, 밴드만들기, 연극놀이, 풍물, 수영, 검도, 농구, 스포츠클라이밍 등

· **간부수련회(리더십트레이닝)**

리더십트레이닝, 자기개발 훈련 등 청소년 지도자 교육

라. 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생활권 안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과 만남의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청소년 문화활동과 급변하는 사회의 각종 정보를 활용토록 함으로서 청소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적 기능의 청소년 문화시설이다.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문화활동서비스 제공 및 지역 청소년 문화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인터넷 카페
- 영화감상실(미니극장)
- 영상 / 음향 작업실
- 만남의 공간(Self Cafe)
- 이벤트 (공연장)

마. 청소년 캠프

· **문화예술 표현창작 캠프**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활동으로 연극, 춤, 영상 등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청소년들의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진로탐색캠프**

흥미, 적성검사, 직업탐색, 직업현장 견학 등 집중적인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캠프

· **청소년 동아리캠프**

난나수련관 동아리, 학교 동아리, 지역사회 청소년 동아리들과 함께 하는 캠프

· **부엉이 캠프**

수련관에서 영화도 보고 공동체 놀이도 즐기는 무박2일 캠프. 연중수시로 캠프가 열리며 학급강화캠프로 학급단위로 신청가능.

· **난나 청소년 캠프**

해양캠프, 스키캠프, 산악캠프 등 Out door 활동

바. 대안학교 - 난나 공연예술청소년아카데미

탈학교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로 문화예술 활동의 한 분야인 공연예술 장르를 통해서 자유로운 상상력과 적극적인 자기 표현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난나공연예술청소년아카데미]는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바깥에 있는 다양한 문화공간과 그 곳에서 벌어지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난나는 '나는 나'라는 의미로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스스로 존중하며 가꾸어 가는 나, 즐거운 활동 속에서 창조적 상상력을 키워 자신의 소질을 발견해 가는나'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

· **교육내용**

- 기본표현활동 : 발성, 춤, 연기
- 신체활동 : 몸수련, 생활체육 활동
- 공연예술체험 과정
- 상상력 개발을 위한 문화현장 체험활동
- 자립활동 :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기초활동
- 글 읽기를 통한 삶 읽기, 문화인류학 등 인문학 과정

- 문화감수성 활동 : 미술치료, 인형만들기, 미디어 및 영상제작
- 공동창작 뮤지컬 과정

사. 지역네트워크

지역내의 시민단체, 교사,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청소년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의 주체들간의 관계망을 형성하여 청소년 진로지도를 위한 지역공동체 (intermediary agent) 구성한다.

또한 강북지역은 현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 지역]으로 선정되어 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복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학교의 관계맺기, 교육지원사업등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아. 평생학습 활동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평생학습 활동이다. 프로그램의 전문화, 고급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욕구를 수용하고 최상의 교육을 제공한다.

- 정서・예능교실(음악교실, 기악교실)
- 사고력・자기표현 교실(동화연구, 글쓰기, 논술)
- 창의력 향상 교실(미술, 종이접기, 서예)
- 정보화・국제화 교실 (생활영어, 컴퓨터)

자. 생활체육 활동

스포츠의 대중화 생활화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심신단련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1) 수영교실

대상 및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시간대별 강습시간 편성, 지도

2) 헬스교실

유산소운동, 웨이트 트레이닝, 스트레칭 체조, 덤벨체조, 에어로빅, 트레이닝, 운동처방

3) 건강교실

각종 취미 체육활동을 통한 생활체육 전문성 배양. 농구, 배구 에어로빅, 배드민턴, 검도, 태권도, 발레, 유아체육, 탁구

4) 유아스포츠단 운영

재미있고 활기찬 체육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 더불어 함께 사는 훈련으로 고른 신체발달을 돕는다. 5~7세 유아스포츠단을 모집. 스포츠를 통한 유아교실 운영.

5. 주요사업계획

1) 대안학교 운영-서울시교육감 지정 대안교육 위탁기관운영

학교부적응 또는 중도탈락 위기의 청소년들을 위한 서울시교육감 지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한다.

난나 대안학교는 문화예술체험을 통한 건강한 가치관 확립 및 자아실현과 문화 감수성 개발 및 문화시민 양성, 다양한 방식으로 배움의 의지를 실현하여 상급 학교로의 진학을 돕는 대안적 학습방식을 실현한다.

2) 대안진로지도 사업의 확대

- 직업능력개발원 직업진로정보센터와 연계사업으로 진행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이고 창조적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필요한 자기발견과 진로선택의 과정들을 적극적으로 지도·육성하며, 더 나아가 부모, 교사, 지역사회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심리적·물리적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학교부적응 또는 중도탈락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학교와 대안교육 위탁 기관과 연계하는 대안교육 진로지도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멘토링 시스템 구축, 다양한 직업체험 현장을 연결한 인턴쉽 등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 한다.

3) 지역사회네트워크 활동의 강화

청소년 문제는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안에서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청소년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과제가 단순히 여가선용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교육과 복지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참여에 의한 네트워크는

지역에서의 청소년 교육을 중심으로 한 주민 참여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며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에게 질 높은 지역환경,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단위에서의 청소년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연계활동 강화, 청소년 포럼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4) 청소년자치활동 지원 및 강화

청소년들이 '오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활동하는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고 높은 문화감수성과 창조성을 길러준다.

댄스, 연극, 밴드 등 문화예술동아리, 풍물 등 전통문화동아리, 자원봉사동아리, 사이버동아리 등 참여동아리를 다양화하고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청소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수련관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5) 새문화와 교육네트워크 추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생태계'의 관계를 바로 잡아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공존과 상생의 새로운 대안인 '녹색화'를 기치로 새로운 청소년 문화를 중심으로 한 교육네트워크를 추진하여 대안사회에 대한 전망과 비젼을 세운다. 이를 위해 대화문화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대안교육포럼' '새문화와 청소년·교육네트워크 콜로키움'을 구성한다.

II. 서울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실태와 문제점

1. 청소년 시설현황

청소년 수련시설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된다.(청소년기본법) 서울시에는 현재 시립청소년수련관 11개소, 구립청소년수련관 8개소가 있다. 그리고 현재 시립청소년수련관 5개소와 구립청소년수련관 1개소가 공사중에 있다. 시립청소년수련관의 평균 연면적은 5,965㎡ 이고 평균이용정원은 1,246명이다. (2003. 6. 신경희-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보고서)

<표 1> 서울시립 및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수련관(19개)	청소년문화의 집(13개)	시립	구립
시립 : 11 구립 : 8	시립 : 4 구립 : 9	9	1
강북청소년수련관 구로청소년수련관 노원청소년수련관 동대문청소년수련관 목동청소년수련관 문래청소년수련관 보라매청소년수련관 서울청소년수련관 성북청소년수련관 수서청소년수련관 중랑청소년수련관	시립 4개소는 청소년수련관 시설내에 입지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청소녀정보문화센터 청소년종합상담실 근로청소년복지관 청소년쉼터(2)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녀자원봉사센터	청소년쉼터

2.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

· 민간위탁운영

현재 시립과 구립 19개 청소년수련관과 9개 청소년특화시설은 전부 민간단체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단체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련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3년 이후에는 재협약 심사과정을 거쳐 적격으로 인정받은 단체는 재위탁을 하게 된다.

· 재정

청소년수련관의 세입은 사업수입, 보조금, 사업외수입, 법인전입금, 후원 등으로 구성된다. 청소년수련관의 세입은 사업수입과 보조금이 총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수영장이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는 시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사업수입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1개 시립청소년수련관 중에서 현재 8개시설이 수영장이 있으며 수영장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경영상의 어려움으

로 2002년과 2003년 강북청소년수련관과 목동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3. 운영의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는(또는 극히 일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는 수익성과 공익성의 추구라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 재정기반의 약화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인원을 감축운영하고 수익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수익구조가 약한 청소년프로그램의 경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취약하게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청소년수련관 본연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명분뿐인 청소년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실적위주의 평가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서울시의 평가방식으로는 다양한 청소년의 욕구와 지역사회, 학교의 기대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질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사업의 전문성과 기획력을 고루 갖춘 전문인력의 배치와 양성 또한 절실하다.

III.참여와 자치를 위한 청소년시설과 지역교육네트워크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 수련관의 역할은 무엇이며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활동을 할 것인가가 고민의 관건이다. 그야말로 아이들 스스로 참여하여(참여와 자치) 건강하고 신나는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것인가에 수련관의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참여와 자치를 위한 청소년 수련관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방안 중에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청소년 수련관을 자리매김할 것이며 건강하고 신나는 수련관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지역네트워크를 위한 논의

청소년 수련관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내에서 뿌리내림이 중요하다. 정책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적 자원들 간의 생산적인 유대와 협력 이해조절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이 그것이다. 학교사회와의 활발한 연계활동,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청소년의 네트워크 만들기, 청소년을 위한 학부모와의 대화, 지역사회의 시민, 교육단체와

의 협력을 통한 궁극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지역주민 자치 네트워크 등 지역사회의 청소년을 위한 문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의 지식기반 산업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는 직업 및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은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청소년의 진로탐색은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안에서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청소년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과제가 단순히 여가선용과 복지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교육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 개혁을 포함해 학교의 안과 밖에서 청소년 문제 전반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부모, 교사, 청소년 아동 복지 단체를 비롯한 민간기구, 행정당국 그리고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단위의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

지역주민참여에 의한 네트워크는 지역에서의 청소년 문제를 중심으로 한 주민 참여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며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에게 질 높은 지역환경,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단위에서의 청소년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물론 각 단체의 입장, 교사와 학부모의 입장 등 다양한 관점의 차이를 보였으나 결론은 청소년의 진로탐색을 위해 지역 안에서 직업체험 현장을 개발하는 일, 진로문제를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것 등에 동의하였고 이를 위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는 느슨한 구조로 가는 것이 지역단체를 중심으로 했을 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2. 앞으로의 가능성

단위프로그램이 아닌 공통의 이슈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또한 청소년 수련관이 중심에 있는 지역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지역공동체의 동의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우선 큰 의의가 있다. 지역과 괴리된 혹은 독자적인 프로그램과 활동만으로는 지역에서의 뿌리내림이 어렵다. 작은 포럼을 통해 지역에서 수련관에 대한 어떠한 기대가 있는지 혹은 무엇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 수 있었고 수련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모든 기대를 떠안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와 함께 청소년을 위한 공통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것이다.

최근들어 '학교붕괴' '탈학교' 등의 표현으로 대변되듯이 학교교육의 문제는 그 심각성의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학교가 충족해주지 못하는 교육의 문제를 이제는 청소년 수련관 등 사회교육시설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대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 활동이 교육과

분리되서 생각할 수 없듯이 청소년 시설 또한 교육활동의 연장선에서 생각하여야 한다. 방과후 학습, 평생활동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의 교육활동은 '학교 밖 교육활동'의 한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학교안'에서 충족될 수 없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경험, 내용으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틈새교육'의 장을 열어갈 수 있다. 또한 중도에 학교를 그만둔 탈학교, 부등교 아이들, 또는 학교제도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많은 청소년들에게는 지역사회 내에서 숨통을 틔어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각 시설마다 여건과 능력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습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교육활동을 펼친다면 지역사회 내의 대안교육, 대안학습의 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안과 학교밖, 지역사회를 연결하여 우리 아이들의 진로와 미래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지역공동체와 함께 도와주는 일을 위해 노력하는 일은 지역사회와 청소년 수련관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이다.

Ⅳ. 공공자원(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한 도시형 대안학교 만들기

1. 한국에서의 도시형 대안학교는 어떻게 진화하고 있나?

1990년 이후 한국에서는 한 해에 약 7만 명의 중고생이 학교에서 중도탈락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해마다 약 15,000명 정도의 중고생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학교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또는 교우관계, 가정형편의 어려움 등으로 학교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이들 가운데 일부는 외국 이민이나, 유학 등 새로운 학업의 기회를 찾아가고 있지만 대부분은 아무런 준비 없이 학교를 떠난다는 것이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다는 계획이 있거나 혹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정보를 찾는 노력 끝에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학교가 싫고 힘들어서 자퇴하는 경향을 보인다.

서울시는 2001년 9월부터 대안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서울시내에 있는 탈학교 청소년들의 대안적인 학습공간들을 지원하고 연계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난나공연예술청소년아카데미, 스스로넷미디어스쿨, 도시속 작은학교 등 8개의 현장에서는 각각의 특성에 따른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1990년대 중반부터 청소년을 위한 주

말문화학교(따로 또 같이 만드는 학교), 가정학교(들꽃피는 학교), 방과후 공부방 형태의 대안학교, 야학을 중심으로 하는 대안학교 등 탈학교 또는 학교부적응 아이들을 위한 도시형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었다. 1990년대 후반 제도교육에 대한 비판과 탈학교 학생들이 증가로 대안학교에 대한 청소년과 학부모의 요구가 높아지자 간디학교, 푸른꿈 고등학교등 몇 개의 학교는 교육부의 특성화고등학교로 인정받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안학교로 탄생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 등 도시에는 학력인정을 받지 못하는 대안학교 활동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금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탈학교 직전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청 운영 대안학교 위탁교육과 대안교실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대안학교의 경우도 대안교육에 관심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교과를 운영한다기 보다는 중도탈락 위기의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때 2001년부터 서울시가 지원하는 대안교육센터 중심의 도시형 대안학교는 대안적인 학습공간을 연결하고(네트워크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원리를 실천하는 대안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2년부터 '학교중도탈락 청소년 정책'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여 공청회를 거쳐 2003년 6월 학교교육에 적응하기 어렵거나 소질, 적성을 개발하기 위해 특별한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대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안교육 확대 내실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학교 밖 대안교육기관에 학교수업 인정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가칭)' 설립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2. 난나문화예술체험학교 성장, 진화과정을 중심으로 한 도시형대안학교의 진화

서울시립강북청소년 수련관 '난나'에서는 2001년 9월 시범과정을 거쳐 지금 현재 '난나 공연예술청소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스스로넷 미디어 스쿨, 수서 디딤돌 학교와 더불어 서울시립 시설(공공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인가 도시형 대안학교이다. 난나학교는 공공시설을 활용한 대안학교의 학력인정 추진을 목표로 3년을 운영하였고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 지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몇 가지 행정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3년 대안학교 위탁교육 운영지침'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 '비영리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등 위탁교육기관 설립의 요건을 확대하였고 이를 토

대로 난나학교 또한 위탁교육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서울시립시설 이라는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한 제도교육현장이 아닌 민간에서의 첫 번째 학력인정 대안학교 운영이라는 성과 이외에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질, 적성을 개발하기 위해 특별한 교육을 희망하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라는 행정부처와 교육부처가 협의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대안학교에 대한 공공자금을 지원하고 행정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뜻에서 그 성과에 대한 기대 또한 높다. 교육재정은 서울시와 시교육청에서 공동부담하고 장학지도는 시교육청에서, 행정지원은 서울시에서 담당하며 교육내용은 학교가 책임을 지는 역할분담을 통해 한국형 차터스쿨의 모델이 성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도 가능하리라 본다.

난나학교는 '대안학교 위탁교육'을 추진하면서 학교이름을 '난나공연예술청소년 아카데미'에서 '난나문화예술체험학교'로 바꾸었다. 문화예술체험을 통한 건강한 가치관 확립 및 자아실현이라는 학교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아카데미'에서 '학교'라는 이름을 갖기로 한 것이다. 지금현재 난나학교는 학력인정 위탁교육기관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지만 앞으로 위탁교육이 아닌 명실상부한 도시형 대안학교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시설을 활용한 도시형 대안학교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지원 등 몇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첫 번째,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등 대안학교 운영이 가능한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것이다. 두 번째, 자기주도적 학습, 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네트워크 학습 개발 등 대안적 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한다.

세 번째, 대안교육 내용을 실천하고 아이들의 심리적으로 '돌봄'을 잘 할 수 있는 다기능적인 길잡이 교사의 확보이다.

결국 도시형 대안학교 설립의 조건을 완화하여 다양하고 특성화된 대안학교를 만들어 탈학교 아이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교육공간의 확보', '길잡이 교사에 대한 지원', '질 높은 대안교육과정의 개발'등을 위해 공공재원을 투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Ⅴ. 향후과제

1. 부적응 학생의 정의 및 대상에 관한 논의

1) 부적응 학생의 정의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학교 부적응의 유형을 임의로 나누어 본다면 학습부적응형, 정서 부적응형, 문제적 부적응형, 제도 부적응형 등이 있다고 본다.

① 학습부적응형 : 개인의 학업능력이 부족하여 공교육, 집단교육의 특성에 맞지 않아 학교 부적응을 하는 유형

② 정서 부적응형 : 왕따, 심리적인 문제, 가족간의 갈등 등으로 인한 학교부적응형

③ 문제적 부적응형 : 일탈행위로 인한 학교 부적응형

④ 제도 부적응형 : 집단교육의 특성이 개인의 학습태도 등과 맞지 않아 생기는 유형

2) 또한 이러한 유형으로 탈학교 하였다 하여도 탈학교 한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다. 자발적 자퇴냐, 외형적으로는 자발형이지만 내용적으로 퇴학이냐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이후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노력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2. 부적응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선방안

1) 대상에 관한 문제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대상을 놓고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것인가가 관건이다. 정서 부적응형의 경우에는 상담적 접근, 심리치료 등이 훨씬 많이 개입해야 할 경우도 있다. 그리고 문제적 부적응형의 경우에는 교육 뿐만 아니라 교정프로그램이 필요하기도 하다. 학교폭력, 가정폭력, 일탈행위 등으로 가출 혹은 반가출 상태인 아이들의 경우는 쉼터와 같은 보호프로그램과 사회봉사, 심리치료 등 대안적 교육프로그램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이다.

② 지난 95년 부터 도시형 대안학교의 첫출발인 '따로 또 같이 만드는 학교'와 현재 난나 공연예술 청소년 학교에서 만난 아이들을 볼 때 주류문화(제도권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주류문화에 속한다고 본다면)에서 벗어난 심리적인 갈등이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친다는걸 알 수 있었다. 특히 탈학교한 경우에는 자신과의 내면적 갈등,

가족과의 갈등(특히 몇몇의 학생의 경우 엄마 보다는 아버지 더 넓게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의 할머니 일가친척 등의 갈등을 힘들어하는 경우도 보았다.),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갈등으로 고민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탈학교, 부적응 학생 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논의가 심리적 혹은 상담적 접근의 방식과 대안적 프로그램의 방식에서 이 두가지를 적절히 소화할 수 있는 교육적 방식이 필요하다.

2) 교육내용에 관한 접근

① 교육가치와 철학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 할 것인가,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확인이 필요하다.

② 우선 다양한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대안학교의 논의가 활발히 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만한 교육프로그램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 교육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

③ 자신의 내면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고 싶은지를 고민할 수 있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직업적인 기능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당당하고 '나 답게' 살 수 있도록 세상을 보는 지혜와 삶의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④ 직업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기능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아이들을 위한 인문학과정, 미디어 교육, 음악 교육, 체육활동등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⑤ 여러 대안학교와 대안교육현장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교육내용과 정보, 운영의 노하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협력관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다양한 현장에서 폭넓게 배울 수 있도록 호환프로그램도 가능하다고 본다.

⑥ 대안교육의 국제 협력 및 교류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국제경쟁력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여 내용적, 인적교류를 활발하게 하여야 한다.

⑦ 평가와 기록의 방식에 관해 고민하고 연구하여야 한다. 대안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서술식 평가, 주관식 평가 방식이 쓰여지고 있거나 여전히 단순화된 개괄식, 수량화된 평가방식을 쓰고 있다. 이는 상당수가 교사들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다양하고 객관성을 담보한 평가방식이 개발되어 아이들의 성장과정을 충분히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3) 교육제도에 관한 접근

① 현행 교육제도에서는 부적응 또는 탈학교 아이들을 위한 학력인증을 위한 시스템이 부재한 현실이다. 대안교육 프로그램이 그야말로 대안적이 되려면 학력인증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증시스템이 필요하다. 자격증, 디플로마, 라이센스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자격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② 이러한 인증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노동부 등과 협력하여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하다. 대안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노동현장에 취업하였을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4) 교사교육에 관한 접근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처럼 특히 대안교육프로그램의 경우 교사의 질과 풍부한 경험, 내용성에 바탕을 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별학습, 맞춤교육등으로 대변되는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양질(?)의 교사 수급이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보여진다. 이를 위해서는 공신력있는 기관과 대안교육현장이 협력하여 대안교육 교사교육과 현재 대안교육프로그램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의 교사들을 위한 재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5) 도시형 대안학교의 운영시스템 마련

다양한 유형의 탈학교 아이들의 관심에 맞는 대안학교를 추천해주고 제도개선, 교육과정, 교사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① 탈학교 아이들의 학습과 진로에 맞는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을 한 상담 또는 진로지도를 위한 종합센터가 필요하다.

② 청소년 시설을 활용한 대안학교의 경우는 기본적인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다양한 유형의 도시형 대안학교모델을 개발하여야한다.

③ 대안교육현장을 평가/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 또는 기구가 필요하다.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교사, 운영 전반에 걸친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현장평가, 심의하고 그 자료를 공개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④ 제도적 지원을 위한 운영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다양한 유형의 대안학교의 개발과 학력인정, 대안교육과정개발, 교사교육 등의 교육과정과 내용, 운영에 관한 제도적 지원, 법제화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 대안교육현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⑤ 대안교육현장의 자율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대안학교가 활성화되어 다양한 학습자들에게 특화된 교육내용을 제공함과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교육현장, 대안학교 스스로의 자율장치가 있어야한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심으로 한 대안학교 발전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다. 이제 교육은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과 연계하여 또는 학교 밖에서도 이루어져야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다. 학교 밖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교육내용,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대안교육은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운영자, 교사를 위한 것도 교육행정가의 몫이 아니고 교육의 당사자인 아이들이어야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협의체 구축방안 콜로퀴엄

- 대안교육센타의 역할

김 찬 호 (서울시대안교육센터 부센터장)

1. 설립목적

서울시는 1999년 특화시설이라는 범주를 설정하여 대안 학습과 문화 활동을 접목시켜 집중적으로 실험하는 공간을 운영해왔다. 그리고 2001년부터 서울시대안교육센터를 설립하여 5개의 수련관과 3개의 민간 학교에서 '도시형 대안학교'를 인큐베이팅해 왔다. 서울시가 '대안교육'이라는 이름을 걸고 청소년 정책의 영역을 확대한 목적은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을 위해 학습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서울시대안교육센터는 그러한 대안학습 공간들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연계하여 명실 공히 탈학교 10대들이 스스로 '자기 길 찾기'를 해내고, 배움의 즐거움을 아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다. 먼저 이 사업이 출범하고 추진되는 상황을 짚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가) 청소년 수련관의 공공성 위기

1990년대에 접어들어 청소년 정책이 '보호'에서 '육성'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서울시는 청소년들이 학교 바깥에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가운데 핵심을 이루는 것이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었다. '1구(區) 1수련관'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이 정책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청소년 육성 정책의 귀중한 범례를 이루면서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청소년 수련관이 그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이 별로 찾아오지 않는 현상이 점점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청소년 공간이 초등학생의 과외 학원 또는 주부를 위한 일반 지역 문화센터로 전락하게 되면서, 청소년 정책의 근본적인 기조가 의문시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육성'이라는 공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 왔다.

(나) 방치된 학교 밖 청소년

다른 한편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몇 해 전부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대략 한 해에 전국 6만, 서울의 경우 1만 7천 명 정도가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하지는 않지만(청소년 인구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 청소년 인구 전체 속에서의 비율로 볼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그 원인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업 부적응으로, 결국 탈학교는 수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황폐화되는 학교 문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학교 바깥으로 튕겨져 나간다는 것이고, 또한 사회 역시 그들을 위해 아무 것도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학교 밖 청소년들은 외적인 규율에서 갑자기 풀려난 채 집안에 고립되어 무료한 시간을 보내거나 사이버 세계에 매몰되어 무의미하게 방황하기가 일쑤다. 또한 PC방 등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하기도 하고, 더러는 도시 곳곳을 배회하면서 집단 비행에 빠져들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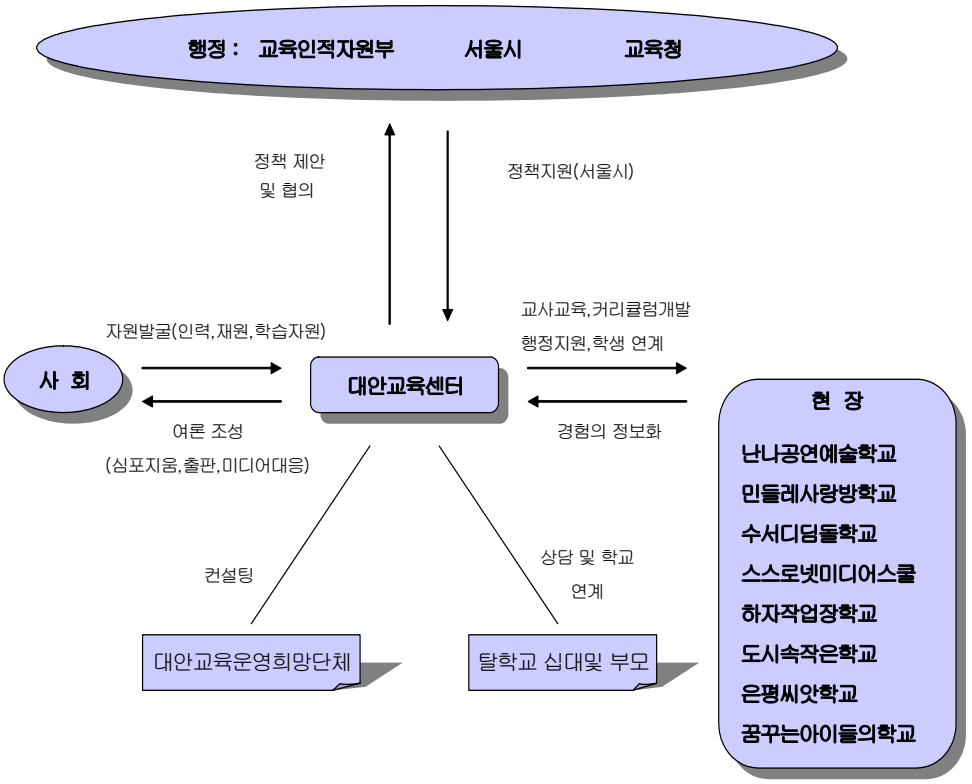
(다) 청소년 수련관의 재생 전략으로서 대안 교육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수련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시설의 공공성도 도모하고 탈학교 십대에게도 의미 있는 시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발상이 나왔다. 어차피 낮 시간에는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 있기 때문에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학교를 떠난 청소년은 수련관의 중요한 클라이언트로 부각된 것이다. 수련관에는 이미 시설과 인력 그리고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는 만큼 그 자원들을 유기적으로 엮어 활용한다면 저비용으로 긴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점이 중요하게 착안되었다.

이러한 대안교육 사업은 <청소년 = 학생>이라는 고정 관념을 벗어나 학교 밖 청소년을 의미 있는 존재로 인지하고 포착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제도 교육의 바깥에서도 사회적 공간과 안전망을 확보하고 거기에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교육청의 소관 바깥에 있는 청소년들을 사회적 탈락자로 만들지 않기 위한 또 다른 공교육의 과제로서, 지자체로서 매우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했다고 평가될 수 있다.

2. 추진체제 및 사업의 전개

서울시 대안교육센터의 사업은 아래와 같은 구도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대안교육센터의 사업은 3년 프로젝트로 출발하여 진행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기간은 인큐베이팅과 모델링을 통해 향후 도시형 대안학교의 확장 기반을 다지는데 사업의 초점이 놓여진다. 8개 현장은 그러한 작업의 파트너이자 실험실이다. 일차년도에는 사업의 기본틀을 구축하였고, 지난 2차년도에는 현장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서 상황의 윤곽을 파악하고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제 3차년도를 맞아 현장을 업그레이드하고 안착시키면서 그간의 성과를 체계화하는 해로 접어들었다. 그 흐름과 연도별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다.

1. 1차년도 : 2001년 사업의 기본 틀 구축

○ 지자체 차원의 청소년 정책과 교육 정책의 만남
○ 현장 선정 및 네트워크 체제 세팅 (시설 5, 민간 3)
○ 학교 밖 청소년의 존재 상황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

2. 2차년도 : 2002년 피드백을 통한 모델링

○ 현장의 유형화 시스템화
○ 학습 프로그램 R&P (인턴십, 문화 교육, 성교육, 여행)
○ 핵심 교사의 발굴 및 상호 소통 구조의 형성

3. 3차년도 : 2003년 업그레이드와 사업의 안착

○ 집중 인큐베이팅 : 현장 / 교사 / 십대 / 프로그램
○ 출판 : 유형별 사례 분석 및 의미화
○ 정책 제안 : 사업의 복제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 확보

3.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

가. 새로운 학교 체제의 구축

(1) 행정 지원

대안교육센터의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탈학교 청소년 정책 프로젝트의 일환이면서 구체적인 현장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서울시와 현장들 사이에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필요한데, 대안교육센터는 그 중간에서 고리 역할을 한다. 업무 연락, 예산의 작성 및 정산 등 사무적인 차원에서부터,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여 서울시나 의회에

정책을 제안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파이프 라인으로서 기능한다. 그리고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복지부 등 관련 기관들이 과제를 중심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매개자 역할을 수행한다.

(2) 신분 보장 및 학력(學歷) 시스템

지금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의 핵심인 신분 보장과 학력 인증 제도는 기존의 행정 절차만으로는 풀기 어렵기 때문에 그 해결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대안교육센터는 현장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학생증을 발급해줌으로써 사회적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학력 인증을 원하는 현장의 경우 교육청 등의 관련 기관과 함께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객관적인 학습 평가의 틀을 짜면서 체계적인 모델을 개발해가고 있다.

(3) 온라인 시스템

대안교육센터에서 생산하는 정보는 모두 온라인으로 공개된다. 그 시스템 속에는 교사 웍숍, 심포지엄, 학습 내용, 참고 자료 등이 체계적으로 정보화되고 수업 진행이나 자치 활동 등 각 현장의 움직임이 커뮤니티를 통해 드러나며 칼럼과 토론을 통해 사회적인 발언도 행해진다. 또한 온라인 학습이 실험되며 학적 관리 및 교무 행정도 그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다. 온라인 시스템은 대안 교육의 혜택을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나. 대안적 학습 모델링

(1) 커리큘럼 개발

대안 학교의 성패가 걸려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과 과정이다. 기존의 제도 교육과 차별화되는 내용과 형식으로 학습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커리큘럼은 한편으로 십대들의 요구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요구를 입체적으로 수용하면서 개발되어야 한다. 이미 몇몇 현장에서는 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대안교육센터는 이러한 작업을 함께 기획하고 또한 그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대안적인 커리큘럼을 모색한다.

(2) 사회 학습 자원의 발굴 및 연계

도시형 대안 학교의 핵심은 도시 내에 흩어져 있는 교육의 현장과 학습의 자원들을 충분하게 활용하는 시스템의 활성화에 있다. 대안교육센터에는 지금 5개의 시립 시설과 3개의 민간 현장이 정식으로 엮여 있지만, 앞으로 더 확대하여 지방의 기존 대안학교, 서울의 공립형 대안 학교 등과도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려 한다. 그리고 학습 자원 쪽으로도 지금은 대학, 문화센터, 기업, 동물원 등이 네트웍되어 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현장들로 판을 확대해나갈 것이다.

(3) 인턴십

탈학교 십대들에게 진로의 탐색은 매우 중요하면서 어려운 과제이다. 특히 대학 진학 대신 직업 현장으로 나아갈 경우 그에 대비한 능력 개발과 이후 가이드가 지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대안교육센터에서는 기업 쪽과 연계하여 직업 교육을 겸한 인턴십 코스를 개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상 선발, 교육 방법, 평가 원리, 취업으로의 연계 등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과 매뉴얼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것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재원을 확보하는 작업도 병행해갈 것이다.

(4) 교사 교육

커리큘럼과 함께 대안교육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바로 교사이다. 새로운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할뿐만 아니라 상담 및 진로 지도까지 청소년과 밀착하면서 그 삶에 깊이 관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사에게 폭넓은 자질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센터에서는 그러한 능력을 향상시켜 가는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한다. 대안교육의 다양한 사례에 대해 소개하는 강좌, 청소년의 삶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의 진단을 듣는 세미나,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교사들의 의견을 나누는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 사회적 담론 조성

(1) 심포지엄 및 포럼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대안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아직 지극히 일천하고 그 논의의 수준도 매우 초보적이다. 대안교육센터에서는 현장의 경험을 정보화하면서 연구 및 개발 성과를 널리 공유하고 확산하는데 힘쓸 것이다. 심포지엄을 통해 대안교육에

뜻을 둔 이들이 의견을 나누면서 공론을 형성할 수 있는 마당을 열고, 포럼의 형식으로 새롭게 요구되는 정책 과제를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다.

(2) 언론 홍보 및 출판

대안교육센터는 언론을 통한 담론의 생산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한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이나 행사 등을 기사화 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각종 매체에 기고하거나 인터뷰 형식으로 제언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현장에 기반을 둔 연구 성과들을 출판물로 정리하여 내어놓음으로써 대안 교육에 대한 담론의 체계화에 기여할 것이다.

(3) 공동 행사

8개 현장은 저마다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비전을 공유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들 사이의 일상적인 네트워킹 이외에 특정 이벤트를 계기로 함께 모여 일체감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안교육센터에서는 일년에 두 차례 정도 현장의 십대들이 모여서 축제나 캠프 등의 행사를 벌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그것은 각 현장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드러내면서 공동체적 유대감을 다지는 자리가 된다.

4. 설립목적에 비추어 본 기관의 강점과 약점

(1) 민의 정신으로 관의 사업을 수행한다.

대안교육 사업은 시장 원리에 맡길 수 없는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관료제의 틀로는 풀어내기 어려운 과제다. 청소년의 삶과 현실에 밀착하여 과제를 개발하고 일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안교육의 현장들이 기본적으로 민간 조직의 마인드와 풍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 기구가 직접 상대하여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a많이 따른다. 대안교육센터는 그 중간에서 행정의 관료성을 완충하고 민간의 거칠음(?)을 보완하는 매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공사업의 책임성과 민간의 활력을 조화롭게 양립시키면서 청소년의 학습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센터의 소임이다.

(2) 대학의 전문성과 인적 자원 활용

서울시의 정책 사업을 연세대학교(청년문화연구원)라는 민간 기구가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사회가 점점 다원화되고 특히 청소년의 급변하는 상황과 정서를 날카롭게 포착하면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대학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은 매우 유용하다. 그리고 대학이 지니고 있는 풍부한 인적 자원을 대안학교로 연계하는 면에서도 센터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장과 부센터장이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대안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수업에 연계해서 관심 있는 대학생들을 발굴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업에 필요한 연구와 성과 정리에 대학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크게 도움이 된다.

(3) 권한과 책임의 문제

대안교육센터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체제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네트워크'는 추상적 개념으로는 많이 정착되었지만, 실행 원리로는 아직 매우 생소한 편이다. 조직의 경계를 넘어서 유연하게 소통하면서 협동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대안교육센터는 사업 예산 전체를 통괄하기 때문에 각 현장에서는 어떤 권력을 가진 상부 기관으로 체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현장은 자율성을 갖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일이 원만하게 돌아갈 때는 그러한 구조가 바람직하지만, 갈등 상황에서는 책임의 소재가 모호해지는 폐단이 있다. 각 현장이 부딪히는 문제들에 센터는 어디까지 개입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인지가 애매하고, 각 학교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면서도 인사권은 갖고 있지 못한 것 등이 그것이다. 그래서 만일 수련관에서 사업을 소홀하게 수행한다든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경우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

(4) 센터의 역할에 대한 기대치의 조정

센터의 역할에 대해 센터 멤버들이 생각하는 것과 각 현장들이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일정한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센터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전망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축적하려는 쪽에 방점을 두는 반면, 현장들은 아무래도 당장 부딪힌 과제나 예산 부족 등을 푸는데 더 주안점을 두기 마련이다. 그러나 센터 입장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기가 어렵고, 또한 현장 이외에도 여러 '클라이언트'와 일거리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상호 적응하면서 그것을 좁히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

5. 지원협의체의 운영을 위한 제안

앞으로 지원협의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탈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 교육의 틀과 내용을 어떻게 확보해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서 각별히 유념해야 할 점은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다양한 스펙트럼이다. 따라서 학습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상담의 기능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생활 세계에 대한 규명, 현재 지적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장단기적 학습의 목표치 설정 등에서 체계적인 분석의 틀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인턴십을 통해 사회 진출로 연결되는 경로들을 다양하게 모델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상담과 학습과 진로 모색이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면서 개별 청소년들의 자기 길 찾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스템과 매뉴얼이 구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학교를 떠난 많은 아이들이 상당히 낮은 지적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반면에 기존의 학교 체제가 자기의 독특한 학습 욕구를 도저히 수용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학교를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후자의 청소년들을 통해서 새로운 학습의 유형을 창출할 수 있고, 그것은 '전혀 다른' 학습을 원하는 학업 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더 나아가 그것은 기존의 학교 교육의 틀을 바꿔 가는데도 참고가 될 수 있다. 학업 중단 청소년을 위한 대안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의 안팎을 가로지르며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구현하는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편성 지원 및 연구 개발 기능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2002년 5월에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중도탈락청소년지원협의체'의 구성에는 그 기능이 정보의 종합 관리 기능과 병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두 기능이 적절하게 분리되어 각각에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팀워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구성이 뒷받침되어야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

둘째,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대안학교 나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학력 인정이 핵심적인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학력인정 방안은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개별 프로그램에 학점을 부여해 학점은행제로 연결하는 방안과, 커리큘럼 및 평가 방안 등의 측면에서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학력인정 학교로 허가하는 방안, 일반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일정 기간(1-2년) 위탁교육을 받은 다음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도록 하는 방안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어느 방법이 어느 기관의 사례에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연구 및 해당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 모든 경우에 제 7차 교육과정의 이수단위 및 이

수교과의 내용을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특성화학교 혹은 자율학교 운영 관련 법안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대안 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의 기본 취지를 고려해 다양한 내용들을 학교 교과목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다양성의 전제가 되어야 할 기초 학력의 범위와 수준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하는 학적 관리 시스템도 대안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 원리를 정립하기 위한 학력 인정을 위한 커리큘럼 평가단의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안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법, 청소년 기본법, 노동법 등 관련 법률에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및 복지에 관한 조항들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협의하여 실행해야 한다. 여기에서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탈학교 청소년들을 떳떳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여 그들이 안정적으로 학습하고 직업세계로의 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신분 보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서울시 대안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서울시대안교육센터에서 학생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학생증을 이용해 교통카드를 발급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학생증의 기능이 사회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남학생들의 경우 대안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간동안 군복무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현재는 학력인정 학교의 학생들만 군복무 연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이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를 꺼리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경우 학업 지속 가능성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

넷째, 매우 거시적으로 구상되고 추진되는 정책인 만큼 단계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마다 독자성을 갖고 진행되어온 부처 및 기구들이 공통의 과제를 놓고 긴밀하게 네트워크하기 위해서는 그 매개 고리와 접점들을 구체적으로 발견하면서 역할 분담의 방식을 분명하게 세워가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원론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작은 단위의 실행을 통해 충분하게 인큐베이팅해야 한다. 거기에서 특히 정책과 청소년의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펼치는 정책일수록 미시적인 현상에 대한 감각이 결여되기 쉽고, 그 결과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또 다시 거대한 제도에 의해 '수용'되고 '선도'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가 일쑤다.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학교 바깥에서 편안하게 머물고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곳에 그들의 눈

길이 머물고 발길이 닿는가를 섬세하게 파악해야 한다.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역시 사람 그 자체가 아닌가 한다. 세계적으로 새로운 학교 체제 및 학습 원리를 실험하는 많은 시도들이 교사들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그들의 지속적인 연수 프로그램에 힘을 쏟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연수에는 상담만이 아니라 학습을 매개로 소통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다뤄져야 하고 거기에 담임교사와 강사들이 참여해야 한다. 그런 틀 속에서 상담이나 대안교육 프로그램 등에 종사하는 이들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그들의 자질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학업 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여러 현장들의 성공과 실패 경험이 충분하게 흡수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6. 프로그램 제안 : 학업 및 진로에 관한 정보 구축

탈학교 청소년이나 그 부모들은 진로 모색에서 대단히 곤혹스러움을 겪게 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대부분 학교가 싫어서 그만 두는 것이지 정말로 무엇을 하고 싶어서 그만 두는 것이 아닌 만큼 막상 학교 생활을 정리한 다음 무엇을 할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 입장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자녀가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는데 온 힘을 집중하다가 자퇴를 시키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이다. 곤혹스러움의 또 한가지 이유는 그러한 청소년이나 부모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정보 자체가 실제로 빈약하기 때문이다.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몇몇 대안학교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 탈학교 십대들을 위한 교육 정책이 급속하게 전환되는 가운데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보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정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를 벗어나고 나서 취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그것이 인터넷상으로 공개되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면, 탈학교 십대들을 위한 상담 창구에서도 기본적인 사실 정보를 설명하느라고 들이는 시간을 절약하고 그 만큼 실질적인 도움을 더 많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교를 떠나려 하는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탈학교 청소년들의 유형은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그들이 택할 수 있는 길도 대단히 다양하다. 대안학교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직업적인 기능을 익히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 체계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탈학교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개별 사례에 따라 매우 구체적으로 제공되어야 한

다. 그를 위해서는 이용자가 우선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부응하여 정보들을 찾아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영역으로 구성될 수 있다.

(가) 본인의 상황 (객관식 설문)

- 기본적인 사항 : 나이, 성별, 가족 관계, 경제 수준,
- 학습 능력 : 학교 다닐 때 과목 별 성적 수준 (중학교 이후 추이)
- 심 분야 : 가장 흥미를 갖고 있는 분야
- 학교를 그만 두게 된 동기
- 장차 진출하고 싶은 분야
- 적성 검사 : MBTI

(나) 선택 가능한 진로

- 대안학교 : 학력 인정 (특성화 고등학교) / 비인정
-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 방송통신고등학교
- 검정고시
- 노동부 인정 직업 훈련 코스

(나) 영역의 정보는 그 자체로 체계화되어 상세한 내용을 제공해준다. 그와 함께 (가) 영역과의 유기적인 상관 관계를 맺으면서 데이터베이스를 형성한다. 즉 (가) 영역에서 체크된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정보들이 우선 순위로 제시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처음부터 완결된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유형별 선호도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부록 2.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관계기관 워크샵(학업중단 청소년 지원대책 실행방안)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대책

이 경 복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장)

1. 추진 경과

우리나라에서 중·고등학교 과정 중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절차 없이 졸업하기 전에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은 최근 3년간 **한 해에 약 5만명(전체 중·고생의 1.5%)내외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학업중단 사례는 OECD 국가의 중도탈락률 평균 13% 수준에 비하면 다행하게도 훨씬 낮은 비율이기는 하나 **'학벌주의 팽배'**와 **'중도탈락 이후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라는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겠다.

학업중단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우리의 상황에서 학업중단 청소년 본인의 개인적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건전한 사회구성원과 노동력이 확보되지 못하며, 실업, 빈곤, 교정 등에 대한 더 많은 **사회 복지 비용의 지출**을 의미한다.

특히, 가족 해체 현상의 증가, 청소년 유해 환경 확대, **학교 부적응 학생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청소년의 학업중단은 더 이상 학생 개인 혹은 가정, 학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지속적 자기개발 및 계속교육기회 부여, 지역별 종합 지원 체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적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및 사회 적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2001년 12월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동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종합 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이 의결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총괄),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여성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등 8개 관련 부처와 2개 기관이 참여하여 정책을 협의하는 한편, '한국청

소년개발원' 및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종합 대책 수립을 위한 2건의 정책 연구를 통해 기본적인 방안을 수립하였고, 이어서 다양한 관련 전문가와 현장 교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종합 정책 시안을 마련하였으며, 나아가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종합상담실, 사회복지관, 서울시 대안교육센타 등 관련기관 등 대안교육이 이루어지는 기관을 방문하고 학부모, 교원단체 등 8개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공동 웍-샵,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현장 적합성과 실행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10개 부처(기관) 합동으로 마련된 종합 대책(안)을 2002년 5월 29일 인적자원개발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통과된 바 있다. 이후, 소관 부처별로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27일 그 동안의 추진 실적을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보고하였으며, 향후 다각적인 실행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며 이에 대한 대안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한다.

2. 그 동안의 학업중단 청소년 정책현황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문화관광부, 법무부, 행정자치부(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등은 각 관련 부처에서는 정책 영역에 따라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하여 직·간접적 형태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표1 참고), 정책 대상의 설정과 접근 방식의 차이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과 연계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면 첫째, 정부 부처, 학교 및 지역단위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기관간 연계 협력 체제가 없고, 둘째, 학업중단 청소년을 보호·수용하기 위한 시설 및 대안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하다. 즉, 각 부처별 정책이 재학생 또는 청소년 일반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직접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계속교육에 초점을 둔 시설 및 프로그램이 미흡하며, 대안교육의 경우 현행 대안학교의 수용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14교, 1,298명)하며, 특히 도시지역 및 소외계층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등 대안교육 수요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표 1.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사업 및 기관 현황 - 지역별 관련 기관·시설·인력을 중심으로 -

부 처		기관·시설	개소	관련법령	운영 방식	프로그램수 (내외)	수용인원	기간 (내외)	운영인력 (평균)	기능
청소년보호위원회			중앙점검단 및 지역별청소년대책협의회 운영							
교 육 부 (교육청)		대안학교	14	초·중등교육법 (특성화학교)	사립		1298	3년	15명	진학
		학력인정사회 교육시설	43	평생교육법	〃		26,382	3년	600명	진학
		학생교육원	28	자치단체조례	직영	5개	5600	5일	10명	수련
법무부		소년원학교	12	소년원법	직영		3,700		15명	비행
		소년분류심사원	9	〃	직영	5개	8177	5일	5명	비행분류
문화관광부		시도종합상담실	16	청소년기본법	직영,위탁	상담		일시	6명	상담
		시·군·구상담실	115	〃	〃	상담		일시	3명	상담
		청소년 쉼터	24	〃	〃		10명*	7-30일	5명	상담,수용
		수련시설	581	〃	위탁	2개	20-100명*	7일	15명	수련,교육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350	사회복지사업법	〃	2개	20-100명*	1개월	15명	복지,교육
		아동보호치료시설	6	〃	〃	5개	373	6개월	20명	치료
		아동직업훈련시설	5	〃	〃	10개	167	1년	10명	직업훈련
		아동상담소	39	〃	〃	상담	2084		3명	보호상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169	고용정책기본법	직영	안내			20명	취업
		인력은행	7	직업안정법	〃	안내			10명	취업
		직업전문학교	21	산업인력공단법	위탁	83	11000	1년	70명	진학,취업
여성부		보호시설	24	윤락행위등관계법	〃	4	673	6개월	5명	보호
자치 단체 사례	서울시	대안교육센터	8	사업	위탁	8개	20*	1-3년	10	대안교육
	서울시 교육청	청소년상담센터	12	자치단체조례	직영	상담	57314	일시	8명	상담
		푸른교실만들기	3	사업	위탁	2개	672명	5-10일	10명	적응교육
		대안교실	1	〃	〃	5개	1052	5-10일	10명	적응교육
		도시형대안학교	3	〃	〃		84	3년	10명	대안교육

*기관·시설 당 평균

3. 학업중단 청소년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

가. 기본 방향

학업중단 청소년 정책 방향의 출발은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그 후 현실적으로 원하는 그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자원의 소재를 파악하고, 원하는 그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고, 또한 그 무엇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며 나아가 학업중단 청소년 그리고 그들과 직접 관련된 기관 및 관련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이 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것인가에 있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기본 방향의 첫째,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하여 학교 밖에서도 현재의 상담을 포함한 보호·수용 정도의 서비스 수준을 넘어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계속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밖 대안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활성화가 요청된다. 구체적으로 정규학교와 대안학교, 대안교육 프로그램간의 상호 연계를 활성화하여 수업 인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프로그램간 연계·관리를 통해 학력 인정의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둘째,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원하는 것에 대하여 즉시 대응 지원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현황과 수요를 분석하고 이들이 원하는 인적, 물적,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자원간 네트웍을 구축하고 관련 기관간 참여와 협력 아래 거점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협력 지원 체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요청된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학교는 학생의 대안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위탁 확대, 지역 상담 자원 및 프로그램의 학교 내에서 활용 활성화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 관계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끝으로 학교는 예방 차원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흥미와 수준별 학습 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교실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참여적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함과 동시에 기본적으로 전 교원의 상담 역량을 강화하고 부적응 학생에 대한 심도있는 상담 지원과 함께 학교 밖 각종 청소년 지원 기관과 연결 고리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학교별 전문 상담 인력 배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나.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접근 방향

그 동안의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학교 차원에서의 예방 및 각종 청소년 관련 기관

의 개별적, 간접적 지원 정책의 수준을 넘어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속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을 이해하고 학교 밖에서도 지속적인 자기개발 및 계속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 지원 체제에 대한 필요성이 학교 및 각종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지원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 차원에서 지역의 각종 청소년 관련기관간 인력 및 프로그램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가칭)『학업중단청소년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지속적 지원과 함께 각종 지원 정책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현 행	향 후
• **개입시점**	사후지원	사전 조기개입
• **개입단위**	개별기관(시설), 부처별	지역사회 공동체, 부처간
• **개입범위**	학교중심	가정-학교-사회 연계 중심
• **접근방식**	심리치료적 접근	시스템적 접근
• **지원방식**	일시적, 간접적 지원	지속적, 직접적 지원
• **지원내용**	수용・보호	교육기회 제공
• **기대효과**	비행범죄 예방	인적자원개발

다. 지역단위 (가칭)『학업중단청소년지원협의회』구성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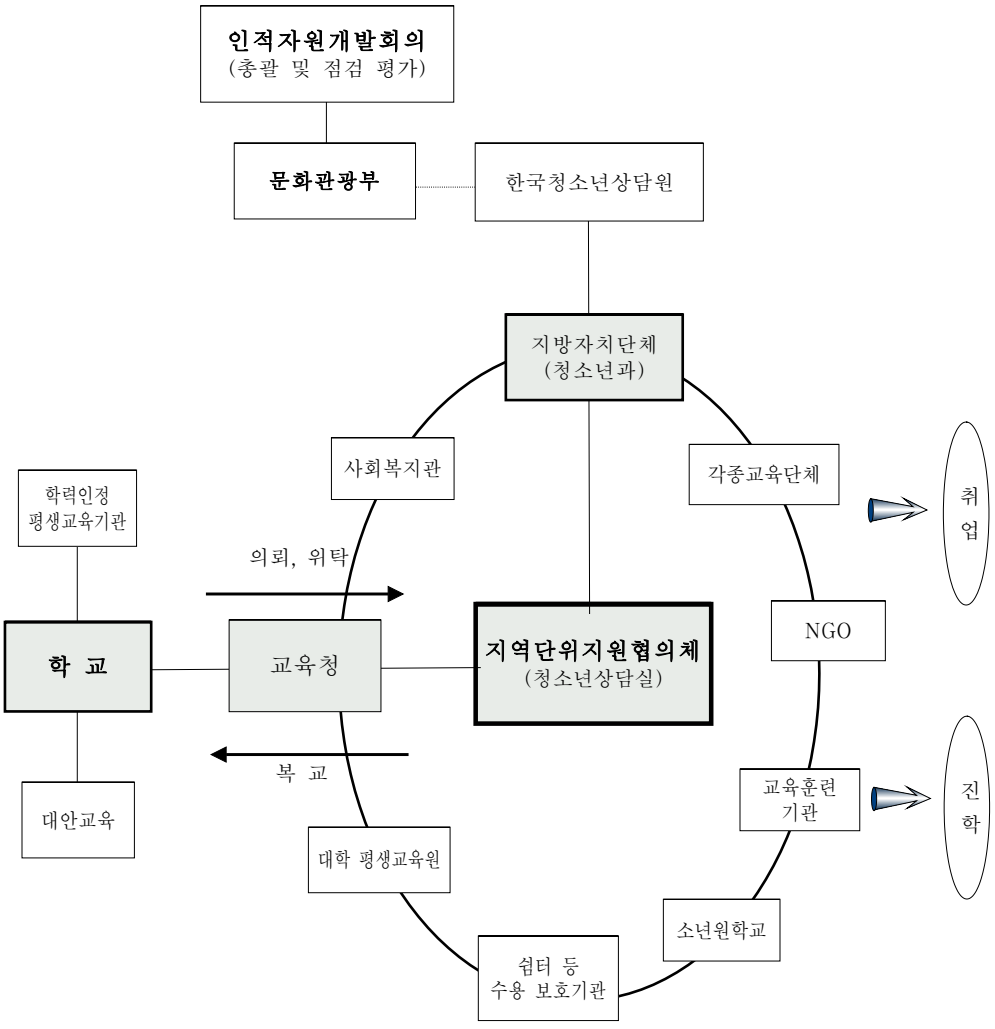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지원 단위**는 해당 청소년이 소재한 생활권 지역 단위, 즉 시・군・구 정도에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군・구 지역에 청소년 관련 지원 기관이 고르게 소재하지 않고 있는 현실 여건을 고려할 때 대안은 우선 시도단위로 자치단체 주관 하에 구성・운영하고 여건이 되는 대로 시・군・구에 확산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구성 절차는 지역별 학업중단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의 법률적 근거(청소년기본법 개정 등)를 바탕으로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세부적 운영 내용을 설정하고 협의회의 사무국에 해당하는 기능을 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소재한 청소년 관련 지원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며, 위탁을 받아 사무국 기능을 **주관 운영할 기관은** 지역별로 인지도와 사업성격, 전국적 기구 구성 현황 등을 감안할 때

‘청소년종합상담실’이 적합하다고 보아 종합 대책에 반영하였다.

협의체 **참여 기관은** 우선 현재 지역 단위별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각종 청소년보호 수용기관 및 상담기관 수련시설 등 청소년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편성한다. 구체적으로는 앞의 <표 1>에서 언급된 청소년쉼터, 상담실, 사회복지관, 청소년 수련시설, 직업훈련기관, 의료기관, 교육청 등 공공부문과 각종 민간의 대안교육 기관의 대표자 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체계도】



협의체의 **기능은**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종합 정보 제공 및 지속적 관리이며 협의회 정착 과정에 따라 제 1단계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 및 지역단위 지원 인력과 기관별 운영 프로그램 정보를 종합 관리로 대별할 수 있다.

- 지역별 시설, 인력, 프로그램 정보 종합관리(종합홈페이지 운영)
- 학교별 위탁 학생 상담 및 배치, 이동 및 학습과정 관리
-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인력자원 정보 종합관리
- 정기적으로 상담안내 정보 등 소식지 가정 발송

제1단계 기능이 우선적으로 정착 운영된 이후 제 2단계로는 학교의 수업 인정과 연계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하여 기관별 교육프로그램을 편성 지원하는 등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거점 관리 운영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기타 프로그램 개발·확산 및 운영자 공동 웍-샵 주관, 지역단위에서 청소년 지원과 관련한 one-stop서비스 창구 기능을 상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협의체당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3~4명의 전담 관리 인력 공동 웍-샵 운영비 등 재정지원은 필수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관리 체계는 16개 시도자치단체별로 청소년종합상담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에 대하여 한국청소년상담원이 관련자료 및 정보, 전국적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합 관리하고, 문화관광부를 통해 8개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보고·의결함으로서 다시 의결 사항이 해당 부처를 통해 지침의 형식으로 지역별 소관 기관에 전달되게 된다. 주요 참여 기관의 세부적 역할은 표 2와 같다

표 2. 협의회 참여 기관별 역할

기 관	역 할 (조치사항)
교 육 인적자원부	ㅇ **지역사회 대안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업인정 확대** -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여건 마련 → 정규대안학교와 기관별 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ㅇ **장기적으로 프로그램형 대안학교 설립 인정방안 마련** → 대안프로그램 평가인정기준 및 인정절차 마련
교 육 청	ㅇ **프로그램의 평가 및 지정(수업인정 확대 제도화)** ㅇ **학교현장의 운영 지원을 위한 지침 수립·운영** - 지역사회와 전담 협력창구로서 “종합상담실”을 지정·활용 - 상담·보호, 프로그램운영기관에 위탁 및 의뢰 절차 마련

기 관	역 할 (조치사항)
학 교	ㅇ **전문상담인력 배치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등)** - 학교부적응 학생의 심층 파악 및 조기개입 - 학교와 지역사회와 연계협력을 전담하는 창구 기능 ㅇ **부적응 및 학업중단 청소년 지역사회기관에 위탁·의뢰 정례화** - 중단전후 과정에 전문적 상담기회 부여를 위한 공식절차 마련 → 조기 개입 및 지속적 보호 지원 여건 마련 ㅇ **상담 인력 및 각종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 자원 적극 활용**
문화관광부 (한국청소년 상담원)	ㅇ **지원협의회 법적 제도적 근거마련(협의회 사무국 기능 포함)** ㅇ **청소년종합상담실의 종합발전방안 수립** - 지원협의회 운영 추가 인력 및 예산 확보 ㅇ **지원협의회 운영 메뉴얼 제작 보급** ㅇ **지역별 지원협의회 운영 상황 파악** - 인적자원개발회의 매년 정기보고 및 문제점 개선
종합상담실	ㅇ **지역별 학업중단청소년지원협의회 운영** ◆ 지역별 시설, 인력, 프로그램 정보 종합 관리 ◆ 학교별 위탁 학생 상담 및 배치, 이동 및 학습과정 관리 ◆ 프로그램별 특성화 개발유도 및 중복 등에 관한 협의조정 ◆ 학교, 교육청에 대하여 지역기관의 창구 역할 ◆ 참여기관의 공동 연수 개최 ㅇ **지역 대안교육프로그램 네트웍을 통한 거점관리 운영**
자치단체	ㅇ **지원협의회 운영 조례 제정** ㅇ **지역내 청소년기관의 협의회 참여를 위한 행·재정 지원**
관련부처 및 기관	ㅇ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확대개설 및 시설확충** ㅇ **지역별 지원협의회 참여** - 기관별 시설 및 인력, 프로그램 정보 제공 및 공유 - 프로그램의 특성화와 질적 수준 제고
청 소 년 보호위원회	ㅇ **청소년 성보호 및 가출청소년 보호** - 시설확충 및 프로그램 강화, 보호시설 정보공유 및 연대체제 구축

4.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위에서는 지역 단위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지원할 자원을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연계하고 동원할 것인가라는 방법과 체제 구축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장에서는 이러한 체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하며 지원하는 내용이 보다 더 학업중단 청소년의 수요에 맞추어 지원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언급하고자 한다.

가. 대안교육 기회의 확충

학업중단 청소년(잠재적 학업중단 학생 포함)들에게 새로운 학습 환경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동시에 학교에서는 현행 상담, 치료위주 단기과정에 대한 위탁 및 수업인정에서 장기적, 프로그램간 연계 과정 등에 대한 위탁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학력 인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정규학교 내에서의 대안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 학교에도 대안학급(대안교실),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대안학교에 적용되는 특례를 인정하고자 한다. 동시에 적어도 시·도별 공립대안학교 설치(경기 대명고 사례 : 2002. 3월 개교)를 통해 정규학교 - 대안학교 - 대안교육 프로그램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나아가 일정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여건을 갖춘 각종 대안 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대상으로 적어도 대안교육으로서 교육적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인정 과정을 거쳐 수업인정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적응 학생 및 기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복교 절차를 거쳐 원적교에 소속을 두고 각종 대안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 나아가 지역내 다양한 기관별로 운영되는 대안교육 프로그램간의 연계 과정 이수를 통해 학년·학기 수료 자격 또는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7월 대안교육 기관에 대한 학력인정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가칭)' 설립 등을 통한 『대안교육 기회의 확대·내실화 추진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기본방향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학생위탁 및 학교수업인정, 학력인정 대안학교(가칭)설립 추진, 공교육 차원의 대안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관계법령 정비 사항

○ '학력인정 대안학교(가칭)' 설립 관련

- 대안교육기관 등이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및 특례조항 신설[제60조의3(대안학교) 신설] 추진

☞ 초·중등교육법 개정시 각종학교에관한규칙,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등 기타 관련법령 검토

○ '대안학교설립·운영규정' 제정(시·도 조례)

- 대안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운영’ 관련

- ‘대안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정’ : 시·도 교육규칙 제정

표 3. 대안교육기관 학생위탁 및 수업인정 모형

□ 위탁 및 수업인정 현황

▸현행 학 교 + 대안교육시설(기관)

○ 폐교시설을 활용한 교육과정(1개월내) 위탁 및 수업인정

- 부적응학생 체험학습, 지역사회 문화교실강좌 개설 등

○ 사례 : 울산 두남학교(3주) 운영

□ 대안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의 수업인정 모형

▸예시 1. 학 교 + 단기상담··치료프로그램

○ 학교에 소속을 두고 대안교육시설에 위탁(원 소속교의 학력인정)

(학교 또는 대안학교에서 국민공통기본교과 이수 지원 병행)

※ 기 중퇴한 학생의 경우, 복학신청 및 적응과정 이수 후 복교 또는 대안 교육시설 위탁과정 선택

○ 사례 : 서울시 교육청의 3개 대안교육기관(학력인정평생교육기관) 지정 및 장기 대안교육과정 설치 및 위탁

▸예시 2. 학 교 + A+B+C+D+E··· 대안교육프로그램간 연계과정

• 예: A-단기상담과정, B-청소년수련시설, C-사회복지관…

○ 학교에 소속을 두고 프로그램간의 연계를 통한 교육과정에 장기 위탁

○ 참조사례 : 연세대 대안교육센타의 8개 프로그램(작업장) 연계 운영

※ 정규학교-대안학교-대안교육프로그램간의 연계운영 확대

※ 위탁학생의 국민공통기본교과 이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별로 교사 파견 및 순회교사(상담교사) 운영 방안 검토

나. 청소년 지원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선

지역 단위별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 쉼터, 각종 수련시설, 사회복지관, 교육과정상 체계가 잘 짜여진 소년원학교 및 분류심사원, 여성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각종 청소년 지원 기관의 시설을 확충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학업중단 청소년 수요를 반영하여 추가 개설하며 청소년종합상담실에서 운영하는 협의체를 거점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내실화해 나가야 한다.

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학업중단 청소년의 47.7%가 적성·진로·직업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요에 적합한 정책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임"('01. 경기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하여 노동부는 우선 예방 차원에서 청소년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강화하기 위하여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각급 학교 진로지도 교사의 현장연수를 통한 상담능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지역단위 지원협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및 훈련수요를 파악하여 지역별로 훈련규모, 훈련 직종을 편성해나가며 산업인력공단의 지역 훈련 기관별로 중도탈락 청소년의 훈련 수요에 따른 특별반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통신 및 문화산업 분야 청소년 일반 및 중퇴생 대상의 관심분야 및 취업 유망 분야의 훈련 직종을 확대하며 취업 유망 분야에 훈련 참여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동시에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맞춤훈련 활성화로 훈련과정 수료 후 즉시 재취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끝으로 직업훈련 참여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학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5. 부처별 과제 추진 현황

지난 11월 27일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보고한 관련 부처별 학업중단 청소년 종합대책 추진실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인적자원부>

□ 부적응 학생 지도 및 특기·적성교육 강화

○ 초등학교 3학년 기초 학력 진단 평가 실시, 보정교육 프로그램 보급

○ 선도 프로그램 이수 : '02년: 10,814명, '03년: 5,949명
○ 방과후 학교 시설 활용 연구학교 운영 : 96개 기관

□ 학교상담 운영 체제 혁신
○ 상담실 및 상담교사 확보 : 9,425개교(91.23%),
○ 전문상담교사 양성 : 2,202명('03년)
○ 사이버 상담망 구축 : 10,188교

□ 대안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 대안교육 활성화 지원 : 40억원,
○ 대안학교 신설, 위탁 교육 기관 수업 인정 등 법령 개정 추진

□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의 내실화 및 진로지도 강화
○ '04년 동일계 정원외(3%) 선발
○ 2005년 수능 직업 탐구 영역 정착
○ 공고 2+1체제 등

□ 여학생 진로지도 강화
○ 진로지도 지침서 보급 : 4,200부('03년)
○ 21세기 신직업박람회 개최 ('03.9월)

<문화관광부>

□ 지역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정책연구 실시 중
○ '04년도 연구개발사업비 7천만원 확보

□ 청소년 상담실, 쉼터, 수련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선
○ 상담실 신설·확대 : 125개 → 128개
○ 쉼터 지원 확대 : 12개 → 16개
○ 수련시설 확충 : 수련관 35개 건립중, 문화의집 6개 건립 중

□ 가정의 교육적 기능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확대
○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 6종
○ 부모교육 교수요원 양성 : 500여명
○ 캠페인 실시 : "1분이면 마음이 열립니다"
○ 지역 단위 부모교육 실시 - '02년 : 101,274명, '03년 : 68,352명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관 등 확충 및 프로그램 개선

○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58개 사회복지관 운영

○ 상담 및 교육, 사회성개발, 진로지도

<법무부>

□ 소년원학교 및 소년분류심사원 운영

○ 소년원학교 운영 : 총 13개교

○ 소년분류심사원 운영 : 5개원

○ 일반 학교와의 교사 교류

<여성부>

□ 중장기 선도보호시설 등 확충 및 프로그램 개선

○ 선도보호시설 확대 운영 : 24개('02년) → 26개('03년)

○ 현장상담센터 운영 : 7개소

<노동부>

□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추진

○ 직업 교육 강화 : 시범학교 210교 (106,979명)

○ 취업 유망 분야 훈련 확대 : 1,175명 ('03년)

○ 산업인력공단 직업훈련 : 1,233명 ('03년)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 성보호 및 가출청소년 보호

○ 대 국민 교육·홍보사업 : 홍보자료 6만부 보급 등

○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개소('03.9월)

○ 가출청소년토론회 개최, 가출예방 자료제작

<서울특별시>

□ 대안교육센터 운영

○ 대안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연세대)

- 청소년시설 5개소, 민간시설 3개소 운영 - 대안학습 모델링, 교사교육 실시

○ 대안교육 한마당 개최 : 39개 단체, 1,000명 개최

<서울시교육청>

□ 예방차원에서 학교교육 운영의 내실화, 대안교육 활성화

○ 학습부진아 교육 : 기초학력 - 7,350명, 교과학습 - 68,066명

○ 위탁형 대안학교(3교) 운영

○ 부적응학생 적응교육 : 청소년상담센터 등 6기관, 3,428명 실시

6. 맺음말

학업중단 청소년 종합 대책이 지역 단위에서 수월하게 정착되도록 하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단위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협의체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대안교육 시설 및 대안교육 기회의 확대가 필수 요건이다.

따라서 관련 부처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한편,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고 대안적 교육활동이 활성화되어 종합적으로 연계·운영될 때 이 종합 대책의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다.

끝으로 지역 단위의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 종합적 지원 체계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업중단 청소년 종합대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학업중단 청소년(학부모)은 학교 밖에서도 다양하고 지속적인 학습 기회 선택을 통해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학교는 지역사회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학생의 수요에 적합한 교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며, 지역단위 청소년 관련 지원기관은 안정적으로 고객을 확보하고 시설,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며 지역사회에 적합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는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청소년 정책의 효과성 및 국가 인적 자원의 총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과 대책

조 현 재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장)

Ⅰ. 한국청소년상담원을 학업중단 지원 중추 기관으로 선정・추진

지난 2002년 5월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결정된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및 사회 적응을 위한 종합 대책 수립이후, 문화관광부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소년상담 정책 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주관 기관**으로 하여,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문제점들이 파악**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과 세부 추진 계획이 연구**되었습니다. 오늘 청소년상담원에서 발표할 내용은 그 동안 관계 전문가 및 실무 담당자 간의 많은 논의와 협의를 거쳐 합의가 어느 정도 도출된 것으로서 사업의 전면적인 시행에 따른 시행 착오와 사회적 경비의 최소화를 위해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관광부에서는 학업중단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예산을 2003년도 및 2004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요구한 예산이 주로 **시・도 상담실의 전담 인력 확보와 운영 예산**(시・도당 1억원씩 총 16억원 국고 요구, 국고 상당의 지방비 부담)으로서 예산 당국의 이해를 얻기 어려워 반영되지 못한 것이 시범 사업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시범 사업을 거쳐 확대하는 것도 행정의 효율적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방안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준비 현황과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Ⅱ.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현황)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대책에 따르면 서비스의 범위가 청소년의 일상 생활권에 근거를 두어야 함으로 “지역별 **학업중단지원협의체의 구성을 법률(청소년기본법)에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세부적인 운영 내용을 설정**하고 **사무국은 청소년종합상담실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 당초 계획에 이러한

방향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부에서는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하는 기회(2003. 하반기)가 있어 동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의한바 있습니다만, 시·도 및 시·군·구 단위에는 지방 단위의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지방청소년위원회**(청소년기본법 개정안에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고, 실제 **지방 단위에는 무수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중 한국청소년**상담원의 기능에 「학업중단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지방청소년상담센터**(현재의 상담실)도 **운영 계획 수립시 「학업중단 청소년에 관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에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지방청소년상담센터에도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대책을 분담하도록 하였으므로, **법적 근거는 미비하나마 마련된 것으로 보고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지역내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일단 추진**하여 본 후 큰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현행 체제대로 추진하되,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하는 방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표 1. 청소년기본법 개정안 중 학업중단 관련 사항

※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은 2003. 12. 9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고, 12.16(화) 전체 회의에 상정 예정

제44조(한국청소년상담원의 설립) ①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8. 학업중단청소년 관련사업에 대한 지도 및 지원(신설) 제49조(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이하 “청소년종합상담센터”라 한다)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이하 “청소년상담센터”라 한다)를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종합상담센터와 청소년상담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상담
2.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상담 관련 자료수집 및 제공
5. 그 밖에 청소년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가 그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상담 관련 사항에 관하여 각각 한국청소년상담원 및 청소년종합상담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획에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관한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III.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관련 예산 확보 방안

학업중단 청소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상담실에 협의체**를 두고, 종합 정보 제공, 상담 및 배치, 이동 및 학습 과정 관리, 인력 자원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시·도 상담실별로 프로그램 개발·운영, 3-4명의 전담인력 지원 등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당초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2003년 및 2004년도 정부 예산에 인건비 및 협의체 운영비를 반영하고자 요구하였으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경직성 경비는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예산 당국의 방침**에 따라 계속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부에서는 2004년도에 시범 설치할 **학업중단 지원 체제를 단기간이라도 운영**하여 그 **결과를 분석, 2004. 4월까지 대책을 마련**, 2005년도 예산에는 가급적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의 방안으로 인건비를 국고 예산에 반영하기 보다는 **실제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기초 생활비, 교육비, 훈련비 및 부대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상담실별로 추가 확보가 불가피한 **인력 운영 예산은 지방비로 편성**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Ⅳ. 자치단체 단위로 단계별로 확충 예정인 종합 지원 시스템과 연계할 필요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는 청소년상담·자원봉사·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청소년의 일상 생활권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정책 지원 방식도 여러 기관·단체가 분산 지원하는 것보다 **일괄·연계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 및 시·군·구 단위에 활동 근거를 두고 있는 청소년상담실,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쉼터 등의 기능을 통합하여 단계적으로 **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조직, 복합지원 체제로 개편**하고, 각종 청소년활동 지원, 지도자 확보·운영 등을 추가하여 지역단위의 중추 지원 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시·도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 기능을 한군데로 통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위탁 단체간의 알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통합하여 일괄 지원 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지원 기능은 이러한 종합지원센터의 하나의 기능으로 분장**하여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판단하고 정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표 2.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주요조직 및 주요 기능

○ 하부조직으로 상담부, 자원봉사부, 가출청소년지원부, 청소년활동지원부 등으로 분야별로 부제 또는 팀제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표준 모델형을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업무 시행시에는 인력만 확충하는 방향으로 센터를 운영
○ 센터는 별도 법인으로 설치하거나, 비영리 민간 단체 지원법에 따라 민간 단체로 등록·운영하도록 하며, 주요기능으로는 자원봉사, 청소년상담, 취업, 직업훈련, 문화·수련프로그램, 지역단위 청소년활동, 정보서비스망 등 지역 단위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사항과 시·도 및 시·군·구에서 위탁·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Ⅴ.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대책도 종합적인 청소년 복지지원 체계의 틀에서 지원검토

현재 국회에서는 청소년관련 법률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등으로 되어 있던 청소년 관련 법률 체계를 **청소년기본법을 정점으로 하여 그 하위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의 체계로 구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의 인권 보장 및 복지 향상(할인 우대·청소년증 포함), 청소년의 건강 보장(체력 검사 및 건강 진단), **특별 지원 청소년 지원, 교육적 선도 지원** 등으로 하고 있는 바, **대부분의 규정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지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표 3. 청소년복지지원법안중 학업중단청소년 지원과 유사한 지원 사항

제15조(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기초적인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 활동지원 등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③ 제2항의 지원 내용,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특별지원청소년 대상자 결정)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특별지원청소년을 선정·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는 청소년기본법 제44조 및 제49조에 따라 각각 설치된 한국청소년상담원,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청소년상담원,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는 조사 및 상담을 실시하고, 청소년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청소년의 선정기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선도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행청소년의 교육적 선도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본인, 당해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선도지원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지원은 청소년상담사 등 전문가를 통한 상담과 교육·자원봉사·수련·체육·단체활동 등으로 하며, 그 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의한 선도기간 종료후 선도 결과를 분석하여, 선도지원 종료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선도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선도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 선정절차, 지원내용, 선도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시설 등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도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선도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선도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자교육등 선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사무의 위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의 사무를 청소년기본법 제44조에 의한 한국청소년상담원, 동법 제49조에 의한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 동법 제3조제8호에 의한 청소년단체 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선도 후견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0조에 의하여 위탁받은 단체는 선도지원 청소년 개인별로 후견인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후견인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및 동법 제29조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 등으로 위촉한다.

따라서 청소년복지법 제정에 따라 후속으로 제정될 청소년**복지법시행령 및 복지법시행규칙에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대책을 적극 반영**하여 **법적으로도 보장**되는 정책이 되도록 함으로써 **항구적인 지원 대책**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Ⅵ. 청소년상담사의 양성·배치 확대로 학업중단 지원 체계의 저변 확대

한국청소년상담원 주관으로 2003년도에 처음 실시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과 연수과정에서 상담전문가인 1급 107명과 준 전문가들인 2급 293명, 3급 284명 등 **총684 명의 청소년상담사가 배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자격증을 갖춘 전문 상담인력이 더욱더 많이 배출될 것입니다만 이들의 인적 구성을 보면 현직 교사들이 많습니다. 또한 현직 교사는 아니더라도 **청소년들과의 실제 상담 경험이 많은 현직 상담 전문인력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건이 하락하여, 실제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들 **전문 인력을 각 학교에 전일제 상담요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면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경상북도 교육청은 전일제 전문 상담교사를 선발·배치함으로써 학교 폭력 및 부적응 학생이 급감하는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또한 학교를 떠나려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들에 대한 1차적 및 2차적 개입을 위해서는, 현재의 비전임 학교 상담 체제보다는 좀 더 전문화되고 상담활동 자체에 좀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투자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접근과 상담이 용이한 **전문(전담)상담 체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체제가 학교 내에 마련된다면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체계와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시범 사업 기간 중 몇몇 학교에 전문 청소년 상담사를 배치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Ⅶ. 지역사회, 학교, 정부기관, 민간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조직체를 만든다 하더라도 실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첫째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정확한 중단 이유와 장래 희망, **바람직한 지원 방안이 무엇인가가 먼저 파악**되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관련 기관·단체에서는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행정 특성상 할거주의가 많고, 다른 기관·단체간의 협조가 비교적 어려운 실정, 특히 관련 예산의 확보 및 분배 문제에서는 많은 장애 요인이 있기도 한 현실로 인해 **청소년을 바람직하게 성장시키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대책에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시각을 버리고 함께 뭉쳐 한사람의 낙오자라도 구제하여 비행이나 범죄 청소년이 될 경우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할 인적·물적 비용을 고려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법무부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대책

송 화 숙 (법무부 소년제2과)

1. 소년범죄 현황

가. 학생범죄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자료(청소년백서, 2002)에 의하면 우리나라 12세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인구는 전체 인구에 비해 2000년도 3%에서 2001년도 2%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추이를 같이하여 12세 이상 20세 미만 청소년에 의한 범죄 또한 아래 표 1에서 보는바와 2001년까지는 전체 범죄의 6%대를 유지해 오다가 2002년도에 와서 5%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소년범죄 현황

(단위:명)

구분 / 연도	전체범죄	소년범죄	소년범죄점유율
1998	2,010,814	148,558	6.8%
1999	2,081,797	143,155	6.2%
2000	2,126,258	143,643	6.8%
2001	2,234,283	130,983	6.0%
2002	2,267,567	115,423	5.0%

* 자료출처 : 범죄백서(법무연수원), 범죄분석(대검찰청)

그러나 학생범죄를 살펴볼 때, 전체 소년범 가운데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도를 기준으로 1998년에 비해 2% 증가한 51.4% 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학생범죄 현황

(단위:명)

구분 / 연도	소년범죄	학생범범죄	학생범죄점유율
1998	148,558	73,338	49.4%
1999	143,155	69,445	48.5%
2000	143,643	74,148	51.6%
2001	130,983	64,528	49.2%
2002	115,423	59,376	51.4%

* 자료출처 : 범죄백서(법무연수원), 범죄분석(대검찰청)

나. 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원 수용인원 현황

전체 소년범 가운데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심리전 임시조치로써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소년법제18조제1항제3호) 소년은 연간 7.659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40%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소년분류심사원 수용인원 및 학생현황(2002)

[단위:명(%)]

구 분	연간 수용인원	학생인원	학생점유율
소년분류심사원	7,659	3,065	40%
소년원	2,415	464	19.2%

* 출처: 법무부 보호국 자료

한편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소년범 가운데 소년원 송치처분(소년법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을 받고 소년원에 수용되는 소년은 연간 2,415명이며 이 가운데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소년원 총 수용인원의 19.2%를 차지하고 있다.

2. 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원 운영현황

가. 소년분류심사원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소년범 가운데 판사가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의한 임시조치로써,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한 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각종 심리검사와 환경조사, 상담 등을 거쳐 비행원인에 대한 심층진단 및 종합적인 처우지침을 마련하여 법원에는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보호자 등에게는 처우지침 등 지도방향 제시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법무부 산하 국가기관이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전국에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않은 전주·청주·춘천·제주지역에서는 소년원에서 분류심사원 기능을 대행하고 있다. 위탁기간은 1개월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대략 25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에는 전문 분류심사관이 있어, 소년범에 대하여 면접조사, 표준화검사, 신체·의학적 진단, 행동관찰 등을 통하여 분류심사를 실시하고, 비행요인이 중대하고 문제해결이 용이하지 않은 소년에 대하여는 개인검사와 정신의학적 진단, 현지조사 등을 추가하여 심층적인 분류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학교·사회단체 등에서 의뢰한 소년의 각종 심리검사 및 진로상담으로 청소년 비행예방에도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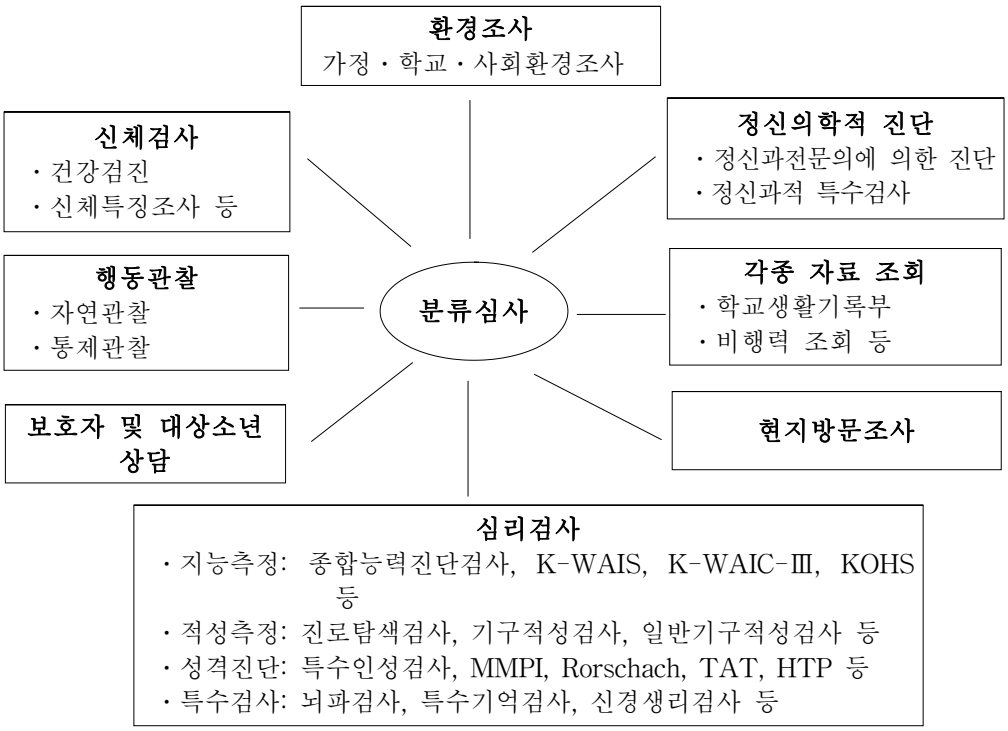


그림 1. 분류 심사 방법

이밖에도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청소년적성검사실을 운영하여 비행 청소년 지도의 풍부한 임상경험과 전문지식을 폭넓게 활용, 적성·진로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소년들의 자질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규명하여 특성에 맞는 진로지도 지침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반 중·고등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특별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가출·무단결석 등 일탈행동으로 비행문화 감염 초기에 있는 일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심리치료, 상담, 체험학습 등 단기집중식 교육 실시로 비행예방을 지원하고 있다.

검찰에 송치된 범죄소년 가운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소년과 기소유예 전 단계에 있는 범죄소년을 위한 특별교육과정도 개설하여 과학적인 심리검사와 체계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비행소년 선도교육의 실효성 제고와 재비행 예방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나. 소년원

소년원은 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범죄소년 가운데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 의해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처분을 받은 범죄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중·고등학교 특성화교육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체험적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는 법무부 산하 특수교육기관이다.

소년원은 전국에 13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보통신중·고등학교 2개, 정보통신학교 3개, 정보산업학교 5개, 예술종합학교 1개, 체육중·고등학교 1개, 인문계 중·고등학교 1개로 구성되어 있다. 약물남용 및 정신·발달장애자를 위한 의료소년원 기능은 대전소년분류심사원에서 병행하고 있다.

소년원은 1990년부터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규 중·고등학교로 운영되고 있으며, 따라서 소년원과 학교 명칭을 복수로 사용하고 있다. 각 소년원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과정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5. 소년원학교 명칭 및 교육과정

구 분		기 관 (학교명)	처우 과정	교 육 과 정	
특성화학교	정보통신학교	서울소년원 (고봉정보통신중·고교)	일반	·영어·중국어회화, 컴퓨터애니메이션, 경영정보, 멀티미디어정보통신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대구소년원 (읍내정보통신중·고교)	단기	·영어·일본어회화, 컴퓨터그래픽, 멀티미디어정보통신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전주소년원 (송천정보통신학교)	단기	중학교 교과교육	실용영어·일본어, 컴퓨터교육
		춘천소년원 (신촌정보통신학교)			실용영어·중국어, 컴퓨터교육
		충주소년원 (계명정보통신학교)			실용영어·일본어, 컴퓨터교육
	정보산업학교·직업능력개발훈련	부산소년원 (오륜정보산업학교)	일반	·실용영어·일본어, 컴퓨터교육 ·전산응용건축제도, 자동차정비, 전기용접, 선반·금형	
		광주소년원 (고룡정보산업학교)	일반	·실용영어·중국어, 컴퓨터교육 ·PC수리, 건축배관, 자동차정비, 특수용접	
		대전소년원 (원촌정보산업학교)	일반	·실용영어·중국어, 컴퓨터교육 ·컴퓨터산업디자인, 전산응용건축제도, 자동차정비, 전기용접, 전기공사, 헤어디자인	
		안양소년원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일반 단기	·실용영어·일본어, 컴퓨터교육 ·미용, 피부미용, 네일아트, 컴퓨터산업디자인 ·중학교 교과교육	
		제주소년원 (한길정보산업학교)	일반 단기	·실용영어·일본어, 컴퓨터교육 ·굴삭기운전, 지게차운전, 제과제빵 ·중학교 교과교육	
	체능교육	대덕소년원 (대산체육중·고등학교)	일반	·유도, 태권도, 복싱, 볼링, 씨름, 생활체육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예능교육	안산소년원 (안산예술종합학교)	일반	·연극영화, 실용음악, 창작미술, 영상사진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인문계 학 교		청주소년원 (미평중·고등학교)	일반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3. 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원의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추진 실적

가. 2002. 6월 이전

소년원은 1990년 소년원법 개정이후 소년원 학교화를 추진하여, 학교 재학중 소년원 입원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방지하고, 또한 소년원 퇴원 후에도 학교에 연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하였다. 즉 각급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학년초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원한 경우에는 상급학교에 입학시키고, 중도에 소년원에 입원한 학생은 학업을 중단한 연도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입원한 학생의 경우 동일학년에 전·편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년원 재원 중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전적학교장 명의의 졸업장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비행으로 인한 낙인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과정 이수 중에 소년원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전적학교에 편입학하거나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로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학업을 중단한 지 오래 경과된 학생은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이수하고 곧바로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소년원 학생들의 재비행 방지와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있다.

1999년 9월부터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맞게 소년원 교육과정을 혁신하였다. 종전에는 전국 소년원이 인문계 중심의 교과교육체제로 운영되었으나, 혁신이후 시대변화에 맞게 교육과정을 컴퓨터, 실용외국어, 예·체능, 특수교육 등으로 특성화하여,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 그리고 능력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직업능력개발은 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촉진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2000년이후 컴퓨터와 서비스업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종을 보강하여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나. 2002년 6월 이후

1) 소년분류심사원

그 동안에는 소년원에 수용된 학생 범죄소년에게만 학교교육의 혜택이 주어졌으나 2003년 2월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소년분류심사원 등 전국 5개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대안교육으로 인정하여 학교 재학 중 법원으로부터 위탁된 비행소년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의 출석일수 인정하였다(2003년 10월말 현재 1,497명이 출석인정)

또한 관할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전국 5개 소년분류심사원이 일반 중·고등학교 징계학생 특별교육기관으로 지정, 일반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진로·적성검사, 심리치료, 인성교육, 학교생활적응교육 등 4~6일 과정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비행초기 대응을 철저히 함으로써 비행을 방지하고 있다(2003. 10월 현재 741명 수료). 2002년도 분석에 의하면 특별교육을 이수한 학생의 90%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 것으로 자체 보고되고 있다.

2) 소년원

소년원 학생들의 실력과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해 2002년 9월부터 소년원학교와 일반 중·고등학교간 교사교류를 시작하였다. 소년원 학교교사가 일반학교 상담 및 생활지도를 지원하고, 일반학교 교사가 소년원 학교의 부족한 수학·과학 등의 일반과목을 지원함으로써 소년원 학생들의 기초실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전국 9개 기관에 일반학교 교사 13명, 소년원교사 3명 교류 수업).

4. 향후 추진 계획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소년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04년부터 직업능력개발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있는 3개 직업훈련소년원(부산, 광주, 대전)을 정규 학교로 전환, 학업연계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안교육 내실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개발비를 지원받아 소년원 및 소녀분류심사원 학생들의 교육을 보다 내실화하고, 일반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특별교육을 다양화하여 청소년 비행예방 및 학업중단 방지에 더욱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노동부의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대책

김 도 형 (노동부 훈련정책과)
임 경 식 (한국산업인력공단)

Ⅰ. 서 론

□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책은 학업중단 이후 이들이 사회에 신속히 적응하는데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그 지원 효과가 있다고 봄

□ 그와 같은 지원 대책은 각 부처 소관별로 수립, 추진될 것으로 보며, 노동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개부분에 의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대책을 소개하고자 함

Ⅱ.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책

1.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

가. 추진 배경

○ 청소년의 학업중단은 청소년 개인적으로는 계속교육의 기회 중단과 사회적으로는 일탈행위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손실 등의 문제점을 초래함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회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함

나. 주요 추진과제

○ 정책과제의 주요내용

- 지역단위 『학업중단청소년지원협의체』에 참여하여 학교 및 교육청으로부터 위탁되는 학업중단청소년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
- 학업중단 청소년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율 제고 및 훈련생관리를 감안하여 주간과정으로 특별반 운영

  ※ 교육청 및 각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 학업중단 청소년의 희망훈련직종이 다양하여 특별반 구성이 어려울 경우 훈련기관 자율적 운영

· 한편, 수시 발생하는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능사양성과정 연중 수시모집시 포함

※ 2003년도 기능사양성과정(6,870명)의 10%범위내에서 수시모집 예정

다. 세부 추진 내용

1) 산업인력공단의 직업훈련 지원

○ 현 황

- 훈련기관 : 산업인력공단 산하 21개직업전문학교
- 훈련과정 : 기능사양성1년과정(정규 및 수시과정)
- 훈련인원 : 6,870명

※ 비진학청소년 및 장기실업자 등과 혼합반으로 구성하여 국가기간산업분야 훈련실시

- 예　　산 : 기능사양성과정 '04예산(21,691백만원)에서 활용

○ 추진실적

- 산업인력공단의 2003년도 기능사양성훈련과정에 20세이하 학업중단 청소년 978명 참여

『학업중단청소년 기능사양성과정 참여현황('03.9)』

(단위 : 명)

구 분	정 원	입 학(A)	학업중단 청소년(B)	%(B/A)	비고
계	6,870	7,681	978	12.7	
기능사양성(정규)	6,300	6,849	809	11.8	3월 입학
기능사양성(수시)	570	832	169	20.3	연중 수시입학

※ 한국산업인력공단 순천직업전문학교의 경우 2003년도 훈련생모집시 학업중단 청소년 7,000명에게 직접 연락하여 70명을 모집, 훈련을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기능사양성과정의 수시과정 규모를 연차별로 확대하여 수시 발생하는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 참여기회 확대

2) 청소년 일반 및 중퇴생 대상의 관심분야 및 취업유망분야 훈련직종의 확대

○ 훈련현황

- 학업중단, 비진학청소년들을 고용촉진훈련, 정부위탁훈련, 취업유망분야훈련 등 실업자 훈련에 포함하여 훈련실시

※ 훈련참여 희망자는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 후 직업훈련 상담을 통해 적성에 맞는 훈련과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도

<'04년도 실시예정 청소년 관련 훈련과정>

(단위 : 명, 억원)

훈련유형	목표인원	예산(안)	대 상	비 고
계	40,000	1,528		
○ 취업유망훈련	15,000	450	신규실업자	취업유망직종 중심
○ 고용촉진훈련	13,000	175	취업보호 대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 정부위탁훈련	12,000	903	비진학청소년 등	생산직 관련직종 인력양성

○ 추진실적

- '02년도에 18세이하의 학업중단, 비진학청소년 중 총 5,613명이 실업자직업훈련에 참가(고용촉진훈련 3,614명, 정부위탁훈련 1,687명, 취업유망분야훈련 312명 등)
- '03년 9월 현재 18세이하의 학업중단, 비진학청소년 중 총 1,029명이 실업자직업훈련에 참가(고용촉진훈련 554명, 정부위탁훈련 412명, 취업유망분야훈련 63명 등)

○ 향후 추진계획

- 훈련기관 및 과정, 훈련일정 등을 사전에 지역단위 지원협의체에 안내·홍보하는 한편,

· 지역단위 협의체를 통하여 학업중단 청소년 명단을 확보, 개별 연락 등을 실시하여 이들의 훈련참여를 적극 유도

- 직업훈련 사전상담제를 강화하여 적성 및 수준에 맞는 훈련을 안내하고, 청소년에 적합한 훈련직종 발굴 및 확대 실시

· 훈련 희망자에 대해서는 훈련참여에 우선권이 부여되도록 관련지침에 명시

2. 연소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 추진 배경

○ 최근 청소년들의 자발적 일자리 찾기 분위기 확산과 학업 중도탈락자들의 생계형 아르바이트가 급증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조건 보호 필요성 대두

나. 주요 추진 과제

○ 정책과제의 주요내용

- 연소근로자 근로실태 조사
-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근로기준 이행실태지도 점검
- 연소근로자 근로기준안내 홍보책자 발간·배포

다. 세부 추진 내용

○ 연소근로자 근로실태조사서 작성 : '03. 1월-3월
○ 연소근로자 근로실태조사 : '03. 4월-6월
○ 연소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계획수립 : '03. 7월
○ 연소근로자 근로실태조사 결과보고 : '03. 8월
○ 연소근로자 근로기준안내 책자발간·배포 : '03. 7월

항 목	예 산	비 고
실태조사	29,738천원	
지도·점검	-	
홍보책자발간	32,000천원	

3. 예방차원에서 청소년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강화

▷ 학업중단 청소년의 47.7%가 적성·진로·직업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요에 적합한 정책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임('01. 경기대 사회과학연구소)

가. 진로지도 교사에 대한 직업교육 강화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각급 학교 진로지도 교사의 현장연수를 통한 상담능력 제고

나. 각급 학교의 직업지도 인식 제고

- 학교별 교육시간의 편성 운영을 통한 직업 및 진로지도

III. 결론 및 제언

□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책 중 계속교육의 기회 부여와 함께 사회적 일탈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으로 유인을 통한 기능인으로서의 진로제공이 바람직하다고 봄

□ 따라서 직업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 산하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 등 각종 훈련기관에서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 등에서 상담을 통해 훈련기관과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 또한 직업훈련기관은 정규학교와 유사한 학사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이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평가를 통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할 경우에는 고졸 학력을 인정하는 방안 도입 필요

부록 3. 설문지 (기관, 청소년)

<기관용 설문지>

조사 영역	조사내용	문항수
기관현황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설립연도 ▷상근자수 ▷기관특성 ▷기관의 주 사업분야 ▷운영주체 ▷정기간행물 유무 ▷소식지 발행유무 ▷설립목적 ▷연혁 ▷조직도 ▷직원체계 ▷자격증소지자 유무 ▷예산 ▷주요사업 ▷보유시설현황 ▷학교와의 연계사업	20
지원협의체 시범사업 인지 및 참여정도	▷인지도 ▷참여유무 ▷참여유무의 이유 ▷운영사업 ▷문제점	5
시범사업 참여가능성	▷참여가능성 자원 확인 ▷어려움	2
제언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부분	1

1) 연계기관용

1. 기관(시설, 단체) 현황

<table>
<tr><td>기 관 명</td><td colspan="5">(공식명칭)</td></tr>
<tr><td>소 재 지</td><td colspan="5">[-]</td></tr>
<tr><td>대표전화</td><td colspan="2"></td><td rowspan="2">홈페이지
주소</td><td colspan="2" rowspan="2"></td></tr>
<tr><td>팩 스</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설 립
년월일</td><td colspan="2" rowspan="2"></td><td>정규직상근자</td><td colspan="2">명</td></tr>
<tr><td>비정규직상근자</td><td colspan="2">명</td></tr>
<tr><td>기 관
특 성</td><td colspan="5">☐ ① 청소년상담실 ☐ ② 대안학교
☐ ③ 사회복지시설(이용, 입소) ☐ ④ 청소년수련관(시설)
☐ ⑤ 시민사회단체 ☐ ⑥ 사회복지단체
☐ ⑦ 직업전문학교 ☐ ⑧ 종교단체
☐ ⑨ 기타(자세히:)</td></tr>
<tr><td>기관의
주사업분야
(1~2개 선택)</td><td colspan="5">☐ ① 종합복지 ☐ ② 아동・청소년 ☐ ③ 가족
☐ ④ 장애인 ☐ ⑤ 지역사회 ☐ ⑥ 여성
☐ ⑦ 일반시민 ☐ ⑧ 기타(자세히:)</td></tr>
<tr><td>운 영
주 체</td><td colspan="5">☐ ① 학교법인 ☐ ② 사단법인 ☐ ③ 재단법인
☐ ④ 사회복지법인 ☐ ⑤ 신고시민사회단체
☐ ⑥ 미신고 시민사회단체 ☐ ⑦ 기타(자세히:)</td></tr>
<tr><td>기관홍보정기간행물</td><td colspan="2">☐ 유 ☐ 무</td><td>소식지발행</td><td colspan="2">☐ 유 ☐ 무</td></tr>
</table>

기관(시설, 단체)의 설립목적 및 연혁(간략히)

설립목적	
연 혁	

조직 및 직원 체계(직원현황 포함)

* 별지에 기재하여 주시고, 해당자료가 있으시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기관(시설, 단체)의 직원 중 아래분야의 전문 자격증 소지자 혹은 지도인력이 있는 경우 표시하여 주시고, 아래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직접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인 원	구 분	인 원
(1) 청소년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자	명	(2) 레크리에이션 진행자	명
(3) 심리상담 전문가	명	(4) 정서심리치료 전문가	명
(5) 미술치료 전문가	명	(6) 건강관련상담치료 전문가	명
(7) 성교육 전문가	명	(8) 특수교육 전문가	명
(9) 직업훈련 전문가	명	(10) 부모교육 전문가	명
(11) 스포츠 기능자	명	(12)	명
(13)	명	(14)	명

2003년도 기준 총 예산 규모 ( ) 만원

2003년도 주요사업 및 활동내용

* 별지에 기재하여 주시고, 해당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기관(시설,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고, 아래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직접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수용 인원	개소수	구 분	수용 인원	개소수
(1) 컴퓨터 교육실			(2) 강당 (소극장, 공연시설 포함)		
(3) 회의실			(4) 동아리 방		
(5) 음악 연습실			(6) 체육실(헬스장 포함)		
(7) 독서실(공부방 포함)			(8) 상담실		
(9) 식 당(급식소 포함)			(10) 탁아실		
(11) 직업훈련 및 실습실 (제과제빵, 미용, 요리 등)			(12)		
(13)			(14)		

귀 기관(시설, 단체)이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와 연계하고 있다면, 학교명과 연계사업(CA 활동, 방과후 특기적성교육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학교명(연계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 타 (유치원, 대학 등)		

2. 학업중단 청소년 사회적응 지원협의체 시범사업 인지 및 참여정도

1) 학업중단 청소년 사회적응 지원협의체 시범사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잘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잘 모르고 있다　⑤ 전혀 모르고 있다

3) 학업중단 청소년 사회적응 지원협의체 시범사업을 위한 연계체계(상담실, 대안학교, 수련관, 복지관, 쉼터, 직업전문학교 등)에 귀 기관(시설,단체)의 참여 여부에 대하여 아래 사항에 표기하거나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고 있다면 지원체계에 참여 표시와 참여 이유를 적어 주시고,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참여의사 유무와 불참 이유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 colspan="2">참여하고 있다</td><td colspan="2">참여하지 않고 있다</td></tr>
<tr><td colspan="2" rowspan="2">( )</td><td colspan="2">( )</td></tr>
<tr><td>향후참여
의사</td><td>유( ) 무( )</td></tr>
<tr><td>참여
이유</td><td></td><td>불참
이유</td><td></td></tr>
</table>

4) 2003년 현재 귀 기관 시설 단체가 학업중단 청소년 사회적응 지원협의체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1) 있다 ( ) (2) 없다 ( )

4-1)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있다면 아래에 프로그램이나 사업과 관련된 각 사항과 담당자에 관한 것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로 하나씩 기입하여 주시고, 부족시 복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또는 프로그램명 ( )

참가 인원수	모집방법	모집 대상	활동 장소	사업 기간 **(주 몇회)**	자 원 봉 사 자	
					인 원	내 용
		중/고				
소 요 예 산		기타 지역사회자원 활용 여부(구체적 기술)			대상 학교와의 의사소통 통로	
자체(천원) 지원(천원)					(1)지역사회교육전문가와 개별면담( ) (2)공식회의( ) (3)기타(자세히:)	

이 름	담당부서 및 직위	경력(년)	담당 역할	할당시간 (단위:일주일)	자격증 (신청사업관련)

(2) 사업 또는 프로그램명 ( )

참가 인원수	모집방법	모집 대상	활동 장소	사업 기간 **(주 몇회)**	자 원 봉 사 자	
					인 원	내 용
		중/고				
소 요 예 산		기타 지역사회자원 활용 여부(구체적 기술)			대상 학교와의 의사소통 통로	
자체(천원) 지원(천원)					(1)지역사회교육전문가와 개별면담( ) (2)공식회의( ) (3)기타(자세히:)	

이 름	담당부서 및 직위	경력(년)	담당 역할	할당시간 (단위:일주일)	자격증 (신청사업관련)

(3) 사업 또는 프로그램명 ( )

참가 인원수	모집방법	모집 대상	활동 장소	사업 기간 **(주 몇회)**	자 원 봉 사 자	
					인 원	내 용
		중/고				
소 요 예 산		기타 지역사회자원 활용 여부(구체적 기술)			대상 학교와의 의사소통 통로	
자체(천원) 지원(천원)					(1)지역사회교육전문가와 개별면담( ) (2)공식회의( ) (3)기타(자세히:)	

이 름	담당부서 및 직위	경력(년)	담당 역할	할당시간 (단위:일주일)	자격증 (신청사업관련)

4-2) 귀 기관(시설,단체)이 위에 기입한 사업(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나 개선되어져야 한다는 생각하는 사항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개 선 사 항
(1)	
(2)	
(3)	
(4)	
(5)	

3. 학업중단 청소년 사회적응 지원협의체 시범사업의 참여 가능성

1) 귀 기관(시설,단체)이 향후 학업중단 청소년 사회적응 지원협의체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확대하거나 참여하고자 한다면 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인적, 시설·공간, 프로그램 등)을 아래에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연 계 내 용	지원센타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
프로그램 (사업)		
인적 자원		
시설·공간		
기 타		

2) 귀 기관(시설,단체)이 평소 학교나 지역사회에 있는 다른 기관과 연계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다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 기관(시설,단체)은 학업중단 청소년 사회적응 지원협의체 시범사업(학교를 떠나려는 학생들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의 성공을 위하여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 사 합 니 다

<청소년용 설문지>

중퇴 청소년에 관한 질문지

(참고 : 경기도. 2001연구)

조사 영역	조사내용	문항 수
인구통계학적 특징	▷거주지 ▷성별 ▷중퇴시 학교유형 ▷중퇴시 학년	4
가정생활	▷경제적 수준 ▷동거가족 ▷친부모의 결혼상태 ▷부모의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중퇴가족 여부 ▷부모의 교육에 대한 기대수준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도 ▷부모의 자녀학교생활 이해도 ▷자녀진로에 대한 부모의 관심 ▷부모와의 대화에 대한 만족도	12
학교생활	▷중퇴시기/횟수 ▷전학이유 ▷학업성적 ▷처벌경험 ▷교사의 이해정도 ▷교사의 인정정도 ▷교사와의 관계 ▷교사와 학생에 대한 지각 ▷징계여부/종류/이유/횟수 ▷교사로부터 받은 대우의 정당성 ▷결석.지각.결과 횟수 ▷급우관계 ▷학교교육의 중요성 ▷학교교육의 유용성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	24
친구의 미래관, 대인관계, 중퇴여부	▷공부에 대한 열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관심 ▷부모와의 갈등정도 ▷또래와의 갈등정도 ▷교사와의 갈등정도 ▷미래에 대한 희망 ▷집/학교 밖에서 보내는 시간 ▷비행정도 ▷진로에 대한 진지함 ▷진로에 대한 계획의 구체성 ▷친로계획의 실현가능성 ▷진로계획 실현의 노력정도 ▷또래친구들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평가 ▷중도탈락한 친구수 ▷중도탈락친구에 대한 의견	17
개인생활	▷자기존중감 ▷자기유용감 ▷자기유능감 ▷가출여부 ▷미래진로에 대한 생각 ▷일탈행동의 정도(흡연, 음주, 약물사용, 폭력, 갈취, 음란물 시청, 성관계경험, 임신 경험)	20
지역사회 관련변인	▷거주지역에 대한 자부심 ▷거주지역내 청소년관련 시설 및 기관 인지도/이용도	4
중도탈락 관련상황	▷중도탈락 이유 ▷중도탈락 결정의 신중성 ▷중도탈락 최종결정자 ▷중도탈락에 대한 태도 ▷중도탈락 이후의 생활 ▷중도탈락 이후 거주장소 ▷중도탈락후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복학희망여부 ▷중도탈락 이후 원하는 지원 ▷희망하는 교육적 지원 ▷선호하는 정보수집 방법 ▷상담프로그램별 희망여부	25

Ⅰ. 당신 자신에 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거주지는 ? _____시/군 _____읍/면/구 _____동
2. 당신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3. 학교를 그만둔 지 얼마나 되었나요?
   ① 3개월 이하 ② 4개월-6개월 ③ 7-9개월 ④ 10-12개월 ⑤ 1년 이상
4. 학교를 그만 둘 때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었나요?
   ① 중학교 ② 인문계 고 ③ 실업계 고
   ④ 종합고등학교 인문계(대학진학반) ⑤ 종합고등학교 실업계(취업반)
5. 학교를 그만둘 때 몇 학년이었나?
   ① 중 1 ② 중2 ③ 중3 ④ 고1 ⑤ 고2 ⑥ 고3
6. 중퇴횟수 : 회
7. 학교를 그만두기 전 2년동안 전학을 간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Ⅱ-1번으로) ② 있다(8, 9번에 응답하세요)
8. 전학을 간 횟수는 몇 번 인가?
   ① 1번 ② 2번 ③ 3번 이상
9. 전학을 간 이유는?
   ① 이사하느라 ② 교우들과의 갈등때문 ③ 학교선생님과의 갈등때문
   ④ 성적때문 ⑤ 학교에서 전학갈 것을 권해서 ⑥ 부모님이 전학갈 것을 권해서
   ⑦ 친한 친구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싶어서
   ⑧ 그 학교에서는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없어서

Ⅱ. 당신 가족에 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당신이 학교를 그만 두기 전에 누구와 함께 살았습니까?
   ① 친부모 ② 친어머니+새아버지 ③ 친아버지+새어머니 ④ 할아버지, 할머니
   ⑤ 삼촌이나 이모, 고모 ⑥ 먼 친척 ⑦ 친척아닌 어른 ⑧ 형제나 자매끼리
   ⑨ 나 혼자 ⑩ 기타( )

2. 학교를 그만 두기 전에 가정의 경제수준은?
① 매우 어려웠다 ② 약간 어려웠다 ③ 약간 여유있었다 ④ 매우 여유있었다
3. 학교를 그만 두기 전에 부모님 사이는 어떠했다고 생각하나요?
① 매우 나빴다 ② 약간 나빴다 ③ 약간 좋았다 ④ 매우 좋았다
4. 당신이 학교를 다닐 때 부모님은 당신이 어디까지 공부하기를 원했나요?(하나만 고르세요)
① 중졸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전문대 졸업 ⑤ 4년제 대학 졸업 ⑥ 대학원 졸업
5. 학교를 다닐 때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의견을 어느 정도나 존중해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존중해 주지 않으셨다 ② 별로 존중해주지 않으셨다
③ 약간 존중해주셨다 ④ 많이 존중해 주셨다
6. 학교를 다닐 때 부모님이 당신의 학교생활(예, 학업이나 친구관계 등)을 어느정도 이해해주셨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이해해 주지 않으셨다 ② 별로 이해해주지 않으셨다
③ 약간 이해해주셨다 ④ 많이 이해해 주셨다
7. 학교를 다닐 때, 부모님과 함께 당신의 진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② 별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③ 가끔 대화를 나누었다다 ④ 자주 대화를 나눴다
8. 학교를 다닐 때, 부모님과 당신의 사이는 어떠했나요?
① 매우 나빴다 ② 약간 나빴다 ③ 약간 좋았다 ④ 매우 좋았다
9. 당신이 학교를 다닐 때, 당신과 부모님이 대화를 나누었던 방식에 대해서 당신은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② 약간 불만족스럽다 ③ 약간 만족스럽다 ④ 매우 만족한다
10. 가족중에 학교를 중퇴한 사람이 있습니까?
① 예(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② 아니오

III. 당신이 학교다닐때, 학교생활에 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학교를 그만 둘 때 당신의 학교성적은?
   ① 하위권 ② 중하위권 ③ 중상위권 ④ 상위권
2. 당신은 학교선생님에게 욕을 먹거나 매를 맞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거의 없음 ② 한학기에 3-4회 정도 ③ 한달에 2-3회 정도
   ④ 일주일에 2-3회 정도 ⑤ 하루에 한번 이상
3. 담임 선생님이 당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나요?
   ① 전혀 알지 못했다 ② 별로 알지 못했다 ③ 약간 알았다 ④ 잘 알았다
4. 당신은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얼마나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나요?
   ① 나를 전혀 인정해주지 않으셨다 ② 나를 별로 인정해주지 않으셨다
   ③ 나를 어느정도 인정해주셨다 ④ 나를 많이 인정해주셨다
5. 일반적으로 학교선생님들과 당신의 사이는?
   ① 매우 나빴다 ② 약간 나빴다 ③ 약간 좋았다 ④ 매우 좋았다
6. 담임선생님이 당신을 어떤 학생으로 보셨다고 생각합니까?(하나만)
   ① 모범생 ②평범한 학생 ③ 문제학생 ④ 나한테 별관심 없었다 ⑤ 모르겠다
7. 학교를 다녔던 마지막 1년 동안에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8. 징계의 종류는? (해당되는 것 모두 선택)
   ① 학교내 봉사 ② 사회봉사 ③특별교육 ④자퇴 ⑤ 퇴학(선도처분)
9. 징계 받은 이유는?
   ① 교칙위반 ② 무단결석 ③ 학교밖 비행 ④ 기타
10. 징계를 받은 전체 횟수는?
   ① 1번 ② 2-3번 ③ 4-5번 ④ 6번 이상
11.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얼마나 정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② 약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③ 약간 정당한 대우를 받았다 ④ 매우 정당한 대우를 받았다

12. 아래의 각 문항을 잘 읽고나서, 당신에게 해당하는 숫자에 하나 선택하세요.

학교를 그만두기 전 1년동안	전혀 안했다	거의 안했다	한달에 1-2번	일주일에 1-2번	일주일에 3번이상
학교에 가기 싫어서 일부러 결석한 적이 있다					
지각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수업을 빼먹은 적은 있었습니까?					

Ⅳ. 당신이 학교를 그만 두기 전에 어울렸던 친구들에 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당신이 학교를 다닐 때, 같은 반 아이들과의 관계는 어땠나요?
   ① 매우 나빴다 ② 약간 나빴다 ③ 약간 좋았다 ④ 매우 좋았다
2. 당신이 학교를 다닐 때, 같은 반 아이들이 당신을 얼마나 이해했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이해못했다 ② 별로 이해못했다 ③ 약간 이해했다
   ④ 매우 잘 이해하고 있었다

* 학교를 그만 두기 전 당신이 어울려 지내던 친구들은 어떤 아이들이었다고 생각합니까? 각 문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잘 나타내는 것을 하나 선택하여 체크하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 친구들은...	매우 낮다	약간 낮다	약간 높다	매우 높다
3. 공부에 대한 열의가				
4. 돈버는 것(아르바이트)에 대한 관심이				
5. 부모님의 갈등 정도는				
6. 또래들과의 갈등 정도는				
7. 선생님들과의 갈등정도는				
8. 집이나 학교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정도는				
9. 비행을 하는 정도는				
10. 미래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는 정도는				
11. 진로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는 정도는				
12. 진로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정도는				
13. 진로계획이 실현가능한 정도는				
14. 진로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정도는				

15. 당신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자주 어울렸던 친구들 중에서 중퇴한 친구는 몇 명인가요?

① 없다 ② 1-2명 ③ 3-4명 ④ 5명 이상

16. 학교를 그만 두기 전에, 중퇴한 친구들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했나요?(하나만 고르세요)

① 확신있고 생각있는 선택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했다
② 사회에서 더 행복하게 살 것 같다고 생각했다
③ 다시 학교에 돌아오는 게 더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다
④ 학교를 그만 둔 것에 대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⑤ 재학생들에 비해 용기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⑥ 기타(구체적으로)

Ⅴ. 당신 자신에 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① 전혀 소중하지 않다 ② 별로 소중하지 않다
③ 어느정도 소중한 사람이다 ④ 매우 소중한 사람이다

2.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① 전혀 쓸모없는 사람 ② 별로 쓸모없는 사람
③ 어느정도 쓸모있는 사람 ④ 매우 쓸모있는 사람

3.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① 전혀 유능하지 않은 사람 ② 별로 유능하지 않은 사람
③ 어느정도 유능한 사람 ④ 매우 유능한 사람

4. 학교교육이 당신의 인생에 어느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③ 약간 중요하다 ④ 매우 중요하다

5.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고 싶은가?

① 중학교 졸업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 졸업
④ 4년제 대학 졸업 ⑤ 대학원 이상 ⑥ 모르겠다 ⑦ 필요없다

6. 학교를 그만 두기 전에 가출을 한 적이 있었나요?

① 없었다 ② 1-2번 ③ 3-4번 ④ 5번 이상

7. 당신은 현재 가출한 상태인가?

① 아니오 ② 예(가출한 지 년 개월)

* 각 문항별로 해당되는 곳 하나를 선택하세요

당신은...	전혀 안함	거의 안함	가끔 함	자주 함
8. 흡연을?				
9. 음주를?				
10. 약물(본드, 부탄가스)을 사용해 본적 있는가?				
11. 싸움이나 폭력을?				
12. 남의 물건이나 돈을 훔친 적이 있나?				
13. 음란잡지, 비디오, 사이트를 어느정도 보는가?				

14. 성관계를 가져본 경험이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15. (여자인 경우) 나는 임신을 해본 경험이 있다 ① 예 ② 아니오

(남자인 경우) 나와 성관계를 가져서 여자가 임신을 한 적이 있다 ① 예 ② 아니오

* 당신의 진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각 문항별로 하나씩 선택하세요

당신은 자신은 미래 진로에 대하여...	매우 어둡다	약간 어둡다	약간 밝다	매우 밝다
16. 미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희망은				
17. 진지하게 생각해보았나요?				
18.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았나요?				
19. 그 계획이 실현가능한 것이었습니까?				
20.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나요?				

16. 당신은 10년 후 당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기를 원합니까?(하나만 고르세요)

① 학생 ② 유학 ③ 군복무 ④ 회사원 ⑤ 공무원 ⑥ 서비스직 ⑦ 판매직

⑧ 농업 ⑨ 예술가 ⑩ 연예인 ⑪ 전문직 ⑫ 기타 ( ) ⑬ 잘 모르겠다

Ⅵ.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당신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좋습니까?
   ① 매우 싫다　② 약간 싫다　③ 약간 좋다　④ 매우 좋다

다음 보기에서 제시되는 기관들을 잘 읽고 나서 대답해주세요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여성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쉼터,각종 문화시설, 체육시설, 병원 및 보건소, 교육청, 시청 및 도청 청소년 담당과, 청소년 보호시설, 청소년 상담 기관, 직업전문학교, 대안학교, 시민사회단체, 소년원 등

2. 당신의 거주지역내에 이러한 기관이 있는지 잘 알고 있나요?
   ① 아니오　② 예
3. 이용해 보셨나요?　① 아니오　② 예(어떤 기관?　　)

Ⅶ. 당신이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게 된 것에 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학교를 그만 두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만 고르세요)
   ① 경제적 사정이 나빠서　② 가정 불화 때문에　③ 학업성적이 나빠서
   ④ 공부하기 싫어서　⑤ 친구들이 하자고 해서　⑥ 학교친구들과의 갈등
   ⑦ 선생님과의 갈등　⑧ 학교에서 배운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⑨ 그냥 놀고 싶어서　⑩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학교에서 할 수 없어서
   ⑪ 유학가려고　⑫ 학교밖에서 비행을 저질러서　⑬ 무단결석
   ⑭ 이유없이 학교가기 싫어서　⑮ 기타(　　)
2. 당신은 학교를 그만두는 것에 어느정도 신중하게 결정했나요?
   ① 전혀 신중하지 않았다　② 약간 신중하지 않았다　③ 약간 신중했다
   ④ 매우 신중했다
3. 학교중퇴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누구의 의견이 가장 크게 작용했나요?(하나만 고르세요)
   ① 학교 선생님　② 나자신　③ 부모님　④ 친구　⑤ 기타(　　)

4. 당신은 현재 학교를 그만 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② 다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③ 약간 후회하고 있다 ④ 매우 후회하고 있다

Ⅷ. 당신이 학교를 그만 둔 후 현재의 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당신이 학교를 그만 두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① 검정고시 준비 ② 유학준비 ③ 취업준비 ④ 대안학교 다님
⑤ 특별히 하는 일 없다 ⑥ 기타 ⑦ 돈을 벌고 있다
2.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나요?
① 오토바이 배달 ② 주유소 ③ 음식점 서비 ④ 게임방
⑤ 유흥업소(다방, 노래방, 호프집 포함) ⑥ 기타 ( )
3. 하루 중 돈버느라 일하는 시간은 전부 합쳐 어느정도나 되는가요?
① 3시간 미만 ② 3-5시간 ③ 5-7시간 ④ 8시간 이상 ⑤ 기타 ( )
4. 현재 당신은 어디에서 살고 있나요?(하나만 고르세요)
① 집 ②친척집 ③ 친구집 ④일하는 곳
⑤ 청소년 쉼터 ⑥ 정해진 곳 없다 ⑦ 기타
5.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복학하기를 희망합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 다음의 것들 중에서 하고 싶은 것, 도움을 얻고 싶은 것이 있는가요?
(모두 고르세요)
① 복학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싶다 ②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도움을 받고 싶다
③ 직업교육을 받고 싶다 ④ 취업기회를 소개받고 싶다
⑤ 가족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고 싶다 ⑥ 대안학교에 입학하고 싶다
⑦ 직업학교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다 ⑧ 지낼 곳을 소개받고 싶다
⑨ 또래와 어울려 놀 수 있는 건전한 시설이나 장소가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다
⑩ 기타(구체적으로)

7.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의 장래를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배우고 싶나요?(예를 들면, 이·미용기술, 운전기술, 자동차수리, 요리기술,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등)
(_____)

8. 복학절차나 직업교육, 취업알선, 대안학교 등등에 관한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받아보길 원합니까?(하나만 고르세요)
① 가정에 발송되는 소식지를 통해 ② 인터넷을 통해
③ TV 나 라디오 등 공공방송을 통해 ④ 자원봉사자와의 1:1 만남을 통해
⑤ 거주지역 내에 있는 기관(상담실, 복지관 등)을 통해
⑥ 기타(구체적으로)

9. 다음의 상담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당신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합니까?(모두)
① 나의 적성이나 직업,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
② 내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
③ 화나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
④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
⑤ 인내력을 키워주는 프로그램
⑥ 다른사람과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
⑦ 용돈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
⑧ 공부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력을 키워주는 프로그램
⑨ 시간을 효과적으로 잘 쓸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
⑩ 학습방법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
⑪ 생활태도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⑫ 기타( )

10. 학교를 그만 두고 있는 당신이 현재 가장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_____)

감사합니다

부록 4. 의뢰접수증

일련번호: _____ 의뢰접수일자: _____

이 름:_____ 학교: _____ 학년:_____

나 이: 만 _____ 세 주민등록번호:_____

부모이름: _____ 연락처:_____

의 뢰 자: _____ 청소년과의 관계:_____

의뢰이유: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문제에 대한 정보: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의뢰자 연락처: _____

연락가능시간: _____

부록 5. 영역별 정보조사내용

1. 학교내 행동 및 태도관련 영역

1) 출석상황

청소년들의 무단결석 및 장기결석은 중도탈락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문제이며 지각, 조퇴, 결석은 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이나 가정과 학교 밖에서의 어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무단 및 장기 결석, 지각, 조퇴가 잦은 것으로 나타난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알아보아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결석을 한 이유
② 이전 결석 경험
③ 학교생활에 대한 당해 년도, 당해 학기에 대한 느낌
④ 최근의 가정에서의 변화나 사건
⑤ 결석이나 지각 시 활동 내용
⑥ 결석이나 지각 시 부모의 인지 여부

2) 성적 및 학업능력

의뢰된 청소년의 성적과 학업능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은 학교가 재미없고 의미없다고 느끼는 경우 학업적 성취에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로 학업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학교에 흥미를 잃는 경우도 있다. 이 두 가지 모두의 경우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학업성적 및 학업 능력에 대한 정보수집 과정에서 관심을 주어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학급에서 하위 30% 이하의 성적을 유지하는 경우
② 자신의 성적이나 수업에 전혀 관심이나 의욕이 없는 경우
③ 근래에 급격히 성적이 떨어진 경우
④ 특정한 과목에서 특별히 낮은 성적을 가지는 경우

위와 같은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알아보아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②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인가? 가장 싫어하는 과목은 무엇인가?

③ 방과 후나 주말에 무엇을 하는가?
④ 가정에 어떤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가?
⑤ 학교에서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인가?
⑥ 특정한 교사와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가?

또한, 관심이나 재미를 느끼는 분야가 전혀 없이 자신을 소외시키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학교 밖에서의 일탈적인 생활이나 문제와 관련되어 있지는 않은지, 친구 관계상의 문제로 인한 성적저하는 아닌지 등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미래 자신이 종사하고 싶은 직업이나 관심 분야에 빠져 학교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파악해 볼 수 있어야 한다.

3) 교우관계

학교에서 동급생 또는 선후배와의 관계는 중도탈락과 관련된 문제를 규명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 어떤 청소년이 학교를 중도에 떠나거나 전학을 권유 받게 될 때 이는 그 청소년 혼자의 문제라기 보다는 학생들 간의 관계가 서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비행과 관련된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선후배와 맺고 있는 관계의 유형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뚜렷한 이유없이 학교 생활에 위축되어 있거나 교우관계에서 소외되어 있는 학생인 경우, 그 원인을 알아보는 것도 정보수집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교우관계에서 주요하게 수집해야할 정보는 다음과 같다.

① 친하게 지내는 동급생과 선후배는 누구인가?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하는가?
② 함께 교실을 이동하거나 도시락을 먹는 친구는 누구인가?
③ 일진회 등의 써클에 가입해 있는가?
   가입했다면 주로 활동하는 것은 무엇이고 왜 가입하게 되었는가?
④ 학교에 절대적으로 친하고 복종적인 선배나 복종하는 후배가 있는가?
⑤ 친한 친구 중에 학교를 중도에 떠난 친구는 없는가?
   그 친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친구의 의사/권유가 학업중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⑥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는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따돌림을 받아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든가?

4) 교사관계

학교에서의 교사와의 관계는 학교를 그만 두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중도탈락의 위험을 감소시켜주기도 하는 등 중도탈락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즉 학생이 중도탈락의 위기에 있거나 조언이 필요한 경우에 찾아갈 수 있는 교사가 있거나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교사가 있는 경우는 중도탈락의 위험이 낮아질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는 교사와의 관계에서 겪게 되는 일시적인 위기나 사건이 곧바로 학업중단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학교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수집하여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다.

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선생님은 누구인가?
② 학교 선생님들이 자신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③ 자신에게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선생님이 있는가?
④ 선생님과의 관계 때문에 학교 생활이 어렵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⑤ 자신의 잘못에 대해 담임선생님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선생님으로부터의 대우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⑥ 선생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해주었으면 좋겠는가?

5) 학교내 과외활동

학교 생활에의 참여는 수업시간에의 참여와 교과 외의 축제나 소풍, 특별활동, 서클활동 등에의 참여로 나누어 살펴 보아야 한다. 학교 행사나 수업 시간에 문제 행동을 보이거나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 학생 외에도 학교 생활에서 소극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학생을 발견해내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학교 생활에서 위축되어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문제를 발견하기가 어렵고 관심의 순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 비해 뒤로 밀릴 수가 있으므로 학생에 대한 조사에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다. 학교생활의 태도와 관련하여 수집하여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다.

① 수업에 대한 관심 정도는 어떠한가?
②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가?
③ 양호실을 자주 찾는가?
④ 학교행사에 대한 관심 정도는 어떠한가?
⑤ 학교행사에 참여 정도는 어떠한가?

2. 가정관련 영역

가정관련 영역에 대한 조사에서는 가족의 구조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여야 한다. 가정은 학생이 중도탈락을 하게끔 하는 위험을 만드는 최초의 환경인 동시에 중도탈락의 위험요소에 대한 보호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말하자면, 중도탈락에 이르는 위험수준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가정이 청소년을 보호해주는 정도에 따라 실제로 중도탈락에 이르느냐 아니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관련영역에 대한 조사에서는 가정이 중도탈락의 한 요인이 되었는지 또는 가정이 중도탈락시 청소년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는지 등에 관련된 정보도 함께 수집되어야 한다. 가정관련 영역과 관련된 정보에서 수집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모의 직업과 교육정도는?
② 친부모의 결혼상태와 양친부모와의 동거여부?
③ 가정의 경제상태?
④ 학교를 중퇴한 가족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가?
⑤ 부모의 교육적 지원은 어떠한가?
⑥ 부모의 관심 정도는 어떠한가?
(대화의 정도, 함께하는 활동 여부, 자녀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등)
⑦ 부모의 청소년에 대한 진학 기대는 어떠한가?
⑧ 지난 2년간 집의 이사횟수는 얼마나 되는가?
⑨ 집에 가면 주로 무엇을 하고 지내는가?
⑩ 집에 가면 식구 중에 누가 집에 있는가?
⑪ 가족 중에 술과 관련된 문제를 가진 성원이 있는가?
⑫ 가정에 폭력 문제가 존재하지는 않는가?
⑬ 가출 경험이 있는가?

가정관련 영역에서는 친부모의 결혼상태가 이혼이나 사별인 경우, 양친부모가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 가정의 경제상태가 중하 이하라고 지각하는 경우, 학교를 중퇴한 가족이 있는 경우에 특별히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3. 기타 학교 밖 행동영역

학교 밖에서의 행동에 대한 정보는 청소년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부모, 교사 및 친구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학교 밖에 행동 및 태도에 대한 정보에서 관심을 가지고 수집해야 할 내용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아르바이트
2) 음주/흡연/약물
3) 학교외 친구
4) 범죄관련 여부

4. 개인의 심리 및 가치관련 영역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정보 수집은 의뢰된 청소년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으며,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 및 미래에 대한 계획, 현재의 욕구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심리검사들(예컨대, 성격, 지능, 흥미/적성 검사 등)을 활용하여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정보도 수집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의 적응 또는 학교를 떠난 후의 삶을 계획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부록 6. 평가동의서

일련번호 _____

평 가 동 의 서

부모님께
(법적 보호자님)

학교를 떠날 위험이 있거나 이미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위해 ○○ 지역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협의체는 의뢰된 청소년에 대해 면밀히 조사 · 평가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을 계획· 배치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평가와 프로그램 계획을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법적 보호자로부터의 동의를 요청합니다.

위와 같은 활동은 대상 청소년에게 어떠한 신체적, 정신적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얻은 ○○○에 대한 사적인 정보는 목적 외에는 이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 학업중단 지원협의체

_____
청소년 이름

_____
담당상담원

_____
청소년의 부모

부록 7. 평가회의 및 배치기록

일련번호: _____ 의뢰접수일자: _____
평가회의일자: _____
이름: _____
주소: _____
_____
학교:_____ 학년:_____ 생년월일:_____

I. 의뢰 이유 및 절차

1. 자발적으로 이유:_____
2. 담임교사나 학생부에 의해 이유:_____
3. 부모 의해 이유:_____
4. 기타 _____
_____
_____

II. 중점적으로 고려할 사항

1. 전체적인 장점
_____
_____
_____
_____

2. 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한 부모의 욕구
_____
_____
_____

3. 고려되어야할 특별 사항
학습이나 다른 교육을 방해하는 행동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_____
_____
_____

III. 평가

1. 현재 학업수행, 행동, 사회적/정서적 발달과 관련된 장점과 욕구;
_____
_____
_____
_____

2. 다른 관련된 정보;
_____
_____
_____

IV. 목표

1. 매년 목표 1. _____
   1-1. 단기목표 _____
   1-2. 단기목표 _____
   1-3. 단기목표 _____
2. 매년 목표 2. _____
   2-1. 단기목표 _____
   2-2. 단기목표 _____
   2-3. 단기목표 _____
3. 매년 목표 3. _____
   3-1. 단기목표 _____
   3-2. 단기목표 _____
   3-3. 단기목표 _____

V. 배치

필요:
원하는 학교 중퇴 후 생활:
필요한 서비스:

서비스지역	필요한 서비스	책임 기관
교육		
관련된 서비스		
지역사회경험		
직업 / 어른으로서의 삶의 기술		
기능적 직업교육		

VI. 회의참여자

프로그램 구성에 참여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서명	직위	날짜
_____	지원협의체 상담원	_____
_____	학교교사	_____
_____	부모	_____

VII. 재평가

프로그램의 매년 점검은 _____년 ___월 ___일 전까지 실시될 예정임.
서명 _____ 직위 _____ 날짜 _____

부록 8. 현장연구(복교 청소년 및 부모) 결과 보고

학업중단 경험에 관한 청소년 및 부모의 설문조사결과

본 조사연구는 설문 및 면접을 통해 복교를 하려는 학업중단청소년 및 부모의 현황, 학교를 그만둔 이유, 생활, 주위반응, 어려움과 청하고자 하는 도움의 유형등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서 학업중단 청소년 및 부모의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 대 상 : 부산지역 2003년 3월 복교대상자 중 청소년 106명(프로그램 참가자), 부모 67명
- 실 시: 2003년 2월 14일

설문 및 면접조사 영역

청소년

- 인구통계학적 변수
- 학교를 그만두기 전의 상황(시기, 학력, 학업중단의 이유, 학교생활, 교칙위반, 학업중단 경험 친구 및 가족의 유무, 결정 정도, 횟수 등)
-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의 상황(후회, 했던 일, 부모의 반응, 겪은 어려움)
- 복교(복교하고자 하는 이유, 예상되는 어려움 등)
- 사회적 지지(주변의 도움, 복교결정의 도움을 준 것, 제공받고자 하는 상담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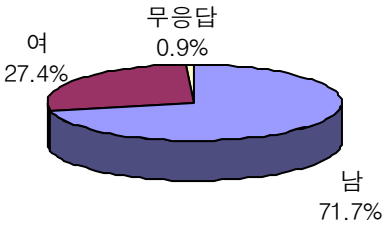
부모

- 인구통계학적 변수
- 자녀의 학업중단 이유
- 학교를 그만두려할 때 부모의 반응
- 학업중단 이후의 자녀의 어려움 및 해결을 위한 노력
- 사회적 지지, 유형, 상담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분석

1. 인구통계학적 변수

청소년의 나이는 14세부터 21세까지의 청소년이 참여하였으며, 조사대상의 77.4%가 17-19세로서 중3에서 고2까지의 청소년이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성별은 남(71.7%), 여(27.4%)로서 남자:여자의 비율이 약 3:1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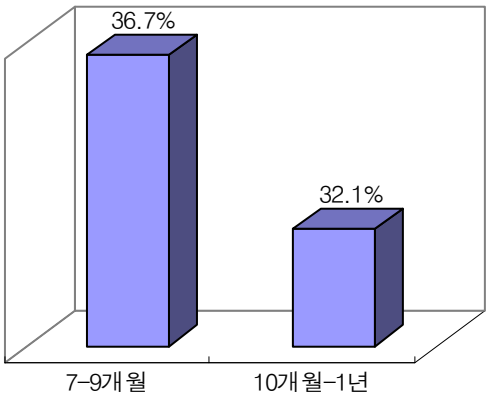


<성 별>

2. 학교를 그만 두기 전의 상황

· 학교를 그만 둔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본 설문에 참여한 106명의 청소년중 가장 많은 39명(36.8%)이 그 간격이 '7-9개월 정도'였으며, '10개월-12개월'정도 된 청소년들이 그 다음인 34명(32.1%)이었다. 이를 통해 볼때 학교를 그만 둔 지 6개월이상이 되었지만 1년 이내에 학교를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대다수(68.9%)임을 알 수 있었다.



<학교를 그만 둔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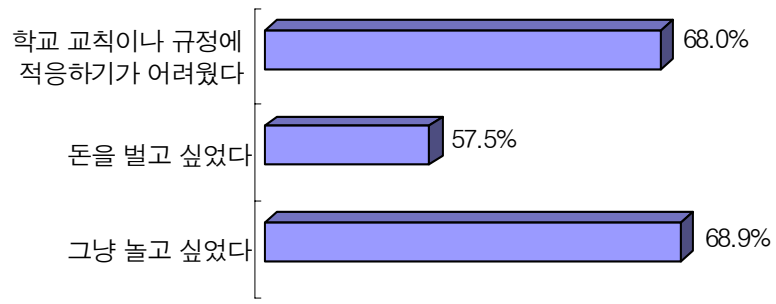
· **학교를 그만 둘 때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까?**

학교를 그만 둘 때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던 청소년들이 56명(52.8%)으로 복교를 하려는 청소년들의 경우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중 가장 많이 학교를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조사연구(교육통계연보, 2001)와 유사하다.

· **학교를 그만 둔 이유**

이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려는 이유에 대해 '그냥 놀고 싶었다', '학교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가 어려웠다', 혹은 '돈을 벌고 싶었다' 등으로 높은 점수를 주었다. 반면에 신체건강상의 문제, 학교친구들과의 문제, 가정불화등의 외부요인으로 인한 학업중단은 그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부모의 설문조사에서는 '자녀의 주변에 학교를 그만 두 친구가 있었다'에 가장 높은 빈도(68.7%)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선생님과 관계가 나빴다'(49.3%)에 응답하였다. 부모의 경우는 자녀의 내적 원인에 의한 학업중단이라기 보다는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등 외적 요인에 그 이유를 두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 "처음엔 이유없이 안가려고 해서, 나중에 알고보니 3학년 형들이 괴롭히고, 찾아와서 폭행하고.. 집단으로 그러는 애들 있잖아요. 문제가 되겠다 하는 애들을 몇몇 지정해가지고요. 다른애들은 그래도 가는데, 얘만 안가는 거예요."



<학교를 그만 둔 이유>

· **학교를 그만 둘 당시 성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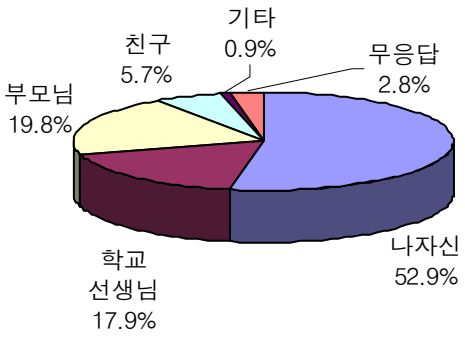
성적이 하위권(중하위권 포함)인 청소년들이 본 조사연구의 74.6%를 차지했으며, 과반수 이상의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 두기 전 1년동안 결석, 지각, 수업빼먹기 등의 근태가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볼때 학업수준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학교를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아이들이 복교했을 경우에 다시 존재할 수 있는 학업수준에 대한 배려와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학교를 그만 둔 경험이 있는 친구의 여부**

또래친구의 영향이 학업중단의 주된 이유로 자리잡고 있음은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한 바 있다. 본 조사에서도 75.5%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 둔 친구들과 자주 어울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 **결정요인**

학교를 그만 두는 것에 대한 결정에 자신의 의견이 가장 많이 작용(52.8%)되었으며, 이러한 결정을 신중하게 내리지 않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3.4%에 달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 두는 결정에 대해서 비교적 정황이나 상황에 신중하지 못하게 일시적으로 반응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주변인의 역할이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학교 중퇴 최종적 결정 요인>

3.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의 상황

· 후회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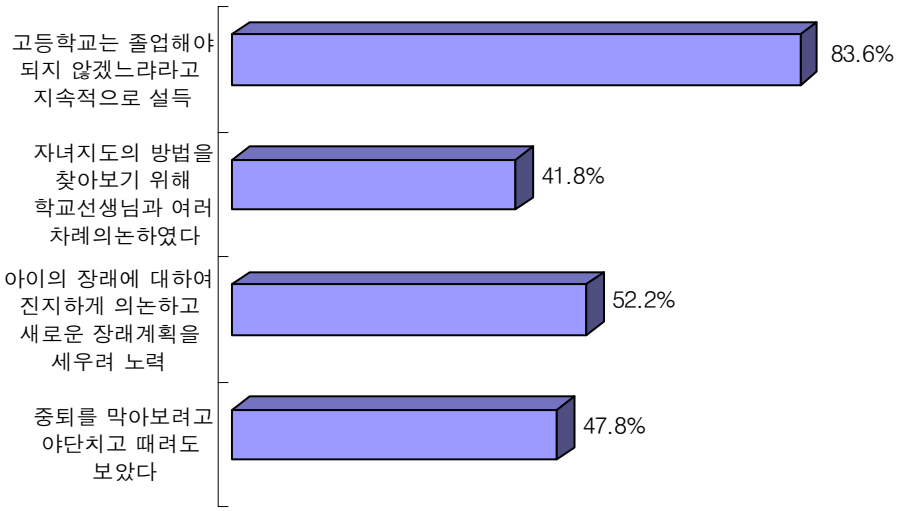
학교를 그만 둔 것을 '옳은 선택이었다(4.7%)' 혹은 '용기있는 행동이었다(0.0%)'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매우 극소수였으며, 이를 통해 복교를 하고자 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 둔 것에 대해 대다수 후회하고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았던 것 같다'라는 질문에는 88.7%의 아이들이 부정을 한 것으로 보아, 비록 학교를 그만 둔 것이 옳지 못하고 용기있는 행동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한번 경험함으로써 얻는 것이 많았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의 일

이 경우 자신이 원하던 일을 하기보다 아르바이트(65.1%)를 하거나, 딱히 하는 일 없이 무료하게 보내거나(39.6%), 취미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배우면서(39.6%)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

· 부모의 반응

대다수의 부모님(84.9%)들이 '학교졸업장은 있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복학을 권유하셨다'고 한다. 부모조사 결과에서도 83.6%의 부모님들이 '고등학교까지는 졸업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아이의 장래에 대하여 진지하게 의논하고 새로운 장래계획을 세우려 노력(52.2%)'하였으며, '중퇴를 막아보려고 야단치고 때려도 보았다(47.8%)'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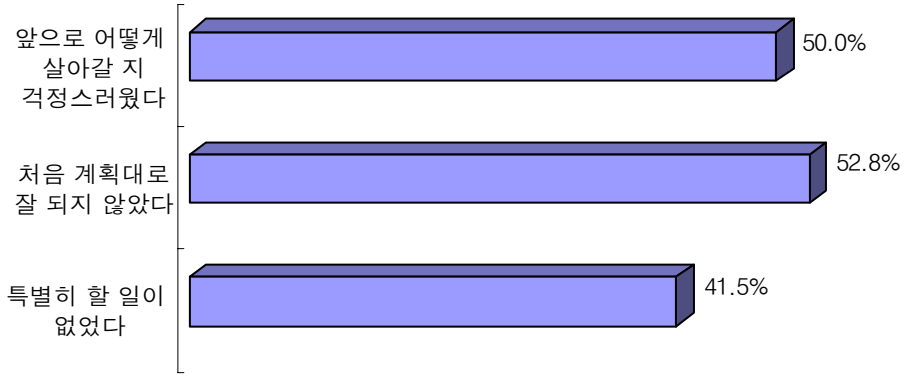


<부모조사결과>

· 학교를 그만 둔 후 겪는 어려움

이에 대해서 많은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 '처음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음', '특별히 할 일이 없음'등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은 크게 장래계획 등의 진로와 관련되어 있으며, 자신이 학교를 그만 두기 전에 진로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계획하지 않아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가장 많이 토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설문조사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부모로서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 지에 대한 걱정'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하였다. 그 외에도 '아이가 집밖에서 너무 돌아다니는 것', '친척이나 주위사람들의 시선'등을 어려움으로 보았다.

부모: "혼자서 1-2년을 지냈다. 종교에 의존하면서.. 친척에게 말도 못하고 챙피해서, 혼자 힘들었다. 형도 같이 사춘기를 겪어서 같이 속썩였다"



<학교를 그만 둔 후 겪는 어려움>

4. 복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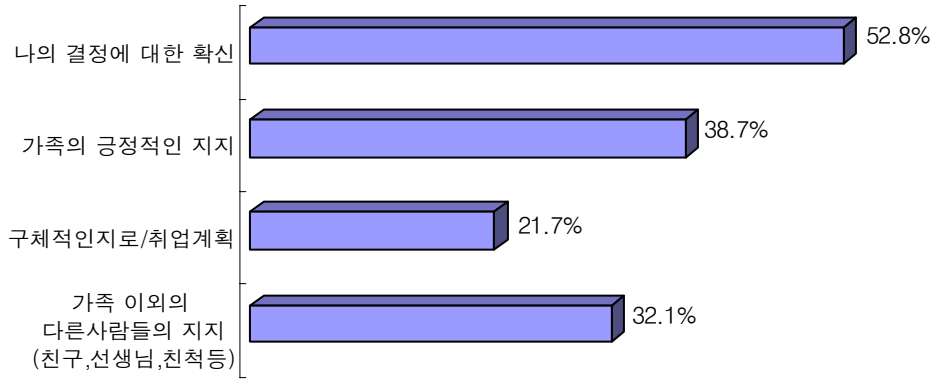
· 복교하려는 이유

가장 높은 것은 '학교졸업장이 필요해서'(45.3%)이며, 그 외에도 친구나 부모의 권유, 장래계획의 변화 등을 들었다. 반면 '외롭고 친구가 없어서(0.9%)', '주위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2.8%)'등의 외부요인에 대한 원인은 그 비중이 매우 작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부모의 조사결과에서도 뒷받침 되는데, 부모의 경우 '자녀가 복학하도록 설득'한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의 문제를 친척들과 의논함으로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청소년: 어려운 점이 있다면 엄마가 많이 신경써주는 데 처음에는 엄마, 아빠랑 불편했어요. 환자보다는 동생으로, 딸로써 받아주시고, 점점 더 잘해주시구요. 더 잘해주니까 미안한 마음도 들고, 복학하기로 결정할 때는 부모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 복학을 결정할 때 힘이 된 것

복학을 결정할 때 힘이 된 것은, 학교를 그만 둘 때와 마찬가지로 '나의 결정에 대한 확신'(52.8%)이며, '가족의 긍정적인 지지(38.7%)'도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복학을 결정할 때 힘이 된 것>

· 복교 이후 예상되는 어려움

복교 이후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공부를 따라가지 못할 것 같다', '학교 교칙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다', 혹은 '같이 입학한 친구들보다 학년이 낮아서 부끄럽다' 등을 예상하였다. 부모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특히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가?, 선입견을 가진 교사와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가?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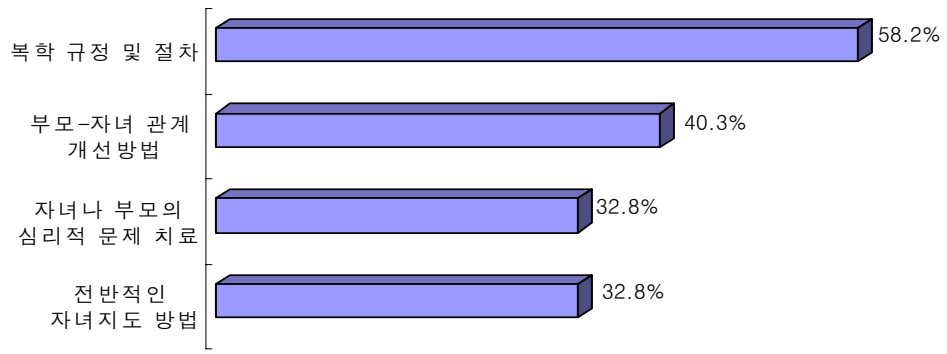
부모: "안그래도 학교에서 추천서 받으려고 가니까 교감샘이 '좀 다니다가 다른 학교로 전학가라고' 하더라구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간다고 하니까 '다른 애들까지 물드니까'라고 하대요.그 당시는 자퇴를 다 말리고, 전학가려고 하니까 그곳에 가면 적응못한다고 다 말리더니 이제 와서는 전학가라고 하더라구요.전학을 시켜달랬더니 안 해주더니만,,,"

청소년: "검정고시는 몇 시간만 있으면 되니까 공부하는 것이 더 쉽지 않을 까 시작하려고 했는데 검정고시는 반드시 합격해야하잖아요. 저는 아프고 난 다음에 집중도 어렵고... 언니가 그러는데, 검정고시도 경쟁률도 있고, 분위기가 삭막하다구. 나같이 약한 애는 견디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차라리 학교는 꾸준히 2년 동안 다니면 되니까. 애들이랑 저는 어울리는 법도 몰라서 애들이랑 노는 것도 배우고, 그러면서 학교를 재미삼아 다닌 것처럼 하면 학교가 더 편할거라고 생각해요.

5. 사회적지지

· 주변의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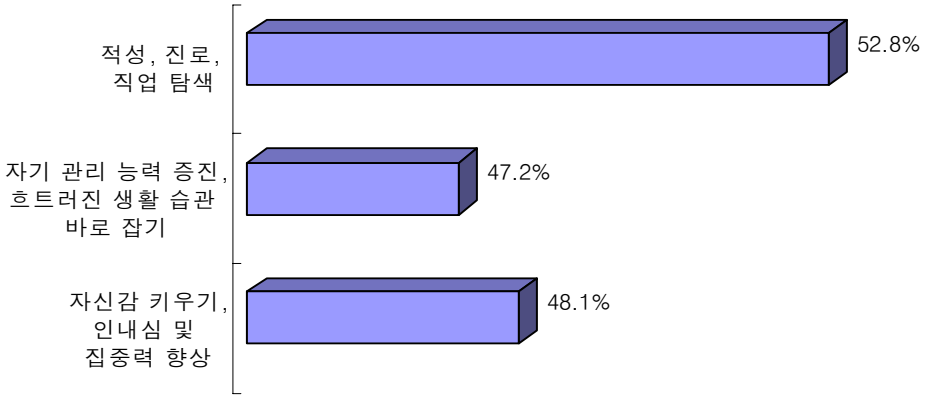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주변으로부터 받은 도움으로 가장 많은 것이 '복학절차에 대한 안내', '아르바이트, 취업할 곳 소개' 등 정보에 대한 도움이었다. 부모의 조사결과에서도 50.7%의 응답자들이 지역사회에 있는 상담실이나 시설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시도해 본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과반수 이상(58.2%)의 부모들이 '복학규정 및 절차'에 대한 도움을 얻고자 하였으며, '부모-자녀관계 개선방법(40.3%)', '자녀나 부모의 심리적 문제치료(32.8%)', '전반적인 자녀지도 방법(32.8%)' 등 복학에 대한 정보 제공 뿐 아니라 자녀를 지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요구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그만 둔 이후 받고자 했던 도움-부모조사결과>

· 상담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학교적응을 위해 제공받기를 원하는 상담프로그램으로 '적성, 진로, 직업탐색(52.8%)', '자신감 키우기, 인내심 및 집중력 향상(48.1%)', '자기관리 능력증진, 흐트러진 생활습관 바로잡기(47.2%)'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부모조사결과에서도 '자녀의 자신감 키우기, 인내심, 집중력 향상(62.7%)', '자기관리 능력 증진(61.2%)', '급우 및 선생님과의 인간관계 개선(52.2%)'에 대한 상담프로그램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을 위하여 진로, 자존감 향상, 자기관리 및 대인관계증진에 관한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부록 9. 지원협의체 연간 예산 예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협의체 사업비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산 출 기 초
관	항	목		
합 계			112,991.8	
11 인 건 비			80,391.8	
111 급 여			47,232	전 임 6호봉) 1,210,000*12월= 14,520 상담원 3호봉) 1,007,000*12월*2명= 24,168 보조원 3호봉) 712,000*12월= 8,544
112 상 여 금			15,744	년 400% 47,232,000 *1/3= 15,744
113 명절휴가비			3,936	년 100% 3,936,000 *100%= 3,936
114 제 수 당	시간외수당		3,871.8	선임) 6,620*15시간*12월*1명=1,191.6 상담원) 5,500*15시간*12월*2명=1,980.0 보조원) 3,890*15시간*12월*1명= 700.2
	교통비		360	(상담보조원)30,000*12월*1명 = 360
116 퇴직적립금			5,248	62,976,000*1/12 = 5,248
117 의료보험료			500	의료보험공단제시액 = 500
118 국민연금부담금			3,000	국민연금공단제시액 = 3,000
119 고용/산재보험료 재정보증보험료			500	산재보험,고용보험,재정보증료공단제시액 = 500
120 업무추진비			1,300	
121 기관운영추진비			1,000	100,000*10월 = 1,000
122 회 의 비			300	회의비 100,000*3회 = 300

과 목	예산액	산 출 기 초
관 항 목		
13 운영비	9,550	
131 여 비	3,900	업무출장비 10,000*150회 =1,500 외부강사 여비 2회*300,000 = 600 도외출장비 3회*2명*300,000 =1,800
133 수용비 및 수수료	1,650	신문구독료 35,000*12월 = 420 수수료 1,000*30회 = 30 소모품구입 100,000*12월 = 1,200
134 공 공 요금	3,600	전기,전화,우편,통신료(ADSL) 300,000*12월 = 3,600
137 연 료 비	400	난방비 100,000*4월 = 400
02 재산조성비	14,500	
212 자산취득비	2,500	비품구입 컴퓨터 1,200,000*4대 = 4,800 프린터 300,000*2대 = 600 복사기 5,000,000*1대 = 5,000 책상/의자 300,000*4대 = 1,200 전화기 800,000*1회 = 800 캐비넷 300,000*5대 = 1,500
213 시설 장비 유 지 비	600	비품수리비*20회 = 600
03 사 업 비	6,050	
311 홍 보 비	4,050	자료집 5,000*200부*3종 = 3,000 현수막 100,000*3회 = 300 매체홍보 150,000*5회 = 750
312 수 당	1,000	외부강사수당 200,000*2회 = 400 원고료 3,000*200매 = 600
313 재료구입비	1,000	상담재료구입(검사지등) = 1,000
811 예 비 비	1,200	예비비 = 1,200

※ 인건비 호봉은 최소한으로 했으며 경력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연 구 진

연구책임자 : 김동민(한국청소년상담원 교수)
공동연구자 : 금명자(한국청소년상담원 교수)
권해수(한국청소년상담원 선임상담원)
이소영(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원)
이희우(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원)
이광호(경기대학교 교수)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연구

인 쇄 2003년 12월 일
발 행 2003년 12월 일
저 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편
발행인 이 혜 성
발행처 한국청소년상담원
주 소 100-456 서울시 중구 신당6동 292-61(홍진빌딩내)
전화 (02)2253-9344
팩스 (02)2253-3818
http://www.kyci.or.kr
인쇄처 서진인쇄사 ☎ (02)702-3053

본 보고서는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ISBN 89-8234-295-8 93330
ISBN 89-8234-002-5(세트)